

[列國誌] 2부 장강의 영웅들 (270)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제10권 오월춘추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2)

그 날 밤이었다 투신(鬬辛)은 투소와 함께 초소왕을 모시고 잤다. 자정이 지났을까. 사위가 조용한 데 문득 어디선가 솟돌에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투신(鬬辛)은 의심이 나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동생 투회(鬬懷)가 성난 얼굴로 시퍼렇게 날선 칼을 달빛에 비춰보는 중이 아닌가. 투신이 기겁하여 물었다.

"너는 그 칼로 무엇을 할 작정이냐?"

투회(鬬懷)가 결연한 어조로 대답했다.

"왕을 죽일 작정이요."

"네가 어찌 그런 생각을 품느냐?"

"지난날 우리 아버지는 초평왕(楚平王)에게 충성을 다했소. 그런데도 초평왕은 비무극(費無極)의 참소를 곧이듣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소. 나는 이제 초평왕의 아들을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오."

투신(鬬辛)이 화를 내며 동생을 꾸짖었다.

"네 무슨 망발을 지껄이느냐? 임금은 하늘과 같다. 하늘이 사람에게 불행을 주었다 해서 감히 하늘을 원수로 삼겠느냐?"

"백성이 있고, 신하가 있어야 왕이요. 백성을 죽이고 신하를 죽이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죽이려는 것이요."

"동생은 들어라. 원수가 죽으면 원수를 못 갚는 법이다. 즉 원수는 그 자손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왕께선 선왕의 잘못을 통탄하시어 우리 형제에게 베풀까지 주셨다. 지금 우리 형제가 위기에 빠진 왕을 죽인다면 누구보다도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일 그 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너를 죽이리라!"

투신의 강한 반대에 투회(鬬懷)는 칼을 거두고 투덜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초소왕(楚昭王)은 잠결에 바깥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자신의 생사를 놓고 형제간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투회가 생각을 바꾸어 칼을 거두긴 하였으나 초소왕은 더 이상 그 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다음날, 날이 밝자 초소왕(楚昭王)은 투신과 투소를 불러 다른 곳으로 갈 뜻을 밝혔다. 일행은 의논한 끝에 수(隨)나라로 달아나기로 결정했다. 수나라는 초나라 속국으로 지금의 호북성 수현 일대다.

국성(國姓)은 희(姬).

주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초나라의 무력에 굴복하여 초나라 속국이 되었다.

한편, 노복강에 진을 치고 오군의 침공을 저지하려던 공자 신(申)은 뒤늦게 영성이 함몰되고 초소왕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동요할까 두려웠다. 백성들이 나라를 버리고 달아나면 초(楚)나라는 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초소왕 흉내를 내었다.

- 초나라 용사들이여. 나와 함께 오군을 무찌르자.

가짜 초소왕이 된 공자 신(申)은 비설 땅에 조정을 차려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비설(脾洩)은 영성 부근의 작은 읍으로, 지금의 호북성 강릉시 근처다. 이 때문에 영성 일대의 백성들은 모두 비설 땅으로 피신해왔다.

그런 중에 초소왕이 수(隨)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야 공자 신(申)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짜 왕인 것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수나라로 들어가 초소왕을 알현했다. 오나라 침략으로 인해 벌어진 웃지 못할 일화 중 하나이다.

초평왕의 시체를 꺼내 구리 채찍으로 3백 대를 후려친 오자서(伍子胥)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 기어코 초(楚)나라를 멸망시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소왕을 사로잡아 죽여야 했다.

오왕 합려에게 다시 청했다.

"초왕을 잡지 못하는 한 초(楚)나라는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일대를 뒤져 초왕을 잡아오겠습니다."

합려(闔閭)는 허락했다.

그때부터 오자서의 초소왕 수색 작전은 시작되었다. 오자서(伍子胥)는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초소왕이 수(隨)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편지를 써서 수나라 임금에게 보냈다. 수(隨)나라는 보내 주나라 자손이었지만, 운수가에 살면서 여러 대 동안 초나라의 괴롭힘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하늘이 오나라를 도우사 초(楚)나라에 벌을 내렸습니다. 군후께서는 초왕을 잡아 압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吳)나라는 운수 일대의 땅을 수나라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隨)나라는 초나라 속국이 된 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초나라의 한 고을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수후(隨侯)는 오자서의 편지를 받자마자 초나라 신하들에게 내보였다.

"오자서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소이다. 어찌하면 좋겠소?"

공자 결(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왕과 얼굴이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짜 왕이 되어 오자서에게로 가겠습니다."

공자 결(結)은 초소왕과 이복형제간이었으나, 희한하게도 쌍둥이처럼 얼굴이 비슷했다. 그래서 이따금씩 신하들도 착각할 정도였던 것이다.

수나라 임금은 공자 결(結)의 그러한 각오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기왕 초나라를 도와 줄 바에 굳이 사람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오. 내가 알아서 오자서에게 답신을 낼 터이니, 그대들은 초왕(楚王)을 잘 보호하여 숨어 있으시오."

그러고는 말 잘하는 신하를 불러 오자서에게로 가 말을 전하게 했다.

- 우리 수(隨)나라는 대대로 초나라와 친한 사이이다. 일찍부터 동맹을 맺은 처지이기에 망명 온 초왕을 영접한 것이오. 그런데 초왕(楚王)은 자기 때문에 수나라가 곤욕을 당할까 염려하여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가버렸소이다. 그러니 장군은 다른 나라에 수소문해보시오.

수나라 임금의 말을 전해 들은 오자서(伍子胥)는 혼란에 빠졌다.

'이상하군. 초왕이 수(隨)나라를 떠났다면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혹 낭와를 따라 정(鄭)나라로 간

것이 아닐까?

정나라라면 오자서(伍子胥)가 한때 망명하여 숨어 있던 곳이다.

그러나 좋은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다. 자신이 모시던 세자 건(建)을 죽인 나라가 바로 정(鄭)나라였다. 그로 인해 오자서의 피눈물나는 도주 행각이 시작되지 않았던가. 새삼 분노가 치솟았다.

'그렇다. 이 기회에 초왕도 잡고 세자 건(建)의 원수도 갚아야겠다.

오자서(伍子胥)는 군사를 거느리고 정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이 무렵, 정나라 군주는 정헌공(鄭獻公)이었다.

명재상 자산(子産)에 이어 국정을 돌보던 유길(遊吉)도 죽은 후였다. 정헌공은 정정공 대에 있었던 세자 건(建)의 주살 사건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오자서가 순순히 물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게 초(楚)나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망명 와 있는 초나라 영윤 낭와를 불러 협박했다.

"그대가 우리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정(鄭)나라도 위험지경에 빠졌다. 그대는 어찌할 생각인가? 스스로 오자서에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잡아 오자서에게 넘길 것인가. 그대가 알아서 판단하라."

낭와(囊瓦)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비관한 끝에 객사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다.

정헌공(鄭獻公)은 낭와의 시체를 거두어 오자서에게 내주며 말했다.

"초왕은 우리 나라에 오지 않았소. 대신 영윤 낭와의 시체를 보내니, 그대는 더 이상 우리 정(鄭)나라를 핍박하지 마오."

그러나 오자서(伍子胥)는 물러가지 않았다.

계속 신정성을 향해 육박해 들어갔다.

오자서(伍子胥)가 계속 신정성을 향해 육박해오자 정헌공(鄭獻公)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신하들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간했다.

"이젠 별 도리 없습니다. 오군과 싸워 이기건 패하건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정헌공(鄭獻公)은 고개를 저었다.

"정나라와 초나라 중 어느쪽이 강한가? 오나라는 초군도 무찔렀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영을 내렸다.

능히 오(吳)나라 군사를 물러가게 하는 자가 있다면, 과인은 그 사람과 더불어 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리라.

거리마다 이런 방문이 나붙은 지 며칠이 지나서였다.

한 젊은어부가 정헌공을 만나뵙기를 청해왔다.

정헌공(鄭獻公)이 불러들여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젊은 어부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신이 능히 오(吳)나라 군사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의 군사와 병차가 필요한가?"

"군사도 병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에게 배 젓는 노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신이 오군을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정헌공(鄭獻公)은 젊은 어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쩌랴.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질 않은가. 정헌공은 신하를 시켜 배 젓는 노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다.

"그대가 오자서(伍子胥)를 물러가게 해준다면 내 어찌 큰 상을 아끼리오!"

젊은 어부는 신정성을 나와 오군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갔다. 영채 앞에 이르러 주저앉아 노를 두드리며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갈대 속에 숨은 사람아. 갈대 속에 숨은 사람아.

허리에는 일곱 개 별이 박힌 보검을 찼구나.

그대는 강물을 건너던 때의 일을 잊었는가.

보리밥과 생선국으로 주린 배를 채웠구나.

오(吳)나라 군사들은 영문 밖으로 달려나와 젊은 어부를 잡아다 오자서 앞으로 끌고 갔다. 그는 오자서 앞에 이르러서도 연신 '갈대 속에 숨은 사람아'를 불러댔다.

노래 가사를 듣고 있던 오자서(伍子胥)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그대는 누구냐?"

젊은 어부는 노래를 그치고 오자서에게 배 젓는 노를 들어보였다.

"장군께서는 이 노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바로 저현(潞縣) 땅에 사는 고기잡이 노인의 아들입니다."

오자서(伍子胥)는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젊은 어부의 손을 잡았다.

"그렇구나. 그대는 분명 고기잡이 노인의 아들이로구나. 그대의 부친은 나 때문에 죽었다. 나는 늘 은혜를 갚고자 했으나, 그 길을 알지 못해 한이었다."

"하늘이 도우사 오늘에야 그대를 만났도다. 그대가 노래를 부르며 날 찾아왔으니, 필시 내게 할말이 있겠구나."

그제야 젊은 어부는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저하(潞河)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중에 오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저는 정(鄭)나라 땅으로 피신해왔습니다."

"어느 날 성안으로 들어가보니 거리마다 방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나라 군사를 물러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제 선친께서 위기에 빠진 장군을 구해준 일이 있기에 이렇듯 찾아온 것입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정(鄭)나라의 죄를 한번만 용서해주시오."

오자서(伍子胥)는 고개를 쳐들며 외쳤다.

"오호라, 오늘날 이 오자서가 있게 된 것은 다 그때의 고기잡이 노인이 나를 태워 강을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푸르고 푸르거늘 내 어찌 그 은혜를 잊을 것인가. 그대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고는 그 날로 명령을 내려 정(鄭)나라 땅에서 군사를 물러가게 했다.

고기잡이 노인의 아들은 신정성으로 돌아가 오자서의 철군 사실을 정헌공에게 보고했다. 정헌공

(鄭獻公)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사방 1백 리의 땅을 식읍으로 내주었다. 그 후로 정나라 사람들은 그 젊은 어부를 '어대부(漁大夫)'라고 불렀다.

오늘날도 진(秦) 땅과 유(洧) 땅 사이에 장인촌(丈人村)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 곳이 바로 정헌공이 어대부에게 하사한 땅이다.

오자서(伍子胥)는 정나라 침공을 취소하고 초나라 국경지대로 돌아왔다.

모든 길목에 군사를 배치하고 미(麋) 땅에다 영채를 세운 후 흩어진 초나라 패잔병들이 항복해오기를 기다렸다. 동시에 초소왕(楚昭王)의 행방을 찾는 일에 전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자서에게 뜻하지 않은 서신 하나가 날아들었다.

"신포서(申包胥)?"

반가웠다. 신포서라면 오자서의 오랜 친구로 죽마고우(竹馬故友)나 다름없다. 그가 초나라 땅을 벗어날 때 길에서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다.

그때 헤어지면서 오자서(伍子胥)는 원한에 사무쳐 이렇게 말했었다.

-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초나라를 멸망시켜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겠네.

그러자 신포서(申包胥)는 이렇게 응대했었다.

- 그대가 초나라를 멸망시키려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초(楚)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네.

그때의 기억이 오자서(伍子胥)는 아직도 생생했다.

심부름 온 사람에게 물었다.

"신포서(申包胥)는 지금 어디 있는가?"

심부름 온 사람의 대답은 이러했다.

신포서는 오군에 의해 영성이 함락당할 때 초소왕과 함께 피신하지 못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영성을 지키려다가 오군이 밀려드는 것을 보고서야 따로이 이릉 땅에 있는 석비산(石鼻山)으로 피신했다.

그 후 초소왕에게로 가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오자서(伍子胥)가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체에 채찍 3백 대의 형벌을 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포서(申包胥)는 탄식했다.

- 심하도다. 오자서가 기어코 초나라를 멸망시키려들 걱정인가?

그러고는 붓을 들어 오자서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다.

오자서는 신포서의 편지를 뜯어보았다. 그 내용은 매우 신랄했다.

그대는 원래 초나라 신하로서 한때는 초평왕(楚平王)을 섬기기도 했네. 그런데 어찌 왕의 시체를 무덤 속에서 꺼내 시체에 매질을 하고 눈알까지 뽑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원수를 갚기 위해 서라고 하지만, 그대의 행동은 너무 잔혹한 일이었네.

대저 천하의 이치는 차면 쇠퇴하는 법이네.

때로 사람이 승하면 하늘을 때려부수는 비도(非道)를 감행하기도 하지만, 천도(天道)가 바로 정해지면 비도를 감행한 사람은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되네.

나는 그대의 소식을 듣고 슬픔과 비탄을 금할 수가 없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속히 군사를 거두어 오(吳)나라로 돌아가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 내가 맹세했던 거와 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군을 무찌르고 초나라를 구할 것일세.

옛 친구의 마지막 충고이네.

신포서의 편지를 읽어본 오자서(伍子胥)는 침통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심부름 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바빠서 답장은 쓰지 못하겠다. 돌아가서 신포서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우선 초평왕(楚平王)의 일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는 바이네. 하지만 자네는 나의 마음도 알아줘야 할 것이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기 때문에 매사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다."

-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오자서(伍子胥)가 남긴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이다. 한자성어로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다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나는 이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다. 어쩔 것인가. 초(楚)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제패한 후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그렇게 하자니 언제 세월이 나를 기다려줄 것인가. 그래서 나는 부득이 일을 거꾸로 하는 것뿐이다.

요즘도 할 일은 많으나 힘들고 지쳐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입에 담는 말이다.

-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기 때문에 매사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심부름꾼은 석비산으로 돌아가 신포서에게 오자서의 말을 전했다.

신포서(申包胥)는 오자서가 기어코 초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 작정인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앉아서 초(楚)나라가 멸망하는 걸 기다릴 순 없다.'

신포서는 바위 위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다. 초나라 힘만으로는 오군(吳軍)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타국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여러 나라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제(齊)나라도 생각해보았고, 월(越)나라도 그려보았다. 그러나 모두 여의치 않았다. 거리가 멀거나 군사력이 약했다.

어느 순간 섬광 같은 것이 신포서의 뇌리를 스쳤다.

'그렇다. 진(秦)이다!'

진나라는 초나라 바로 북쪽에 있으므로 거리도 가까웠고, 서방의 패자답게 군사력도 강했다.

무엇보다도 진(秦)나라는 초(楚)나라와 대대로 친밀한 편이었다. 초평왕의 부인인 맹영 또한 진애공(秦哀公)의 딸이 아니던가. 초소왕(楚昭王)은 진애공의 외손자인 셈이었다.

'진으로 가 도움을 청하리라!'

그 날로 신포서(申包胥)는 석비산을 나와서 서북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군에 패해 쫓겨온 몸이라 수레 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도보로 길을 걸었다. 발이 부르튼고 터져 발자국마다 피가 낭자했다.

그래도 신포서(申包胥)는 걷고 또 걸었다.

진(秦)나라로 향하는 길에 초소왕이 수(隨)나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진군(秦軍)을 데리고 와 왕을 모시리라.'

마침내 신포서(申包胥)는 진나라 도성인 옹성(雍城)에 당도했다.

궁궁으로 들어가 진애공을 알현하고 도움을 청했다.

"오(吳)나라의 침공으로 군후의 외손자이신 우리 왕께서는 종묘사직을 잃고 초야에 숨어 계십니다. 바라건대 군후께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군사를 일으키시어 오군을 쫓아내주시시오."

그런데 진애공(秦哀公)의 반응이 예상보다 냉랭했다.

"그대도 알다시피 우리 진(秦)나라는 서쪽 궁벽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 나라를 지키기에도 힘에 겹다. 무슨 여유가 있어 남을 도와줄 수 있으리오. 그대는 먼 길을 왔으니 잠시 역관에 나가 편히 쉬라."

그러고는 신하 하나를 딸려 역관으로 내보내 음식과 술을 내주었다.

신포서(申包胥)는 초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지금 우리 왕은 초야에 숨어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하된 사람이 어찌 한시인들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안내해준 신하를 통해 이렇게 호소하며 거듭 군사를 일으켜줄 것을 청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 진애공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신포서(申包胥)는 눈앞이 캄캄해왔으나 낙담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서 그는 결심했다.

'이 나라에서 죽으리라.'

그는 의관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역관을 나와 궁궁으로 들어갔다.

뜰 앞에 섰다.

진애공(秦哀公)은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신포서(申包胥)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궁궁 뜰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다시 날이 밝아도 그는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다.

"초(楚)나라를 위해 군사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결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신포서(申包胥)는 여전히 뜰 앞에 서서 눈물을 뿌려댔다. 또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다. 이렇게 칠일칠야(七日七夜)를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통곡하며 애걸했다.

마침내 신포서의 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피눈물이었다. 불을 타고 흘러내린 피눈물은 그의 앞가슴을 붉게 적시었다.

신포서의 이 행동은 진애공의 귀에도 전해졌다.

그는 믿을 수가 없어 어느 날 밤 몰래 뜰로 나가보았다. 과연 신포서(申包胥)는 맨몸뚱이로 뜰 앞에 서서 붉은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애공(秦哀公)은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을 받았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했다.

"무서운 일이다. 신하가 임금을 생각함이 어찌 저리도 지극한가. 과연 우리나라에도 저와 같은 신하가 있을까. 초(楚)나라에 저런 신하가 있는데 어찌 초나라가 멸망할 것인가."

진애공(秦哀公)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둠 밖으로 몸을 드러냈다.

"신포서여, 신포서여."

느닷없는 외침 소리에 신포서(申包胥)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진애공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리며 큰 절을 올렸다.

"군후께서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진애공(秦哀公)은 가까이 다가와 신포서의 차디찬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내가 이제야 신하 된 자가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소. 내 그대의 청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터이니 어서 옷부터 입도록 하시오."

"임금을 바로 모시지 못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죄인이 어찌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나라를 구하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신포서의 이러한 대답에 진애공(秦哀公)은 또 한 번 감동했다.

그는 신포서의 손을 잡은 채 노래를 한 곡 부르기 시작했다.

어찌 옷이 없다 하리오
그대와 함께 포(袍)를 입으리라.
군왕이 군사를 일으키니
나 또한 짧은 창 긴창을 세우고
그대와 함께 원수를 갚으리라.

어찌 옷이 없다 하리오
그대와 함께 속옷을 입으리라.
군왕이 군사를 일으키니
나 또한 긴창 가지창을 세우고
그대와 함께 원수를 갚으리라.

진(秦)나라 노래는 대체로 굳세고 힘차다.

전투적인 것을 즐겼다. 이 노래 또한 군사들의 사기를 돋우는 군가 풍이다. 제목은 '무의(無依)'라고 하며, <시경(詩經)>의 <진풍(秦風)> 편에 수록되어 있다.

진애공(秦哀公)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신포서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신포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칠일칠야 동안의 피눈물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진애공의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깊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 후 함께 내궁으로 들어가 옷을 입고 비로소 음식을 입에 대었다.

다음날, 진애공(秦哀公)은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초나라를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것임을 선포했다. 공자 포(蒲)와 공자 호(虎)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병차 5백 승을 내주었다.

신포서(申包胥)는 신바람이 났다. 두 대장을 찾아가 따로이 상세히 설명했다.

"지금 우리 왕께서는 수(隨)나라에 계십니다. 내가 먼저 수나라로 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릴 터이니, 두 장군께서는 상곡 땅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진군하십시오."

"그러면 닳새 후에 양양 땅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 사이 저는 수(隨)나라에 집결해 있는 초군을 모아 양양으로 가겠습니다. 양군이 협력하여 오군을 치면 어찌 승리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수레를 몰아 수나라를 향해 달려갔다.

마침내 신포서(申包胥)는 수나라에 당도하여 초소왕을 알현했다.

신포서에게서 그간의 얘기를 들은 초소왕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없이 컸다.

"이제야 우리가 사직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 무렵 초나라 장수 원연과 송목 등은 패잔병을 수습하여 2만에 가까운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신포서의 지시에 따라 곧장 양양으로 향했다. 수(隨)나라 군사도 이에 합세했다.

진(秦)나라 구원군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양양 땅에 도착했다.

세 나라 장수들은 서로 반가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군사들을 정돈하여 양양을 떠나 번수(樊水)를 바라보고 남하했다.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6)

초·진 연합군 또한 영성 탈환을 위한 계책을 의논하느라 한창이었다.

공자 신(申)이 진나라 장수들에게 말했다.

"오군(吳軍)은 지금 영성을 본거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매우 견고할 것이요. 여기에 당(唐)과 채(蔡)나라 군사들이 합세하면 영성을 탈환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고립되고 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나라부터 쳐서 없애버립시다. 당(唐)나라만 격파하면 채(蔡)나라는 겁이 나 감히 군사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놓고 오군을 상대할 수 있소."

전날 당나라와 채나라가 오나라를 도운 데 대한 보복 조치이기도 했다.

진군 장수 공자 포(蒲)가 무릎을 쳤다.

"기발한 생각이외다."

이렇게 해서 초·진 연합군은 영성으로 향하다 말고 당나라로 군사를 돌려 당성(唐城)을 공격했다.

졸지에 기습을 받은 당성공(唐成公)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사로잡혀 목이 잘리었다. 이로써 당나라는 멸망했다. 오군이 영성을 점령한 이듬해인 BC 505년(초소왕 11년) 여름의 일이었다.

아니나다를까.

당성공의 죽음 소식을 들은 채소공(蔡昭公)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합려로부터 원군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감히 군대를 보내지 못했다.

이에 초·진 연합군은 마음놓고 영성을 향해 내려갔다.

영성 수비를 책임진 오왕 합려의 동생 부개(夫概)는 용맹스럽기도 하였지만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그는 자신이 영성 함락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번 직(稷) 땅 싸움에서의 패배로 인해 그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손무(孫武)가 자신에게 영성 수비를 맡겼을 때 그는 속으로 불만이 많았다.

'선봉 대장인 나에게 가장 후방인 영성 안에 틀어박혀 있으라니!'

그러나 패장(敗將)으로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릴 수가 없었다.

합려와 여러 장수들이 각기 맡은 성으로 떠나가고 나자 부개(夫概)는 더욱 불쾌하고 우울했다. 당장이라도 군사를 몰고 나가 초·진 연합군과 다시 한 번 붙어보고 싶었다.

실제로 그는 군사들을 소집했다.

"나가 싸우리라!"

조카이자 합려의 아들인 공자 산(山)이 만류했다.

"숙부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려 하십니까?"

"조카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단번에 초와 진나라 군사들을 격파하고 돌아올 것이니."

부개(夫概)는 자신 소속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영성 문을 나섰다. 그런데 성문을 지나면서 문득 그의 머릿속으로 엉뚱한 생각이 스쳐갔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왕이 죽으면 동생이 왕위를 계승해왔다. 그런데 지금 왕인 형님은 자신의 아들인 파(波)를 세자로 세웠다. 이는 내게 왕위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에 우리 나라 군사가 모두 초(楚)나라를 치러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성은 텅 비었을 것이다.'

'내가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왕위에 오른다면, 다음날 왕위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그의 망상은 한수 강변에 이르러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강가에서 서서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던 부개(夫概)는 마침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수를 건너 본국으로 돌아간다. 나를 따르는 자는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리라!"

그들은 신속히 달렸다.

마침내 오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섰다.

부개(夫概)는 부하들을 시켜 거짓말을 퍼뜨렸다.

- 합려는 진(秦)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제 내가 형님 대신 이 나라 왕위에 오르겠다.

그리고 나서 부개는 스스로 오왕이라 칭했다. 아들 부장(扶臧)을 불러 후미를 맡겼다.

"너는 회수 강변에 머물며 합려가 돌아오는 길을 막아라."

오나라 도성 주변은 어수선했다.

유언비어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민심이 급격히 불안해졌다.

오나라에 남아 도성을 지키던 세자 파(波)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정확한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조사했은 좀처럼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할 때 부개(夫概)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성 밑에 당도했다.

"조카는 속히 성문을 열어라. 왕께서는 이미 전사하셨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에게 왕위를 물려 주셨다."

세자 파를 보좌하던 대부 피이(被離)가 황급히 말했다.

"부개 공자는 반역할 상입니다.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좀더 사태를 알아본 후 그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자 파(波)는 성 위로 올라가 아래를 굽어보며 소리쳤다.

"왕께서 전사하셨다면, 손무나 오자서 등 나머지 장수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나는 이미 숙부의 불순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으니, 숙부는 어서 영성으로 돌아가 왕께 죄를 청하십시오."

부개(夫概)는 화가 치밀어올랐다.

부하들에게 성을 공격하라 명했다. 그러나 오성은 오자서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쌓은 성이다.

5천 명의 군사로는 쉽게 깨뜨릴 수 없었다. 거기에 성벽 위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져 내렸다.

부개는 하는 수 없이 성 50리 밖으로 물러나 대채를 내렸다.

그 날 밤 그는 심복 부하를 뽑아 월(越)나라로 보냈다.

월왕 윤상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사자는 삼강(三江)을 건너 월나라로 가서 부개의 말을 전했다.

-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오성을 함락시키는 날엔 우리나라 다섯 성을 귀국에게 바치겠습니다.

부개(夫概)가 제시한 조건에 구미가 당긴 월왕 윤상(允常)은 지체하지 않고 군사동원령을 내렸다.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7)

그 해 7월.

기남성에 진을 치고 있는 오왕 합려에게 연이어 급보가 날아들고 있었다.

- 당(唐)나라가 초군의 기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 채(蔡)나라가 초나라의 기세에 눌려 원군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오자서(伍子胥)도 그 소식을 듣고 기남성으로 달려왔다.

외부로부터의 원군이 차단당했다는 것은 곧 영성을 중심으로 한 기남성, 맥성 등의 고립을 뜻하는 것이다. 예삿일이 아니었다.

손무와 오자서가 합려와 마주앉아 대책을 의논하는 중에 또 하나의 심상치 않은 보고가 들어왔다.

"무엇 때문인지 공자 부개(夫概)가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吳)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보고를 보내온 것은 부개와 함께 영성 수비를 책임진 공자 산(山)이었다.

합려(闔閭)가 부개의 귀국의 의미를 알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오자서가 대뜸 말했다.

"부개 공자가 돌아간 것은 필시 반역하려는 뜻에서일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합려로서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었다.

합려(闔閭)는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편으로는 분노의 기색이 피어올랐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소?"

"부개(夫概) 공자는 한갓 필부의 용기밖에 없습니다. 별로 염려할 바 아닙니다. 다만, 이 기회에 월(越)나라가 군사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왕께서는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내란을 진압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합려(闔閭)는 긴가민가 하면서 오자서의 말에 따랐다.

손무와 오자서가 영성에 남아 초. 진 연합군을 상대하기로 했다.

합려(闔閭)는 백비만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갔다. 그들이 하류에 이르러 한수를 건넌 때였다. 합려는 세자 파(波)가 보낸 사자와 만났다. 사자는 서둘러 오성 소식을 전했다.

"부개(夫概) 공자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라 자칭하고 월(越)나라와 내통했습니다. 지금 월나라 군사들이 도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합려(闔閭)는 경악과 함께 크게 분노했다.

"오자서의 말이 맞았구나. 설마했는데, 부개 이 놈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때부터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회수 이남의 예장 부근에 진을 치고 있던 부개의 아들 부장(扶臧)이 합려의 귀국을 방해하기 위해 군사를 몰고 내려왔다.

합려(闔閭)는 그와 싸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군사들을 풀어 예장 일대에 수백 장의 방문을 붙이게 했다.

방문(榜文)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오왕 합려다.

부개를 따라 먼저 돌아온 장수나 군사들은 이 글을 보는대로 과인에게로 달려오라. 즉시 오는 자에게는 예전의 지위를 보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늦게 오는 자는 추호의 용서도 없이 참하리라!

예장 일대에 포진하고 있던 부개의 군사들은 방문(榜文)을 보자 그 즉시로 창을 메고 합려에게로 투항했다. 반 이상 군사를 잃은 부개의 아들 부장(扶臧)은 싸울 마음을 잃고 몰래 군중을 빠져나와 곡양(谷陽) 땅으로 가 숨었다.

이로써 합려(闔閭)는 손쉽게 오강을 따라 오성 근처까지 진군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부개(夫概)는 오성 주변의 백성들을 징집하여 자기 군대에 편입시켰다. 월(越)나라 군사가 오는대로 합세하여 오성을 들이칠 작정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합려(闔閭)가 나타났다.

징집된 백성들은 합려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자 앞다투어 군중에서 달아났다. 남은 것은 본래의 자기 군사뿐이었다.

부개(夫概)는 어쩔 수 없이 그 군사만으로 귀환하는 합려와 맞서 싸웠다.

합려(闔閭)가 부개를 향해 큰소리로 꾸짖었다.

"내가 너를 수족처럼 아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반역했느냐?"

"너 또한 요왕(僚王)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 않았느냐? 나는 네 방법을 따랐을 뿐이다."

합려(闔閭)는 격노했다.

"백비는 나를 위해 저 역적놈을 사로잡아라!"

백비가 달려나가 부개의 군사를 들이쳤다. 부개(夫概)가 백비를 상대하는 동안 합려는 대군을 이끌고 측면 공격을 시도했다.

양군은 한데 어우러져 싸웠으나 숫자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한나절도 채 지나기 전에 부개(夫概)는 대패하여 강변으로 달아났다.

마침 부개의 아들 부장(扶臧)이 강변 근처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오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예장을 지나 송(宋)나라로 망명했다.

반란군을 진압한 합려(闔閭)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오성으로 들어갔다.

세자 파(波)가 성문을 열고 나와 부왕 합려를 맞이해들었다. 그 기쁨이 채 사라지기 전에 세작이 달려와 보고했다.

- 월(越)나라 군사들이 우리 영토로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합려(闔閭)는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여기고 급히 사람을 보내 손무(孫武)와 오자서(伍子胥)에게 귀환령을 내렸다.

- 급히 귀국하라!

합려의 소환장을 받은 손무와 오자서는 은밀히 철군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회군을 발표하지 않았다. 잘못하다간 초.진 연합군으로부터 퇴로를 차단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손무(孫武)가 말했다.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아깝군요."

오자서가 막 대답하려고 할 때 수하 장수 하나가 들어와 고했다.

"초(楚)나라에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오자서가 서신을 받아 겉봉을 보니 바로 신포서(申包胥)가 보낸 글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자네는 영성을 점령했으나, 아직 초나라를 없애지는 못했네. 이는 하늘이 초(楚)나라를 돕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네. 자네는 망명할 때 내게 이런 말을 했었지.

- 내 반드시 초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리라.

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 나는 반드시 초(楚)나라를 지켜내겠노라.

지금까지 자네와 나는 각기 소신대로 행동해왔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았네.

오자서여, 초나라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

나 또한 더이상 진(秦)나라 힘을 빌리지 않으리라.

오자서(伍子胥)는 손무에게 신포서의 서신을 보이며 말했다.

"이번에 우리는 초나라 영성을 점령하여 종묘를 태우고 사직을 쓸어 버렸소. 비록 진(秦)나라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별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소."

"옛 병서의 말에 '징조가 보이면 나아가고, 가망이 없으면 물러서라'고 하였소. 지금 초(楚)나라는 우리 형편을 모르는 모양이오. 신포서의 말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속히 오(吳)나라로 돌아갑시다."

손무(孫武)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물러간다면 이는 이기고도 진 것이 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공자 승(勝)을 위해 힘쓰지 않소?"

오자서는 손무의 말뜻을 금방 알아들었다.

"그렇군요. 내가 공자 승을 잊고 있었구려."

즉시 붓을 들어 신포서에게 보내는 답신을 썼다.

내용은 이러하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난날 초평왕(楚平王)은 죄 없는 세자 건(建)을 추방하고 충신들을 수 없이 죽였네. 나는 그 당시의 분을 참을 수 없어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이네.

옛날 제환공은 형(邢)나라를 존속시키고 망한 위나라를 일으켜준 적이 있네. 또 진목공(秦穆公)은 세 번씩이나 진(晉)나라 임금을 세워주었네.

하지만 그들은 영웅답게 조금도 영토를 탐하지 않았네. 나 오자서 또한 비록 재주는 없지만, 의기는 쇠하지 않았네.

죽은 세자 건(建)의 아들 공자 승(勝)은 지금 오나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네. 초나라는 공자 승을 소환하여 죽은 세자 건의 제사라도 받들게 해줄 아량은 없는가.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한다면 나 또한 속히 물러가겠네.

신포서(申包胥)는 오자서의 편지를 읽고 공자 신과 공자 승(勝)에 관한 일을 의논했다.

공자 신(申)은 대범한 사람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세자 건의 아들을 데려오는 건 평소 나의 뜻이었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오."

곁에 있던 심제량(沈諸梁)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끼여들었다.

"세자 건(建)은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아들 공자 승(勝)은 우리 초나라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8)

- 본국으로 돌아간다!

오자서와 손무는 회군길에 올랐다.

영성을 떠나기 전 오(吳)나라 군사들은 초나라 왕궁에 있는 보화와 비단등을 몽땅 내어 수레에 싣었다. 아울러 국경지대에 있는 초(楚)나라 백성 1만여 호를 오나라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오(吳)나라는 땅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부족했다. 늘 농사 짓는 데 애를 먹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대규모 강제 이주는 인구를 늘려야 하는 오나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편 중의 하나였다.

오자서와 손무는 각기 두갈래 길로 나누어 귀환했다. 손무(孫武)는 수로를 따라 오성으로 향했고, 오자서(伍子胥)는 예장 땅을 경유하는 육로를 선택했다.

오자서(伍子胥)가 선택한 육로는 10여 년 전 그가 오(吳)나라로 망명하던 때의 바로 그 길이었다. 그때는 초군에게 쫓기느라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셀 만큼 초조와 불안에 시달렸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정복자로서의 여유와 감상이 온몸에 배어 있었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볼 때마다 오자서(伍子胥)는 망명 당시의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동고공(東果公).....!'

자신을 도와준 첫 은인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오자서가 있었을까.

오자서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역양산(歷陽山)을 향하고 있었다.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 싶다.'

그러나 동고공이 살던 역양산 골짜기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동고공(東果公)이 살던 모옥은 불타버렸는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고, 사람의 그림자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그는 혹시나 하여 사람을 용동산(龍洞山)으로 보내어 황보눌(皇甫訥)의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용동산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 고했다.

"황보눌(皇甫訥)의 종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자서는 탄식했다.

"고고한 분들이로다!"

오자서(伍子胥)는 동고공이 살던 집터에 두 번 절을 올리고 역양산을 내려왔다.

이번에는 소관(昭關)으로 향했다.

지난날과 달리 소관에는 파수 보는 초(楚)나라 군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가슴 조이던 일을 생각하니 새삼스레 분노가 솟았다. 오자서(伍子胥)는 군사들을 시켜 소관을 불태워버렸다.

다시 울양(潁陽) 땅 뇌수가로 갔다. 세월이 흘렀건만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오자서(伍子胥)는 뇌수 강변에 서서 굽이치는 물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가 지난날 배가 고파 이곳에서 빨래하는 여자에게 밥을 구걸한 적이 있다. 그때 그 여자는 내게 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강물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때 내가 바위에다 글을 지어 써넣은 것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구나."

오자서(伍子胥)는 기억을 되살려 바위를 찾아 덮어놓았던 흙을 치웠다.

바위에는 지난날에 쓴 글자가 완전히 남아 있었다. 감개에 젖은 오자서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갚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의 집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천금을 뇌수(瀨水) 강물에 던져넣으며 외쳤다.

"빨래하던 여인이여, 만일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대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바라오."

오자서(伍子胥)가 그 곳을 떠나 한 마장쯤 갔을 때였다.

길가에 한 노파가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오(吳)나라 군사들을 보고 대뜸 통곡하기 시작했다. 군졸

하나가 노파에게 다가가 우는 까닭을 물었다.

"노파는 어찌하여 우리를 보고 우는 게요?"

노파가 눈물을 씻으며 곡절을 얘기했다.

"나는 팔자가 기박하여 딸과 단둘이서 살았었소. 내 딸은 서른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내 딸이 뇌수(瀨水)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도망자인 듯한 한 나그네에게 밥을 대접했다고요."

"딸은 이 사실이 알려질까 염려하여 결국 뇌수(瀨水)에 몸을 던져 죽었지요. 그 후에 들으니 그 나그네가 초나라의 망명객인 오자서(伍子胥)장군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이번에 오자서 장군이 초(楚)나라를 크게 무찌르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내 딸은 이 기쁜 소식을 알기나 할려는지....그대들을 보니 딸이 생각나서 눈물이 절로 나는구려."

군졸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들의 대장이 바로 오자서(伍子胥) 장군입니다. 이번에 따님에게 보답하려고 이 곳을 찾았으나 집을 알지 못하여 결국 천금을 뇌수(瀨水)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노파는 어서 가서 그 천금을 건지시오."

그 얘기를 들은 노파는 황급히 뇌수가로 가서 오자서가 던져 넣은 천금을 건져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 뇌수가를 '투금뢰(投金瀨)'라고 불렀다.

손무(孫武)는 장강의 빠른 물살을 타고 10여 일 만에 오성에 당도했다.

그때 월(越)나라 군사들은 막 오성 교외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손무는 합려에게 귀국 보고를 올리자마자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월군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월왕 윤상(允常)은 이미 손무에게 한 번 크게 패한 적이 있었다.

손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겁을 먹었다. 그는 손무가 영성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군에 명을 내렸다.

- 오(吳)나라 치는 일은 뒤로 미루겠다. 모든 군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월군이 오나라 땅에서 완전히 철수했을 때 오자서도 오성으로 돌아왔다.

지난 1년 반 사이 오왕 합려는 꿈같은 세월을 보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초(楚)나라 수도 영성을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중원 전역에 떨치지 않았는가.

이 모든 공이 병법의 귀재인 군사(軍師) 손무와 당대 최고의 풍운아 오자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 합려는 손무를 으뜸 공로자로 삼았다. 그에게 많은 상과 높은 벼슬을 내릴 작정으로 손무를 불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손무(孫武)가 사람을 보내 대신 아뢰었다.

- 신은 이제 그만 은퇴할까 합니다. 상과 벼슬은 필요 없습니다.

합려는 놀랐다. 내관을 보내 만류했으나 손무는 여전히 사양했다.

다급해진 합려는 오자서에게 명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무를 붙잡으라고 분부했다. 오자서(伍子胥) 또한 손무의 은퇴 소식에 놀라 황급히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오자서(伍子胥)가 손무의 손을 잡고 물었다.

"내 그대와 함께 큰 뜻을 이루려 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려 함이오?"

손무(孫武)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는 천도(天道)를 아시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요. 내가 보기에 지금 오왕은 사방에 걱정거리가 없어졌소. 강성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쇠락해집니다. 한 개인의 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이루고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큰 불행이 닥칩니다. 나는 평생 병법을 연구해온 사람으로, 병법의 극의(極意)가 무엇인줄 아시오? 바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生)도 생각해보면 싸움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다만 지금 내가 물러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대 또한 나와 함께 물러남이 어떠한지요?"

오히려 오자서에게 함께 은퇴하자고 권하는 것이었다.

오자서(伍子胥)는 3일 낮 3일 밤을 만류했으나 끝내 손무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손무(孫武)는 오자서에게 작별을 고하고 표연히 오성을 떠났다.

합려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은퇴를 승낙하고 황금과 비단을 가득 실은 수레를 뒤따라보냈다.]

그러나 손무는 길을 가는 도중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 황금과 비단을 모두 나눠주었다.

그 후 손무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서(史書) 어디에도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 오늘날 병법의 대가라고 불리는 손무(孫武)는 이렇듯 홀연 나타났다가 홀연 사라져버렸다.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다만 그가 남긴 것은 오늘날까지도 병가의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손자병법> 13편과 '손무(孫武)'라는 이름 두 자다.

과연 그는 병법의 대가답게 나가고 물러남 또한 절묘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 지망지존(知亡知存).

이것이 손무(孫武)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오의(奧義)가 아니었을까.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9)

손무가 표표히 사라지고 난 뒤 오왕 합려(闔閭)는 오자서를 재상으로 삼았다. 그는 옛날 제환공이 관중을 '중보(仲父)'라 불러 신하를 특별히 존경의 예로 대한 것처럼, 오자서를 '자서(子胥)'라고 불러 대우했다.

합려(闔閭)는 백비에게도 많은 상과 높은 벼슬을 내렸다.

그를 태재(太宰)로 삼아 오자서와 더불어 국정을 보살피게 했다.

이어 오성 서쪽 성문을 '파초문(破楚門)'이라 고쳤다.

서쪽 문으로 나가 초(楚)나라를 깨뜨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 남쪽 경계에는 돌을 쌓아 요새 하나를 만들었다. 월(越)나라 군사의 침공을 막기 위한 요새였다. 돌로 쌓은 관문이라 하여 요새 이름을 석문관(石門關)이라 명명했다.

오나라의 월나라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자 월(越)나라에서도 이에 질세라 오나라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했다. 월왕 윤상(允常)은 절강 어귀에다 큰 성을 쌓았다. 그리고는 성을 고릉(固陵)이라 부르게 했다. 견고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오나라와 월나라는 더욱 사이가 나빠졌다.

BC 505년 오왕 합려 10년 무렵의 일이었다.

초군 대장 공자 신(申)과 결(結)은 오군이 빠져나가고 난 빈 영성으로 돌아왔다. 영성 안팎의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왕궁과 집들은 불타버리고, 창고는 약탈당해 비단 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 아!"

공자 신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했다.

동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파헤쳐진 초평왕(楚平王)의 무덤이 을씨년스러움을 더해주었다. 공자 신(申)은 눈물을 뿌리며 조각조각 흩어진 초평왕의 뼈를 거두어 다시 매장했다. 궁으로 돌아와 불탄 종묘를 새로 짓고 사직단도 다시 쌓았다.

왕궁과 성안 거리를 어느 정도 복구하고 낮을 때 실패(申包胥)는 수나라에 머물러 있는 초소왕을 모시러 갔다.

초소왕(楚昭王)은 수나라 임금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영성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배는 운수를 따라 빠르게 내려갔다. 운(郢) 땅을 지나 운수 하류에 이르렀다. 그 곳 사람들은 운수 하류를 청발수(淸發水)라고 부른다.

장강(長江)과 만나는 지역이다.

초소왕을 태운 배는 장강으로 들어서자마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때부터 배는 느릿하게 움직였다. 초소왕(楚昭王)은 배 난간에 기대어 사방 경치를 둘러보았다.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이 한바탕 사나운 꿈 같았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이었다.

피난 중에 겪었던 온갖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떠올랐다 사라져갔다.

'다시 이 강을 거슬러올라갈 줄이야.'

감개가 새로웠다.

배가 장강과 한수가 만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물 위로 이상한 물건이 떠내려오는 게 보였다. 크기는 말(斗)만했고, 빛깔은 선홍색이었다.

"저것이 무엇일까?"

초소왕(楚昭王)은 노 젓는 자를 시켜 그 이상한 물건을 건져오게 했다. 여전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물건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초소왕은 칼을 뽑아 그 물건을 둘로 쪼갰다. 속은 오이와 비슷했다. 먹어보니 매우 맛이 좋았다. 초소왕(楚昭王)은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신하들과 함께 먹었다.

"이 과일 이름을 알려면 아마도 꽤나 박식한 학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구나."

한수와 만나는 지점을 지나 운중(雲中) 땅으로 들어섰다. 초소왕(楚昭王)은 우중 언덕에 배를 대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곳이 지난날 과인이 도적을 만났던 곳이로구나. 내가 어찌 이 곳을 잊을 수 있으리오. 대부 투신(鬪辛)은 이 곳에다 조그만 요새를 쌓아라. 그러면 길 가는 나그네들을 도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투신(鬪辛)은 초소왕의 명령에 따라 후일 운중과 몽(夢) 땅 사이에 요새 하나를 쌓았다. 지금도 운몽현에 가면 초왕성(楚王成)이란 곳이 있다. 그 곳이 바로 당시 요새를 쌓았던 터라고 한다.

마침내 초소왕(楚昭王)은 영성으로 돌아왔다.

길가에 무수히 굴러다니는 해골들이 다시 한 번 그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왕궁으로 들어 먼저 생모인 맹영(孟嬴)에게로 갔다. 모자는 서로 얼싸안고 대성통곡했다.

초소왕(楚昭王)이 흐느끼며 말했다.

"소자가 불민하여 이런 큰 변을 당했습니다. 언제 이 기막힌 원한을 설치(楔齒)할 수 있을런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맹영(孟嬴)이 그런 초소왕을 따듯이 위로했다.

"무엇보다도 왕께서 무사히 환궁하셨으니 다행입니다. 먼저 상벌을 밝히고 백성들을 위로하여 안정시키십시오. 그런 후에 힘을 길러 지난날의 강성함을 회복하십시오."

다음날부터 초소왕(楚昭王)은 심기일전하여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새로 지은 종묘 사직에 제사를 지내고 초평왕의 능묘에 참배했다. 이어 문무백관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겪은 불행은 다 과인의 죄요, 다시 나라를 찾게 된 것은 모두 경(卿)들의 공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상하가 합심하여 우리 초나라를 부흥시킵시다."

초소왕(楚昭王)은 잔치를 베풀어 진(秦)나라 장수와 군사들을 위로하여 돌려보냈다. 아울러 논공행상을 실시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이복형인 공자 신(申)을 영윤으로 삼고, 공자 결(結)을 좌윤으로 삼았다. 그리고 영성 수복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신포서에게 우윤의 벼슬을 내렸다.

그런데 신포서(申包胥)는 초소왕의 상과 벼슬을 사양했다.

"신이 진(秦)나라 군사를 청해 오군을 무찌른 것은 초(楚)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을 뿐, 결코 제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께 나라를 돌려드렸으니, 신의 소원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어찌 더 이상의 이익을 바라겠습니까?"

그 날 밤이었다.

신포서(申包胥)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몰래 영성을 떠났다. 아내가 신포서에게 물었다.

"당신이 애를 써서 초(楚)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왕이 당신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듯 도망치시는 것입니까?"

신포서(申包胥)가 대답했다.

"지난날 오자서(伍子胥)는 내게 초나라를 쳐서 부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소. 그러나 나는 친구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오자서를 도망치게 내버려두었소. 즉 나는 오자서가 초(楚)나라를 치도록 방조한 셈이요. 이런 죄가 있는데, 나라를 구한 공이 있다 하여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수치요."

신포서(申包胥)는 처자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제35장 신포서(申包胥)의 피눈물 (10)

신포서(申包胥)가 처자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초소왕(楚昭王)은 백방으로 사람을 놓아 신포서의 행방을 찾았으나 끝내 그를 찾지 못했다.

그 후에도 신포서(申包胥)를 보았다는 사람은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초소왕(楚昭王)은 신포

서가 살던 영성 집에도 정문(旌門)을 세우고 이를 '충신지문(忠臣之門)'이라고 했다.

초소왕(楚昭王)은 신하들에게 다시 말했다.

"내가 운중 땅에서 도적을 만났을 때 왕손 유우(由尤)는 나를 대신하여 도적의 창에 찔렸다. 내 어찌 그 마음을 잊을 수 있으랴."

그러고는 신포서가 사양한 우윤직을 왕손 유우에게 내렸다.

그 밖에 심제량, 종건, 송목, 투신, 투소, 원연 등의 장수들에게도 각기 벼슬을 올리고 땅을 하사했다.

이때의 일과 관련하여 <춘추좌씨전>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온다.

초소왕(楚昭王)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으나 오직 한 사람에게만은 참수형을 내리려 했다.

다음 아닌 남윤 미(麴)였다.

- 내가 강을 건너려는데 남윤 미는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배를 태어주기는커녕 나를 욕하고 그냥 가버렸다. 어찌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둘 수 있으리오.

남윤 미(麴)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공자 신(申)은 황급히 초소왕에게로 가 말했다.

- 지난날 영윤이었던 낭와는 늘 지난 일의 원한만 생각했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낭와와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 하십니까?

초소왕(楚昭王)은 무릎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 옳은 말이오. 나는 나의 지난날의 과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소.

그러고는 남윤 미(麴)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대로 남윤 벼슬에 있게 했다.

초소왕의 도량을 말해주는 일화다.

또 이런 일화도 기록하고 있다.

초소왕(楚昭王)은 포상의 대상자에 투회(鬪懷)도 포함시켰다. 투회는 투신의 동생으로, 초소왕이 운 땅에 피란갔을 때 왕을 죽이려고 칼을 간 바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영윤인 공자 신(申)이 의아해서 물었다.

- 투회(鬪懷)는 지난날 왕을 시해하려던 자입니다. 벌을 내려야 하거늘 오히려 상을 내리려 하시니 어인 까닭이십니까?

초소왕(楚昭王)이 웃으며 대답했다.

- 그가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소. 그러므로 그는 효자요, 효자가 어찌 충신이 될 수 없겠소.

초소왕은 기어코 투회(鬪懷)를 불러 대부로 삼았다. 이에 모든 신하는 초소왕의 도량에 감복하여 그 덕을 높이 칭송했다.

이후 초(楚)나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왕과 신하들이 조금도 허튼 짓을 하지 않고 재건에 힘을 쏟았다. 초소왕(楚昭王)은 오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월나라와 더욱 친선을 도모했다.

월왕 윤상의 딸을 새 부인으로 맞아들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인 계미를 월나라에 시집보내려 했다.

그러자 계미가 초소왕에게 말했다.

"여자는 외간 남자와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날 운 땅으로 파란갔을 때 대부 종건(鍾建)의 등에 업혀 도적의 화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몸은 이미 종건의 것입니다. 어찌 다

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초소왕(楚昭王)은 계미의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녀를 종건에게 시집보냈다. 초소왕의 매부가 된 종건(鍾建)은 음악에 밝았으므로 사악(司樂)대부라는 관직에 올랐다.

초소왕(楚昭王)은 국력 회복에 온 힘을 쏟았으나 이미 오군의 발길에 짓밟힌 영성에 마음을 잃었다. 또 영성 내부를 살살이 알고 있는 오군(吳軍)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도 염려되었다.

- 도성을 옮기는 것이 어떠한가?

신하들은 초소왕의 의견에 찬성했다.

영성을 수복한 이듬해인 BC 504년(초소왕 12년)에 초나라는 수도를 약(郢)이라는 땅으로 옮겼다. 약은 지금의 호북성 자충현으로, 양양 땅 정남쪽 일대다.

한때는 독립국이었으나 초(楚)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초소왕(楚昭王)은 새 도읍인 약을 신영(新郢)이라 부르게 했다.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언영(鄢郢)이라고도 부른다. 독립국이었을 때 나라 이름이 언(鄢)이었기 때문이었다.

신영으로 도읍을 옮긴 초소왕(楚昭王)은 더욱 심기일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일 나라일을 살폈다.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감했다.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를 조련했다. 모든 관문을 수리하고 변방을 굳게 지키게 했다.

그 무렵, 오나라에 있던 공자 승(勝)이 초나라로 돌아왔다.

초소왕은 약속대로 공자 승(勝)을 백공(白公)에 봉하고 허(許) 땅에다 백공성을 쌓아주었다. 이때부터 공자 승은 백씨(白氏)가 되어 대대로 허 땅에서 살았다.

또 한 사람이 초(楚)나라로 망명해왔다.

자신의 형인 합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오나라 공자 부개였다.

부개(夫概)는 반란에 실패하자 송(宋)나라로 달아났다가 초소왕이 지난날의 일에 감정을 품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초나라로 망명해온 것이었다.

과연 초소왕(楚昭王)은 부개를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그에게 당계(堂谿) 땅을 식읍으로 내주었다. 이때부터 부개(夫概)는 당계에 살면서 당계씨(堂谿氏)가 되었다.

초소왕(楚昭王)의 선정은 10년간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초(楚)나라는 다시 예전의 강성함을 되찾았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1)

장강과 회수, 한수 일대를 중심으로 초(楚)나라와 오(吳)나라가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는 동안, 황하를 중심으로 한 북방의 중원지대에는 한 사내가 등장하여 조용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사내의 성은 공(孔),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공구(孔丘)나 공중니(孔仲尼)라고 부르지 않았다.

한결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름하여 '공자(孔子)'였다.

- 공자.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다.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성(大聖)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요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자와 더불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공자는 영생불멸의 성인이다.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仁)'과 '예(禮)'다.

특히 예에 대해서 강조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서야하는데,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예(禮)'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창한 것이 '극기복례(克己復禮)'다.

극기란 자기 자신의 완성이요, 복례란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말함이다. 자신을 먼저 세워야 예(禮)가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요, 예가 서야 인(仁)이 행해지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공자(孔子)는 설파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자(孔子)는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사상을 꽃피우지는 못했다. 공자의 사상, 즉 유학(儒學)이 전성을 이룬 것은 한(漢)나라 때였다. 그는 사후에야 세상을 뒤흔드는 사상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자의 사상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공자(孔子)가 태어나 성장하고 활동하던 시기는 두말할 나위없이 춘추시대 후기다.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성행하고, 권모술수(權謀術數)가 판을 치던 어지러움의 시대, 이 시대에 과연 공자가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행로를 밟았는지를 잠깐 보여주고자 할 뿐이다.

공자(孔子)는 BC 551년(노양공 22년) 노나라 추읍(鄒邑)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양공 22년이라면 진(晉)나라 권력 대부 중의 한 사람인 난영이 진나라에서 축출되어 제(齊)나라로 망명한 바로 그 해다.

<사기>나 <춘추좌씨전>은 모두 이 해를 공자 출생의 해로 잡고 있으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은 1년 앞당긴 BC 552년을 공자 출생의 해로 기록하고 있다.

공자의 선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송나라 귀족이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춘추시대 초기 송나라에 공보가(孔父嘉)라는 사람이 있었다.

송상공(宋殤公) 시절, 그는 태재인 화독(華督)의 공격을 받고 멸족을 당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혈육 하나가 있었다. 충복의 품에 안겨 겨우 목숨을 구한 그 혈육의 이름은 목금보(木金父).

충복은 목금보를 끌어안고 노(魯)나라로 탈출했다.

그 뒤 목금보는 노나라에 살면서 다시 성을 공(孔)으로 바꾸었는데, 그가 바로 공자의 6대조라는 것이다.

<사기>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는 공자의 선조로 3대조인 공방숙(孔防叔)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 공방숙이다.

방숙(防叔)은 백하(伯夏)를 낳았고, 백하는 숙량홀(叔梁紇)을 낳았다.

이 숙량홀(叔梁紇)이 바로 공자의 아버지다.

숙량홀의 신분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사(士)였다. 사라고 하면 얼핏 선비를 떠올릴 수 있겠으나, 이 무렵은 아직 문무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선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士)는 훗날 선비와 무사 두 신분으로 나뉘어진다. 대부보다 한 단계 아래로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분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이다. 제나라의 명재상 안영의 아버지 안약(晏弱)도 사(士)였다. 부역을 나가는 평민보다는 위다.

숙량홀(叔梁紇)은 사(士)의 신분으로서 무예가 뛰어난 용사였다.

힘도 셸다. 그는 젊었을 적 싸움터에 나가 무너져 내리는 성문을 혼자 두 손으로 떠받칠 정도의 용맹을 과시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숙량홀(叔梁紇)은 원래 노나라 시씨(施氏) 집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시씨와의 사이에 딸만 여럿을 낳고 아들은 낳지 못했다. 그래서 첩을 두었는데, 첩의 몸에서 아들 맹피(孟皮)가 태어났다. 그러나 맹피는 백치인데다가 다리를 못쓰는 불구가 되었다.

숙량홀(叔梁紇)은 다시 여자를 얻기로 하고 안씨(顔氏) 집에 매파를 보냈다. 이때 숙량홀의 나이 60이 넘지 않았을까.

안씨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딸이 다섯이나 있었다. 안씨는 이미 노인이된 숙량홀에게 딸을 주기가 싫었다. 그렇다고 숙량홀의 청혼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딸 다섯을 불러놓고 물었다.

- 너희들 중 누가 숙량홀(叔梁紇)에게 시집갈 테냐?

위로 네 딸은 묵묵부답이었다. 가장 어린 막내딸 징재(徵在)만이 대답했다.

- 여자는 출가하기 전 아버지의 말씀을 좇을 뿐입니다. 저희들에게 물을 것 없이 아버지께서 정하십시오.

안씨(顔氏)는 그말을 듣고 막내딸 징재를 숙량홀에게 시집보냈다.

숙량홀(叔梁紇)은 징재와 혼인했으나 자식이 생기지 않아 늘 근심이었다. 이에 그들 부부는 중니산(仲尼山)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하루는 그들이 중니산으로 올라가는데 모든 풀과 잎들이 그녀를 향해 꺾꽂이 일어섰다. 또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올 때는 풀과 잎들이 다 아래로 처졌다.

'이상한 일이로군.'

그 날 밤 징재(徵在)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흑제(黑帝)에게 불려갔다.

흑제란 거울의 신(神)이다. 북방의 신이기도 하다. 그 흑제가 징재에게 말했다.

- 그대는 성스러운 아들을 둘 것이다. 장차 공상(空桑)에서 태어나리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날 밤부터 징재에게는 태기가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장재(徵在)가 비몽사몽간에 뜰을 바라보니 다섯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징재를 향해 말했다.

- 우리는 오성(五星)의 정령이다.

다섯 노인은 송아지만한 짐승 하나를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뿔이 하나였고, 온몸이 용 비늘 같은 무늬로 얼룩얼룩하였다. 짐승은 징재(徵在)를 향해 엮드리더니 옥척(玉尺)하나를 토해냈다. 옥척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수정(水精)의 아들은 쇠약한 주(周)나라를 계승하여 소왕(素王)이 되리라.

소왕이란 무늬없는 옷을 입은 왕, 즉 지위없는 왕을 말함이다.

징재(徵在)는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여 비단 끈으로 그 짐승의 뿔을 곱게 매주었다.

그 날 저녁, 징재(徵在)는 외출에서 돌아온 남편 숙량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숙량홀이 말했다.

- 그 짐승은 기린(麒麟)이었을 것이요.

해산달이 되었다.

징재(徵在)가 숙량홀에게 물었다.

- 공상(空桑)이란 곳을 아십니까?

- 남산(南山)에 빈 도랑이 있는데, 그 곳에 돌로 된 굴이 하나 있소. 그 굴 속에는 물이 없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공상이라고 부른다오.

- 저는 그 곳에 가서 해산하겠습니다.

- 어째서 그 곳에서 해산해야 한단 말이요?

- 전날 꿈속에서 흑제(黑帝)를 뵈었는데, 흑제께서 공상에서 해산하라 명했기 때문입니다.

숙량홀(叔梁紇)은 징재를 데리고 남산의 공상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폈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2)

그 날 밤 징재(徵在)에게 산기(産氣)가 왔다. 문득 하늘에서 창룡(蒼龍) 두 마리가 내려와 산 좌우를 지켰다. 또 공중에서 신녀(神女) 두 사람이 내려와 향로를 받들었다. 두 신녀는 징재를 목욕시킨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잠시 후 징재(徵在)는 아들을 낳았다.

이때 석문(石門)에서 맑은 샘물이 솟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 샘물은 따뜻했다. 갓난아기를 목욕시키고나자 샘물은 다시 말라버렸다.

숙량홀(叔梁紇)은 기뻐하며 말했다.

- 이 아이는 중니산에서 기도를 드려 난 아이니, 이름을 구(丘)라 하고 자를 중니(仲尼)라 합시다.

산동성 곡부현에서 30리쯤 남쪽으로 가면 여릉산(女陵山)이라는 산이 있다. 지금도 그 산에 오르면 공자가 탄생했다는 공상(空桑)이란 곳이 있다.

이 탄생 일화는 상당히 설화적이고 꾸민 냄새가 난다.

유교가 국교화된 이후 그 시조에 대해 미화작업을 벌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 반해 사마천(司馬遷)의 공자 출생에 관한 기록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인간적이다.

흘(紃), 안씨와 야합(野合)하여 공자를 낳았다.

이구(尼丘)산에서 기도를 하여 공자를 얻었다. 노양공(魯襄公) 22년에 태어났다. 머리 중간이 움푹 패어 있었기 때문에 구(丘)라고 이름지었다.

자(字)는 중니(仲尼), 성은 공(孔)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합(野合)'이라는 말이다. 야합이란 말 뜻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는 설이 있고, 정식으로 결혼했으나 예(禮)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說)도 있다. 또 나이 차이가 너무 큰 결혼을 일러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

그러나 역시 첫번째 설(說)이 가장 많이 통용된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고 있다.

공자(孔子)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숙량흘(叔梁紃)은 세상을 떠났는데, 공자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조차 무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무덤을 가르쳐주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였을까.

이 답이 바로 야합(野合)이라는 것이다.

떴떴한 부부 사이였다면 어찌 남편의 무덤을 쉬쉬하고 숨길 것인가.

어쨌거나 공자(孔子)는 늙은 아버지, 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에게서 양육되었다.

공자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천했다.

희한한 것은 소꿉장난을 할 때 늘 제기(祭器)를 펼쳐놓고 예(禮)를 올리는 놀이를 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제례(祭禮)란 곧 학문을 말할 수도 있다. 당시의 학문에는 반드시 예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일화를 근거로 공자의 어머니는 무당이 아니었을까 하는 설(說)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는 성년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야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고, 비로소 방산(防山)이라는 곳에 어머니와 함께 합장했다.

공자(孔子)는 키가 9척 6촌이나 되었다.

2m 가 넘는 상당한 거구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키다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학문과 높은 덕성은 젊어서부터 인근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알려짐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풍적이지는 않았다. 미리 말하면 공자의 명성이 중원 천지에 널리 알려진 것은 나이 50이 넘어서 행한 주유천하(周遊天下) 이후부터다. 그 전까지는 노(魯)나라 일부지역에서만 그의 학문과 사상과 성덕을 인정해주었을 뿐이다.

당시 청년들이 그러했듯 공자도 젊어서는 관직에 진출했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위리(委吏), 즉 창고지기였다. 그것도 나라의 창고지기가 아니라 당시 집권자 중 하나인 계씨(季氏)의 관리인으로서였다.

그는 보잘것없는 말단관리였지만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위리에 이어 승진된 직책은 승전(乘田)이라는 관직이었다. 승전이란 목장 관리인인데, 그가 목장을 관리하면서부터 우마(牛馬)가 잘 번식했다고 사서(史書)들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공자(孔子)는 자신의 학문 정진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차츰 고관대작들

사이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자(孔子)가 성장하여 활동했던 시기는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였다.

특히 공자가 속했던 노(魯)나라는 하극상까지 만연하여 춘추시대 후기의 전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자가 관직에 진출했을 당시의 노나라 군주는 노소공(魯昭公)이었다. 그런데 노소공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허수아비 군주였다.

나라의 실권을 쥔 사람은 계손씨(季孫氏), 맹손씨(孟孫氏), 숙손씨(叔孫氏)였다.

사람들은 이들을 삼환(三桓)이라 불렀다. 세 씨족 모두 노환공(魯桓公)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노환공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제양공(齊襄公)의 누이동생 문강(文姜)을 부인으로 삼은 군주다. 제양공과 문강은 오누이면서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노환공(魯桓公)은 제나라 땅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했다. 노환공(魯桓公)은 비운의 군주였지만 그 자손은 수대에 걸쳐 번영하여 노나라 국정을 장악하였다. 노(魯)나라의 모든 정치는 이 세 가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군주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중에 노소공(魯昭公)은 자신의 권한을 찾기 위해 삼환 토벌의 싸움을 일으켰다. BC 517년(노소공 25년)의 일이었다. 이때 공자의 나이 35세.

그러나 노소공은 그 싸움에서 패했다. 그는 삼환에게 쫓겨 제(齊)나라로 망명을 했다.

삼환(三桓)은 새 임금을 세우지 않았다.

그냥 공석으로 놔두었다. 그래서 노(魯)나라는 이후 7년간 군주 없는 이상한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때 공자(孔子)도 노소공이 망명해 있는 제(齊)나라로 들어갔다.

노소공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생각은 없었다.

그가 제나라로 간 것은 삼환이 전횡하고 있는 노(魯)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제(齊)나라에서 관직을 얻으려고 했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3)

제(齊)나라 귀족 중에 고장(高張)이라는 경대부가 있었다.

공자(孔子)는 고장의 가신으로 들어가 제경공(齊景公)에게 줄을 닿으려고 애썼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어 마침내 제경공을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제경공(齊景公)이 공자에게 물었다.

- 어떻게 하면 나라가 순조롭겠소?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평안합니다.

- 좋은 말이로다. 만일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을들 내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며칠 후 다시 제경공(齊景公)이 공자를 불러 물었다.

-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겠소?

- 정치의 핵심은 재물을 절약하는 데 있습니다. 검소하고 또 검소하십시오.

근검절약의 사상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제경공(齊景公)은 공자의 말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를 이계(尼谿)라는 땅에 봉하려 할 때였다.

재상 안영(晏嬰)이 나서서 반대했다.

-무릇 유학자는 말재간이 있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거만하고 제멋대로여서 신하로 두기 어렵습니다. 검소를 강조하면서도 상례(喪禮)를 중시하여 장례를 한 번 치르면 파산까지 서슴지 않으며, 도처에 유세(遊說)를 다녀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 현자(賢者)가 사라진 이래로 예약이 붕괴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공자(孔子)는 용모를 성대히 꾸미고 의례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세세한 행동규범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몇 세대를 지나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주공께서 공자를 채용하여 제(齊)나라 풍속을 바꾸려 하신다면 이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절약가라면 안영(晏嬰)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의 눈에 공자의 예의범절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위선적으로 비쳤다.

더욱이 제(齊)나라는 실리를 좇는 자유분방의 나라다.

반면 노(魯)나라 출신인 공자(孔子)는 형식과 예법에 얽매어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한마디로 제(齊)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상이라는 것이었다. 일종의 '공자 비판'이다.

제경공(齊景公)은 안영의 간언을 받아들였다.

공자를 불러 말했다.

- 나는 이제 늙었소. 그대를 등용할 수가 없소.

이에 공자는 제(齊)나라를 떠나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

공자가 학숙(學塾)을 열고 제자들을 받아들여 일종의 교단(敎團)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제(齊)나라에서 거절당하다시피 귀국한 공자였지만 그는 안영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 자신 제나라와 노나라의 풍속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는 안영(晏嬰)을 칭찬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안평중은 사람을 잘 사귀다.

오래 지나도 상대에게 경의를 잃는 일이 없다.

하지만 역시 정나라 명재상 자산(子產)을 극찬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하다. 단 한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다. 아무래도 사상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공자(孔子)가 귀국했을 때 노나라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가진 삼환의 대표자는 계손의여(季孫意如), 맹손무기(孟孫無忌), 숙손주구(叔孫州仇)였다.

그런데 이무렵 노(魯)나라에 또 하나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삼환인 계손씨, 맹손씨, 숙손씨의 가재(家宰)들이 자신의 주인들을 제치고 또 다른 권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삼환(三桓)이 군주의 실권을 빼앗았듯 가신들이 삼환의 실권을 빼앗아버린 것이었다. 명을 내려도 가재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 무렵의 삼환과 그 가신들의 관계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계손의여의 식읍은 비읍(費邑)이었으며, 그 관리자는 공산불뉴(公山不狃)였다.

맹손무기의 식읍은 성읍(成邑)으로, 그 관리자는 공렴처보(公斂處父)였다.

숙손주구의 식읍은 후읍(郕邑)으로, 그 관리자는 약묘(若貓)였다.

삼환(三桓)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 성은 높고 튼튼하기가 노(魯)나라 도성인 곡부(曲阜)에 조금도 뒤짐이 없었다. 그래서 노나라에는 네 개의 도성이 있는 듯했다. 삼환의 가신 중 가장 강성하고 횡포한 자는 계손의여의 살림을 맡아보는 공산불뉴(公山不狃)였다.

계손의여의 가신 중에 또 한 사람의 실력자가 있었다.

양호(陽虎)라는 가재였다. 양호는 <논어>에서 '양화(陽貨)'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양호(陽虎)는 공산불뉴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어깨가 수리 같았고, 이마가 매우 넓었다고 한다. 그는 장성하여 키가 9척이 넘었고, 힘도 세었으며, 피도 많았다.

그는 공산불뉴와 더불어 계손씨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했다.

그들의 권한은 점차 커져 마침내는 주인인 계손의여를 능가하게 되었다.

공자 나이 42세 때인 BC 510년에 노소공(魯昭公)이 제나라 땅에서 죽었다.

재위 32년이라고는 하지만 말년의 8년간은 군주자리에서 쫓겨난 상태로 있었다. 노소공이 죽자 노나라의 실권자 계손의여(季孫意如)는 노소공의 동생 송(宋)을 군주로 올렸다.

그가 노정공(魯定公)이다.

노정공 5년인 BC 505년, 계손의여가 죽고 그 아들 계손사가 계손씨의 당주자리에 올랐다. 이 해는 초나라가 진(秦)나라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에 빼앗겼던 수도 영성을 되찾은 해이다.

당주가 바뀌는 어지러운 틈을 타 양호(陽虎)는 자신의 권한을 더한층 강화했다. 신임당주인 계손사를 감금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계손사는 양호와 협정을 맺고 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계손사는 가신인 양호에게 지배당하는 기묘한 처지에 놓인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어쩌랴.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자는 양호인 것을.

이렇듯 노(魯)나라 국정이 일개 평민이라 할 수 있는 가재(家宰)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자 노나라 전역에서는 정도에서 벗어난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4)

이 무렵, 노나라에 교묘한 변설가가 있었다.

소정묘(少正卯)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소정묘는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 또한 청산유수였다. 그래서 삼환(三桓)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그런데 소정묘(少正卯)는 알고 보면 표리부동(表裏不同)하기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이러했다.

계손사나 맹손무기 등 삼환의 당주들을 만났을 때는,

- 경(卿)들이 군주와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공로는 실로 하늘보다 높습니다. 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돌아서서 삼환의 가신들인 양호(陽虎) 등을 만났을 때는,

- 이래서야 나라 꼴이 되겠소? 어떻게 해서든 조정의 실권을 주공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 같은 사람이 삼환(三桓)을 몰아내야 하오.

라고 부추겼다.

소정묘(少正卯)의 이간질로 인해 삼한의 당주들과 그 가신들 사이에는 더욱 미움과 의심의 골이 깊어갔다. 그러나 아무도 소정묘의 이러한 음흉함을 알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양호의 전횡이 심해지자 계손사(季孫斯)는 급기야 맹손무기를 찾아가 의논했다.

"어떻게 하면 안팎의 근심을 없애고 예전같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소?"

그 무렵 맹손무기(孟孫無忌)는 공자의 학숙에 들어가 예(禮)를 배우던 중이었다.

그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공자(孔子)는 학식이 높을 뿐 아니라 어질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공자를 등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손사(季孫斯)는 곧 공자를 불러 하루 종일 그와 대화를 나누어보았다.

과연 그의 마음과 도량은 바다와 같아서 그 밑바닥을 엿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한창 얘기를 나누는 중에 마침 자신의 영지인 비읍에서 사람이 왔다.

계손사(季孫斯)는 안으로 들어가 비읍에서 온 가신을 만나보았다. 가신이 말했다.

"이번에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땅 속에서 양 한마리가 나왔습니다. 땅 속에서 어떻게 양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이렇듯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손사(季孫斯)는 공자의 학식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다시 접견실로 나와 공자에게 물었다.

"제 영지에서 어떤 백성이 우물을 파다가 땅 속에서 개 한마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부러 양을 개로 바꿔 말한 것이었다.

그러자 공자(孔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땅 속에서 나온 것은 개가 아니라 양일 것이요."

계손사(季孫斯)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것이 양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듣건대 산에 사는 요괴는 다리가 하나인 기(夔)와 망량(魍魎)이고, 물에 사는 요괴는 용(龍)과 망상(罔象)이고, 흙 속에 사는 요괴는 분양(墳羊)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물을 파다가 땅 속에서 나온 짐승은 양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분양이란 어떤 짐승입니까?"

"분양(墳羊)은 양처럼 생겼지만 암컷도 수컷도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지요."

계손사(季孫斯)는 안으로 들어가 비읍에서 온 가신에게 물었다.

"땅 속에서 나온 양이 암컷이더냐, 수컷이더냐?"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암컷도 수컷도 아니었습니다."

계손사는 다시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누가 공자의 학문에 미칠 수 있으랴!"

그러고는 공자에게 간곡히 청했다.

"그대의 깊은 학문으로 나를 도와주소요."

하지만 공자(孔子)는 그 무렵 학숙(學塾)을 운영하고 있었다.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글을 읽으며 학문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다.

"아직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공자(孔子)는 모호한 대답을 남기고 자신의 학숙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일개 신하의 권력욕 충족을 위해 쓰고 싶지는 않았으리라.

그런데 계손사와의 이 대화로 인해 공자의 학식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일화도 있다.

멀리 남쪽 초(楚)나라에까지도 공자의 이름이 알려졌다.

어느 날, 초소왕은 사신을 보내 많은 예물을 공자에게 바치고 물었다.

- 지난날 과인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서 이상한 과일을 건졌는데, 크기는 말(斗)만하고 빛깔은 해처럼 붉었으며 쪼개어 먹어본즉 그 맛이 꿀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과일인지요?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 그것은 평실(萍實)이란 과일ियो.

- 평실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까?

- 그렇지 않소. 평(萍)이라는 것은 물에 떠다니는 풀인데, 뿌리가 없소. 그것이 어쩌다가 서로 만나 엉키고 엉키어 열매를 맺는 것이요. 그러므로 백 년이나 천 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이요.

- 초왕께서 그 평실을 얻었다는 것은 흩어진 것이 모이고 쇠잔한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징조요. 초(楚)나라를 위해서는 축하할 일이요.

사신은 초나라로 돌아가 초소왕에게 공자의 말을 전했다.

초소왕(楚昭王)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더욱 초나라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공자의 학문과 사상이 차츰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양호(陽虎)였다.

그 무렵 양호(陽虎)는 더 큰 야심을 품고 있었다.

계손씨의 가재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아예 난을 일으켜 자신이 직접 노(魯)나라 재상에 오르리라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숙손씨의 서자로 천대를 받고 있는 숙손첩(叔孫輒)이라는 인물을 포섭했다. 또 비읍의 관리인인 공산불뉴(公山不狃)에게도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세상 인심이 자신을 지지해줄지 장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모사(謀士)가 절실했다. 이 두가지 모두를 해결해줄 책임자로 양호(陽虎)는 공자를 점찍은 것이었다.

'공자만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그의 학숙에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까지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양호(陽虎)는 수시로 사람을 보내 공자에게 면회를 청했다.

하지만 계손사의 초청도 거절한 그가 아니던가.

공자(孔子)는 양호의 면회를 번번히 거절했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5)

아무리 해도 공자(孔子)를 만날 수 없자 양호(陽虎)는 한 꾀를 내었다.

돼지 한 마리를 삶아서 공자(孔子)의 집으로 보냈다.

당시 관례로는 선물을 받으면 몸소 상대의 집에 가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였다. 양호는 그때를 노려 공자를 설득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자(孔子)도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제자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양호(陽虎)가 나를 꺾려고 돼지를 보냈구나. 선물을 받은 이상 그에게 가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양호의 집 문 앞에 숨어 있다가 그가 외출하거든 내 명자(名刺)를 그 집 문 안에 집어 넣고 오라."

명자란 오늘날의 명함과 같다.

제자는 공자가 시키는 대로 양호의 집으로 달려가 그가 없을 때 대문을 두드려 명자(名刺)를 전해 주고 왔다. 이리하여 끝내 양호(陽虎)는 공자를 끌어들이지 못했고, 공자는 양호의 유혹을 물리쳤다.

공자(孔子)는 양호가 머지않아 난을 일으킬 것임을 예감했다.

자신의 제자라 할 수 있는 맹손무기(孟孫無忌)를 불러 은밀히 암시했다.

"아무래도 조만간 난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리 대책을 강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자의 이 같은 말에 맹손무기(孟孫無忌)도 대뜸 '양호의 난'을 짐작했다.

그는 곡부성 남문 밖에다 집을 짓는다는 핑계를 대고 좋은 재목을 골라 넓은 목장을 만들었다.

그런 후에 씩씩한 장정 3백 명을 뽑아 목장을 지키게 했다. 또한 그는 공렴처보(公斂處父)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시했다.

"군사들을 완전 무장시키고 대기하라. 내가 기별하거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 나를 도우라."

BC 502년(노정공 8년) 10월.

마침내 양호(陽虎)는 삼환을 제거하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실행에 옮겼다. 그의 계획이란 이런 것이었다.

'계손사를 죽이고 그 동생 계오(季寤)로 계손씨의 당주가 되게 하고, 숙손주구를 죽여 그 서자 숙손첩(叔孫輒)을 숙손씨의 당주에 오르게 하고, 맹손무기를 죽여 내가 맹손씨를 장악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계손사(季孫斯)부터 없애야 했다.

매년 10월이면 노나라 공실에서는 체제(禘祭)를 올린다.

체제란 나라의 큰 행사로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를 말한다.

노나라 재상인 계손사(季孫斯)는 체제를 준비하고 주관한다. 무척 힘들고 바쁜일인지라 체제가 끝난 후에는 연회를 베풀어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양호(陽虎)는 바로 이 위로연을 이용하기로 했다.

계손사를 찾아가 말했다.

"체제(禘祭)가 끝난 다음날 제가 주인을 위해 포포(蒲圃)에서 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꼭 참석해주시요."

포포(蒲圃)는 곡부성 동문 밖에 있는 농원으로 계손사의 소유지였다.

평소 양호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손사(季孫斯)는 별 의심 없이 양호의 초청을 승낙했다.

그런데 양호(陽虎)가 계손사를 위해 연회를 주관한다는 소문을 듣고 의심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 바로 공자로부터 주의를 들은 맹손무기였다.

'어쩐지 수상하다.'

맹손무기(孟孫無忌)는 위험을 직감하고 자신의 식읍인 성읍 관리자 공렴처보에게 편지를 내었다.

- 체제(禘祭) 다음날 정오까지 군사 일대를 거느리고 남문 밖 농장으로 달려오라. 오는 도중 수상한 사태가 벌어지면 임의로 행동해도 무방하다.

종묘 제사는 무사히 끝났다.

그 다음날이었다.

애초의 계획대로 양호(陽虎)는 계손사를 데리러 그의 집으로 갔다. 계손사(季孫斯)는 포포로 나가기 위해 수레에 올랐다.

양호(陽虎)가 먼저 출발했고, 그 뒤로 계손사의 수레가 양호의 동생 양월의 호위를 받으며 따랐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손사(季孫斯)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수레를 호위하는 자들이 사뭇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마치 싸움터에라도 나가는 듯한 비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상하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다 다를까. 모두가 양호의 친인척들 뿐이었다. 다만 수레를 모는 임초(林楚)만이 자신의 심복 부하였다.

그제야 속으로 아차, 한 계손사(季孫斯)는 어차 임초를 향해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다.

"임초야, 너는 동문으로 수레를 모는 척하다가 능히 남문 밖 맹손씨의 목장으로 달려갈 수 있겠는냐?"

임초(林楚)도 호위 병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계손사의 뜻을 알아차리고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수레가 큰 거리로 나섰다. 동문과 남문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였다.

별안간 임초(林楚)가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리며 채찍을 들어 말등을 후려했다. 놀란 말들은 크게 울부짖으며 수레를 이끌고 남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놀란 것은 뒤따라오던 호위 책임자 양월이었다. 그는 갑자기 계손사(季孫斯)의 수레가 남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외쳤다.

"멈춰라. 수레를 멈춰라!"

임초(林楚)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욱 세차게 채찍을 휘둘렀다.

그제야 계손사(季孫斯)가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양월은 미친듯이 뒤쫓아가며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계손사의 수레가 어찌나 빠르게 달아나는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계손사의 수레가 남문을 빠져나가 맹손무기의 목장 안으로 뛰어드는 데 성공했다. 계손사(季孫斯)는 맹손무기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며 숨이 턱에 차도록 외쳐댔다.

"맹손은 나를 도와주시오. 나는 지금 쫓기고 있소."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맹손무기(孟孫無忌)는 곧 목장의 장사 3백 명을 담장 밑에 매복시켰다. 조금 지나자 과연 양월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목장을 습격해왔다.

맹손무기(孟孫無忌)는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30여 보쯤에 이르렀을 때 장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활을 쏘라!"

수백 대의 화살이 양월을 향해 날아갔다.

멋모르고 선두에 서서 목장을 향해 달려오던 양월은 눈 깜짝할 사이 고슴도치가 되어 수레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부하들도 반 이상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6)

그 시각.

앞서 동문을 향해가던 양호(陽虎)는 문득 뒤따라와야 할 계손사(季孫斯)의 수레가 보이지 않음을 알았다. 양월과 그 부하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

양호(陽虎)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얼른 수레를 돌려 왔던 길을 다시 달렸다. 큰 거리까지 돌아갔으나 여전히 계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길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재상의 수레를 보지 못했는가?"

행인들이 대답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재상의 수레를 몰던 말들이 놀라 남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양호(陽虎)가 남문을 향해 달려가려는데 마침 겨우 목숨을 구한 양월의 부하들이 도망쳐왔다.

"양월 나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양호는 불같이 노했다.

"내가 삼환(三桓)을 죽여 생짜로 간을 씹어 먹으리라."

그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궁궁으로 달려가 영문 모르는 노정공(魯定公)을 끌어내었다.

"당장 궁중 군사를 소집하여 맹손씨(孟孫氏)를 공격하게 하시오."

노정공을 인질로 잡은 것은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궁을 나오는데 마침 숙손주구가 입궁하고 있었다.

양호(陽虎)는 칼을 뽑아 숙손주구의 목에 대고 말했다.

"경은 곧 경의 가병들을 이끌고 나를 도우시오."

숙손주구(叔孫州仇)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 가병을 거느리고 양호의 뒤를 따랐다.

궁중 군사와 숙손씨의 가병을 확보한 양호(陽虎)는 곧장 남문 밖으로 나가 맹손무기의 목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맹손무기(孟孫無忌)는 활을 쏘며 대항했다.

양호가 멀리서 명했다.

"목장 담장에 불을 질러라!"

담장은 판자로 만들어져 삼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맹손무기(孟孫無忌)는 하늘의 해를 쳐다보며 발을 굴렀다.

"공렴처보야! 어찌 정오가 되었는데 달려오질 않는 것이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저쪽 동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성읍 관리인인 공렴처보(公斂處父)와 그 군사들이었다.

"양호(陽虎)는 우리 주인을 해치지 마라. 여기 공렴처보가 왔노라!"

양호의 부하들과 공렴처보의 군사들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은 백중세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렴처보(公斂處父)가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 양호에게 강제로 끌려왔던 숙손주구(叔孫州仇)가 별안간 큰소리를 질러댔다.

"숙손씨의 가병들은 속히 역적 양호(陽虎)를 쳐라!"

그러고는 재빨리 인질이 되어 있던 노정공을 빼앗아 서쪽으로 달아났다.

동시에 맹손무기(孟孫無忌)가 3백 장사들을 거느리고 목장 안에서 달려나왔다. 뒤늦게 계손사의

가병들도 주인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눈깜짝할 사이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양호(陽虎)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직감했다.

"퇴각하라!"

결국 양호는 곡부성을 탈출하여 양관(陽關)으로 도망쳤다. 양관은 지금의 태안현 동남쪽 땅이다.

그는 그 곳에서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계손사(季孫斯)는 삼환(三桓)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양관을 공격했다. 그 싸움에서도 양호는 패했다. 그는 더 이상 노(魯)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자 관문 밖에 불을 지르고 제(齊)나라로 망명했다.

그는 제경공(齊景公)에게 가서 말했다.

"신이 소유하고 있던 양관(陽關) 땅을 제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군후께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노나라를 쳐주십시오."

제경공은 양관 땅이 탐이 나 양호의 청을 승낙하려 했다.

그때 제나라 6경 중의 한 사람인 포국(鮑國)이 간했다.

"양호(陽虎)는 간사한 자입니다. 가신으로서 그 주인을 치려 했고, 이제는 남의 나라 힘으로 자기 나라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용납하면 그 화(禍)는 우리 제나라에 미칠 뿐입니다. 차라리 양호를 잡아 노(魯)나라로 보내십시오."

이에 제경공(齊景公)은 양호를 잡아 서쪽 변방에 가두었다.

그러나 양호(陽虎)는 집요한 자였다.

그는 옥리를 매수하여 술을 먹인 후 탈출했다. 짐수레를 훔쳐 타고 송(宋)나라를 거쳐 진(晉)나라로 달아났다. 진나라에서 그는 진나라 6경 중 한 사람인 조양(趙鞅)의 가신이 되었다.

이로써 '양호의 난'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양호가 조양에게 몸을 의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孔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 진(晉)나라 조씨는 대대로 소란스러울 것이다. 사악한 자를 받아들여 가신으로 삼았으니, 어찌 혼란이 일지 않겠느냐는 탄식이었다.

양호(陽虎)가 제나라를 탈출하여 진(晉)나라로 도망간 다음해인 BC 500년(노정공 10년) 여름, 제(齊)나라와 노(魯)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정은 양호(陽虎)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즉 제경공(齊景公)은 양호의 제나라 탈출이 고의가 아님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고, 노(魯)나라는 노나라대로 양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양측의 뜻이 부합되어 제경공과 노정공은 협곡(夾谷)에서 회동하여 맹회를 열고 우호를 두터이 하기로 합의했다. 협곡은 축기(祝其)라고도 불리는 땅으로, 지금의 산동성 박산현 남쪽 일대다.

그런데 이 협곡 회맹과 관련하여 공자(孔子)에 관한 또 하나의 일화가 전해온다.

제36장 공자(孔子)시대 (7)

제(齊)나라와 노(魯)나라는 적대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랫동안 서로 사이가 나빴다. 협곡 회맹을 앞두고 양쪽 나라 대신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노정공(魯定公)이 출발하기 전 맹손무기가 노정공에게 간했다.

"제(齊)나라는 원래 속임수를 잘 쓰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가면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노정공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잖아?"

"공자(孔子)는 예에 밝을 뿐 아니라 용기도 넘치는 군자(君子)입니다. 주공께서는 이번에 가실 때 반드시 공자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해보다는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일종의 천거였다.

노정공(魯定公)도 공자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를 불러 사공(司空)에 임명한 후 청했다.

"함께 협곡으로 가 과인을 보좌해주시오."

공자가 승낙하며 대답했다.

"모름지기 문(文)에는 반드시 무(武)가 따라야 합니다. 주공께서는 이번 협곡행에 대비하여 좌우 사마(司馬)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노정공(魯定公)은 신구수(申句須)를 우사마로 삼고, 악기(樂頤)를 좌사마로 삼아 병차 2백 승을 거느리고 공자와 함께 협곡으로 나갔다. 아울러 대부 자무환(茲無還)에게 병차 3백 승을 주어 협곡 땅 10리 밖에 영채를 세워놓으라 명했다.

한편 제경공(齊景公)은 제경공대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협곡 땅으로 나왔다. 재상 안영(晏嬰)이 배종했다.

그런데 제경공의 근신(近臣)중에 여미(黎彌)라는 사람이 있었다. 꾀가 많고 아첨을 잘하여 양구거와 더불어 제경공의 총애를 받는 자였다.

맹회가 열리기 전날 밤이었다.

여미(黎彌)가 은밀히 제경공의 처소로 들어갔다. 제경공이 물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어 왔습니다."

"좋은 계책이라니?"

"우리 제나라와 노(魯)나라는 예부터 원수간입니다. 이번 회맹에 대비하여 노후(魯侯)가 공자를 데리고 왔습시다만, 신이 본즉 공자(孔子)는 예만 알 뿐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 맹회가 끝나면 주공께서는 노후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라 분부하십시오. 그러면 신이 내이(萊夷)의 군사 3백명을 악공으로 변장시켜 요란하게 음악을 울리겠습니다. 한창 음악을 울리다가 노후(魯侯)가 놀라는 틈을 타 노후와 공자를 잡아버리면 어찌 노(魯)나라가 우리 수중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 과인이 재상과 상의해보겠다."

여미(黎彌)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재상 안영(晏嬰)은 이런 일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반대할 것이 틀림없으니, 의논하지 마십시오. 신이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경공(齊景公)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음인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이었다.

제경공과 노정공은 단 위에 올라가 정해진 예법에 따라 두나라가 화친할 것을 맹약했다.

노나라측에서는 공자(孔子)가 증인이 되었고, 제나라측에서는 안영(晏嬰)이 증인이 되었다.

맹약이 끝나자 제경공(齊景公)이 노정공에게 말했다.

"이처럼 즐거운 날, 과인이 군후에게 음악을 선사할까 합니다."

그러고는 여미에게 악사들을 대령하라 명했다.

여미(黎彌)는 악공으로 변장한 내이의 군사 3백 명을 대령시켜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이 북치고 깃발을 휘두르고 칼과 창을 세운 채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다. 흡사 전쟁터로 나가는 듯한 기세였다.

그들은 점차 노정공(魯定公)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까이 접근했다.

노정공(魯定公)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때 갑자기 한 사내가 일어섰다. 노정공을 보필하고 있던 공자(孔子)였다. 9척이 넘는 공자(孔子)는 제경공 앞에 우뚝 섰다. 이어 소매를 들어 예를 표하며 우렁찬 음성으로 말했다.

"제·노나라가 우호를 맺는 이런 좋은 자리에 군후께선 어찌하여 오랑캐 음악을 들으십니까? 지금 곧 중지시켜 주십시오."

조금도 위축됨이 없는 행동이었다, 여차하면 제경공에게 덤벼들기라도 할 듯한 표정이었다.

제경공(齊景公)은 갑자기 거대한 체구의 사나이가 자신의 눈앞에 서자 위축됨을 느꼈다. 그때 또 한 사나이가 일어섰다. 제경공 옆에 앉아 있던 안영이었다. 6척 단구의 그는 공자 옆에 나란히 섰다. 안영(晏嬰)은 전날 밤 제경공과 여미 사이에 오간 말을 알지 못했다.

안영(晏嬰)은 제경공을 향해 말했다.

"공자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공께선 예의를 잃지 마십시오."

제경공(齊景公)은 한편으로는 공자의 험악한 기세에 겁을 먹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제경공(齊景公)은 얼른 단 아래에 서있는 여미에게 명했다.

"음악을 중지시켜라!"

여미(黎彌)는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자 화가 치밀었다.

그는 노정공과 공자를 망신시키기 위해 다시 청했다.

"이번에는 제(齊)나라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미의 속셈을 알지 못하는 제경공(齊景公)은 그 청을 승낙했다.

여미(黎彌)가 재빨리 진짜 악공들에게로 가서 속삭였다.

"너희들은 '폐구(敝筍)의 노래'를 불러라. 또한 배우들은 마음대로 재주를 발휘하라."

여미(黎彌)의 지시를 받은 악공과 광대들은 두 줄로 나누어 단 앞으로 달려나와 노래를 부르고 재주를 피웠다. 얼굴에는 얼룩덜룩한 색을 칠했고, 옷은 이상야릇했다. 그들은 펄쩍펄쩍 뛰기도 했고, 등실등실 춤추기도 했다. 두 나라 임금을 모신 자리에서 공연하기에는 낯뜨거운 짓거리였다.

'폐구의 노래'란 곧 오누이간인 제양공(齊襄公)과 문강의 음탕함을 읊은 노래다. 문강(文姜)은 노환공의 부인이었기에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노(魯)나라를 망신줄 작정이었던 것이다.

공자(孔子)는 대뜸 그들이 노정공을 욕보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경공에게 말했다.

"모름지기 필부로서 임금을 현혹시키는 자는 참수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군후께서는 저 악사의 장(長)과 광대의 장(長)을 참하십시오."

제경공(齊景公)은 공자의 말을 못 들은 척 외면했다.

이에 용기를 가진 악공들과 광대들은 깔깔깔 웃어댔다.

그러나 공자도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았다.

제경공(齊景公)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뜸 몸을 돌려 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제나라와 노나라는 이미 우호를 맺었으니 형제와 같다. 노나라 사마가 곧 제나라 사마다. 여봐라.
 신구수(申句須)와 악기(樂頤)는 어디 있느냐? 당장 악공과 광대의 우두머리 목을 베어라!"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노나라 신구수(申句須)와 악기(樂頤)는 나는 듯이 뛰어나와 각기 악공과
 광대의 우두머리를 한칼에 쳐죽였다. 그제야 나머지 악공과 광대들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꿇
 어앉았다.
 놀라기는 제경공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공자(孔子)가 그렇게 과단성 있게 행동할 줄은 전혀 짐작도 못 했다. 크게 겁을 먹고 부랴부
 랴 맹회를 폐했다.
 노(魯)나라를 욕보이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셈이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제경공(齊景公)은 여미를 불러 꾸짖었다.
 "너는 공자(孔子)가 예만 알 뿐 용기가 없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그의 일거일동을 보니 공자만큼
 용기를 지닌 사람도 드물었다. 너로 인해 과인은 공연히 노(魯)나라의 원망만 사게 되었다."
 여미(黎彌)가 할말이 없어 꿇어앉아 있는데 곁에서 재상 안영이 아뢰었다.
 "주공께서는 지금이라도 노후(魯候)에게 사죄하십시오."
 "어떻게 사죄하면 좋겠소?"
 "신이 듣기로, 소인(小人)은 자기 잘못을 사죄할 때 말로써 하지만 군자는 물건으로 사죄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노나라 땅을 세 곳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鄆)땅과 문양(汶陽)땅과 구음(龜陰)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공께서 이 세 땅을 노나라에 돌려
 주시고 사과하면, 노나라 군주와 신하들은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제경공(齊景公)은 안영의 말을 수락하고 지난날 빼앗은 바 있던 운, 문양, 구음 세 땅을 다 노(魯)
 나라에 돌려주었다.
 공자의 용기와 외교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라 할 수

제36장 공자(孔子)시대 (8)

공자는 대사구(大司寇)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기실 그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동반자는 삼환
 (三桓) 중의 하나인 계손사(季孫斯)였다.
 그 무렵, 공자의 학숙에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어 학문을 배우고 있었는데, 공자(孔子)는 그 중
 유능한 제자들을 계손사(季孫斯)에게 천거했다.
 이를테면 공자의 학숙(學塾)은 정치인을 배출해내는 사관학교나 다름없었다.
 공자(孔子)가 계손사에게 천거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자로(子路)와 자유(子有)를 꼽을 수 있다. 자로
 는 이름이 중유(仲由)로, 노나라 변(卞) 땅 사람이다.
 공자보다 나이가 아홉 살 아래다.
 자로(子路)는 성질이 거칠고 용맹을 좋아하였으며, 심지(心志)가 굳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수
 톱의 꼬리로 관을 만들어 쓰기도 했고, 수탉지의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허리에 차고 다녔다.
 그는 공자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시정 불량배였다.
 심지어는 공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를 때리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공자(孔子)가 예(禮)로써 대하며 인(仁)의 세계를 행동으로 보여주자 조금씩 바른길로 들어

섰으며, 마침내는 유복(儒服)을 입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자로(子路)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술선수범하고, 백성들의 일에 몸소 애쓰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자로(子路)는 그 대답이 성에 안 찼는지 다시 물었다.

- 그것뿐입니까? 더 보탬 것은 없습니까?

- 있다. 시종여일(始終如一)이 바로 그것이다.

아는 것을 행하되, 처음과 끝을 같게 하라.

'지행합일(知行合一)'과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 공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제자 자유의 이름은 염구(冉求)다.

염구는 공자보다 29년 연하다. 자유(子有)도 공자로부터 늘 행(行)의 중요성에 대해 강론을 들었다. 그런데 자유(子有)는 성격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던 모양이다. 성품이 거친 자로(子路)와는 대조적이었다.

공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자로와 자유에 대해 다른 식으로 강론을 펼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자유(子有)가 물었다.

- 의(義)를 들었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 바로 행해야 한다.

자로(子路)도 공자에게 같은 물음을 던졌다.

- 의를 들었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 부형(父兄)이 계시는데, 어찌 곧바로 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대답이 다르다는 것을 안 또 다른 제자 자화(子華)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 감히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물음은 같은데, 어찌하여 대답은 다른니까?

공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 자유(子有)는 머뭇거리는 성품이라 진취성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었고, 자로(子路)는 남에게 이기려고만 들기 때문에 억제시켜 주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자로(子路)나 자유(子有)는 공자의 천거를 받아 계손씨의 신하가 되어 정치 일선에 뛰어든 대표적인 제자들이었다.

노(魯)나라의 수난은 그치지 않았다.

계손사의 가재인 양호(陽虎)가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로 돌아간 지 4년 후인 BC 498년(노정공 12년).

이번에는 공산불뉴(公山不狃)가 또 난을 일으켰다.

공산불뉴 역시 계손사의 가신장(家臣長)으로 계손씨의 식읍인 비읍(費邑)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이러하다.

그해 여름, 계손사(季孫斯)는 공산불뉴가 지나치게 강성해지자 몹시 불안했다. 그래서 공자를 불러 의논했다.

"공산불뉴(公山不狃)가 양호를 본떠 또 반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오늘날 가신이 강성해진 것은 예법과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신하가 가병을 둘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성(城)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신들이 반란을 일으킬 근거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대부는 어떠합니까? 각자 성읍(城邑)을 소유하고 군사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경대부들에게 가병과 성읍이 없다면 어찌 가신들이 반란을 일으킬 꿈을 꾸겠습니까?"

그대는 비읍(費邑)을 공실에 반납하십시오. 그러면 상하가 편안하고 반란도 영구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손사(季孫斯)는 공자의 말을 옳게 여겼다. 맹손무기와 숙손주구를 불러 삼환(三桓)의 재산 반납을 의논했다.

"공자의 말씀이 맞소. 우리가 재산을 반납하여 집안과 나라가 이롭게 된다면 무엇을 주저하리오." 세 사람은 이렇게 뜻을 모은 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비읍과 성읍을 공실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소정묘(少正卯)가 알았다. 그는 앞에 얘기한 바와 같이 앞에서와 뒤에서의 말이 다른 사람이었다. 더욱이 노정공과 삼환의 신임을 받고 있는 공자(孔子)를 몹시 시기하고 있었다. 소정묘는 삼환(三桓)이 재산을 반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심복인 숙손첩(叔孫輒)을 비읍(費邑)으로 보내 공산불뉴를 부추겼다.

- 조만간 공실에서 비읍의 성을 허물 것이외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니, 그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오.

공산불뉴(公山不狃)는 자신의 근거지가 소멸될 것에 대해 불안을 느꼈다.

화가 치밀기도 했다. 그러나 선불리 군사를 일으켰다가는 양호의 꼴이 되고말 것이 뻔했다.

그는 고심 끝에 노나라 상하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공자(孔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리라 결심했다. 사람을 시켜 많은 예물을 공자에게 보내며 말을 전했다.

- 잠시 비읍(費邑)을 다녀가심이 어떠하신지요? 선생의 인의지도(仁義之道)를 배우고 싶습니다.

공산불뉴(公山不狃)가 공자를 끌어들이려 한 것은 양호와 같은 수법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양호는 잔꾀로써 공자를 끌어들이려 했으나, 공산불뉴는 정식으로 그를 초빙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자(孔子)는 공산불뉴에게로 가지 않았다.

정중히 예물과 초청장을 비읍으로 돌려보냈다.

공자가 초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공산불뉴(公山不狃)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겠다.'

그는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다.

공산불뉴는 맹손씨의 가신장인 공렴처보(公斂處父)와 숙손씨의 가신장인 약묘(若貓)에게 통보하여 함께 곡부성으로 쳐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공렴처보와 약묘는 공산불뉴의 청을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공산불뉴(公山不狃)는 단독으로 곡부성을 칠 계획을 꾸몄다.
 그러할 때 숙손주구의 식읍인 후읍(郈邑)에서 뜻하지 않은 변이 생겼다.
 숙손씨의 가재인 약묘(若貓)가 그 부하 후범이란 자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후범(侯犯)은 약묘와 달리 힘이 장사이고 포악했다. 그는 약묘를 죽이고 자신이 후읍의 장(長)이 되었다.
 이에 숙손주구(叔孫州仇)는 후범을 치기 위해 맹손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양가는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후읍으로 쳐들어갔다. 후범(侯犯)은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후읍의 군사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숙손씨와 맹손씨는 좀처럼 그들을 토벌할 수 없었다.
 비읍(費邑)에서 군사를 기르며 곡부성을 칠 기회만 노리고 있던 공산불뉴의 눈에 이것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비쳤다.
 '숙손씨와 맹손씨가 모두 후읍으로 달려갔으니 곡부성에는 계손씨(季孫氏)만이 외로이 남아 있겠구나. 내 어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랴.'
 공산불뉴(公山不狃)는 군사를 거느리고 곡부성으로 쳐들어갔다.
 심복인 숙손첩(叔孫輒)이 성문을 열고 영접해주었다.
 공산불뉴(公山不狃)는 곧장 궁궁을 향해 달려갔다.
 다급한 것은 노정공이었다. 그는 즉시 공자를 불러 의논했다.
 "비읍의 반란군이 도성 안으로 쳐들어왔으니, 대관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공자(孔子)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궁중 군사는 허약합니다. 일단 궁을 나가 계손씨의 집으로 피신하십시오."
 노정공(魯定公)은 공자

제36장 공자(孔子)시대 (9)

노정공(魯定公)이 계손사(季孫斯)의 집으로 몸을 피한 같은 시각, 공산불뉴(公山不狃)는 궁궁을 공격하고 있었다.
 궁중 수비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공산불뉴는 숙손첩의 안내를 받아 내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궁중 어디에도 노정공(魯定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노정공(魯定公)이 계손사의 집으로 피신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군사를 몰고 계손사의 집으로 향했다. 반란군이 대문을 부수고 대(臺) 위로 올라가려는데, 문득 한 사내가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공자였다.
 반란군은 대부분 비읍(費邑)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공자(孔子)가 백성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다. 공자를 보자 주춤하며 자신들도 모르게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그때 공자의 입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너희들은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다. 주공이 여기 계신데, 너희들은 어찌 순리를 거스르려 하는 것이냐? 속히 무기를 버려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잘못은 처벌하지 않겠다."
 주변이 삼시간에 조용해졌다.
 반란군은 하나 둘씩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이러한 급변에 당황한 것은 공산불뉴(公山不狃)였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대(臺) 안으로 진입하라!"

악을 써냈으나 몇몇 군사만 그에 호응할 뿐 대부분의 군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산불뉴(公山不狃)는 악에 반쳐 직접 대 위로 뛰어올라가 공자를 베려 했다.

그 순간 좌우에 매복해 있던 사마 친구수(申句須)와 악기(樂頤)가 뛰어나오며 외쳤다.

"역적은 함부로 성인의 몸에 더러운 손을 대지 마라!"

공산불뉴(公山不狃)는 기겁초풍했다.

그는 좌우에 계손씨의 가병이 매복되어 있음을 알고 재빨리 몸을 돌려 밖으로 달아났다. 이어 숙손첩(叔孫輒)이 그 뒤를 따랐다.

거우 곡부성을 빠져나온 그들은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오(吳)나라를 바라보고 달아났다. 이로써 '공산불뉴의 난'은 진정되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맹손무기와 숙손주구도 후범의 난을 진압했다.

후범(侯犯)은 거우 탈출하여 제(齊)나라로 망명했다.

양호에 이어 공산불뉴, 후범 등의 난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계손사(季孫斯)와 맹손무기(孟孫無忌), 숙손주구(叔孫州仇)는 서둘러 자로(子路)를 보내어 각 식읍의 성을 허물고 높이를 세 척쯤 낮추었다.

계손사를 비롯한 삼환(三桓)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공자는 이 모든 게 소정묘의 농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자(孔子)는 모든 신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사구의 자격으로 소정묘(少正卯)를 탄핵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소정묘가 교묘한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이 같은 말에 신료들은 고개를 갸웃 흔들었다.

"소정묘(少正卯)는 우리 노(魯)나라에서 명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어찌 공산불뉴의 난이 소정묘의 농간이라고 하십니까?"

공자(孔子)가 다시 노정공에게 아뢰었다.

"소정묘(少正卯)는 거짓을 참말처럼 말하고, 행동과 말이 같지 않아 알게 모르게 인심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저런 자를 죽이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신의 벼슬은 대사구(大司寇)입니다."

그러고는 좌우 무사를 돌아보며 추상같은 명을 내렸다.

"군사들은 저자를 속히 참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소정묘를 결박했다.

결국 소정묘(少正卯)는 궁정 앞뜰로 끌려나가 참수형에 처해졌다. 모든 신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이후로 노(魯)나라 정치에 공자의 뜻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대사구 겸 재상이 된 공자(孔子)는 먼저 궁중 기강을 세우고 관료들에게 예의를 가르쳤으며 염치를 알게 했다. 그러자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어 갔다.

사마천은 <사기>의 <공자세가(孔子世家)>를 통해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공자(孔子)가 정치를 맡은 지 3개월이 지나자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속이지 않았다. 남녀가 길을 갈 때는 따로 걸었으며,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졌다. 사방에서 모여드는 여행자들은 관리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모두 잘 접대를 받아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바야흐로 공자의 이상(理想) 정치가 노나라 땅에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때가 BC 498년(노정공 12년).

공자의 나이 54세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공자의 이상 정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공자의 예법과 인의지도(仁義之道)로 인해 노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노나라 공실과 경대부들은 다시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노(魯)나라 정치가 다시금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된 원인으로 재미난 일화가 전해온다.

그 무렵 제(齊)나라는 명재상 안영이 세상을 떠나고 제경공의 총신인 대부 여미(黎彌)가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다.

제경공(齊景公)은 노(魯)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어가는 것을 보고 몹시 불안해했다.

"공자가 정치를 잘하면 노(魯)나라는 패권을 잡을 것이요, 노나라가 패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우리 제(齊)나라를 억압하려들 것이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부 여미(黎彌)는 잔꾀를 내는 데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제경공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아뢰었다.

"주공께서는 공자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어찌 그를 방해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수로 공자의 정치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공께서는 신의 계책을 들어보시렵니까?"

"말해보라."

"신이 듣건대 매사가 안정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주공께서는 노후(魯侯)에게 우호를 두터이 한다는 핑계로 음악 잘하는 미인들을 많이 보내십시오."

"노후(魯侯)가 그 미인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틀림없이 정사(政事)에 게을러질 것이요, 자연히 공자(孔子)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는 노(魯)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갈 것이니, 공자 없는 노나라가 어찌 패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묘책이로다!"

제경공(齊景公)은 몹시 기뻐하며 그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 80명을 뽑아들여 10분대(分隊)로 편성했다. 그리고 그 미인들에게 예쁘게 수놓은 비단옷을 입힌 후 밤낮없이 노래와 춤과 음악을 가르쳤다.

이때 가르친 음악이 '강악(康樂)'이며, 그 춤을 '강악무(康樂舞)'라고 한다.

강악은 전에 없이 아름다운 곡조였으며, 강악무는 황홀하기 그지없어 보는 사람의 넋을 빼놓을 정도였다.

제 36장 공자(孔子)시대 (10)

마침내 제경공(齊景公)은 그 미인들과 양마 120필을 사신에게 딸려 노(魯)나라로 보냈다. 제(齊)나라 사신은 곡부성 남문에 이르러 두 곳에다 비단 장막을 쳤다.

동쪽 비단 장막에는 120필의 말을 매어두고, 서쪽 비단 장막에는 미인들을 머물게 했다. 그러고는 삼환 중의 한 사람인 계손사(季孫斯)의 집으로 향했다.

그 무렵, 계손사(季孫斯)는 나라가 태평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자 틈만나면 즐거운 일을 찾고 있었다. 그런 중에 제(齊)나라 사신이 와서 미인 악사들을 바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호기심이 일었다.

"내가 한 번 살펴본 후 주공에게 바칠 것인가 어쩔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계손사(季孫斯)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남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제(齊)나라 사신은 미인들이 공연하는 강악과 강악무를 계손사에게 보여주었다. 음악과 노래와 춤은 황홀했다. 노랫소리는 가는 구름을 멈추게 하고, 춤추는 자태에서는 향기가 일었다.

생전 처음 그런 춤과 음악과 노래를 관람한 계손사(季孫斯)는 정신이 빠졌다. 온몸이 녹는 듯하고, 마음이 산란했다. 시간 가는 줄 몰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저녁이었다.

이튿날 계손사(季孫斯)는 궁으로 들어가 노정공을 알현하고 제나라에서 미인 80명을 보내왔음을 보고했다. 노정공의 눈빛이 달라졌다.

"제(齊)나라에서 왔다는 그 여악(女樂)들은 지금 어디 있소?"

"남문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공께서 보실 생각이시라면 신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공의 행차가 알려지면 백성들이 불편해질 것이니, 미복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정공(魯定公)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계손사와 함께 남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장막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계손사(季孫斯)는 심복 부하 한 사람을 먼저보내 제(齊)나라 사신에게 귀띔했다.

"우리 주공께서 미복 차림으로 오셨소."

제나라 사신은 미인들을 불러놓고 당부했다.

"노(魯)나라 군주가 미복으로 오셨다고 한다. 너희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온갖 재주를 다 보여봐라."

제(齊)나라 미인 악사 80명은 더욱 교태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소매가 나부낄 때마다 장막 안에는 무지개가 서는 듯했다.

10대(隊)의 미녀들은 번갈아 등장하여 자신들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했다. 평생 고루한 음악만 들어오던 노정공(魯定公) 또한 완전히 정신을 빼앗겼다.

궁으로 돌아온 노정공(魯定公)은 그 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미인들의 노래가 귓전에 맴돌고 춤추는 자태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다음날 아침, 노정공(魯定公)은 혹시나 공자가 제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을 반대할까 두려워 일부러 계손사만을 부르고 제(齊)나라 사신을 맞아들였다. 노정공은 제나라 사신에게 황금 1백 일을 답례로 하사했다. 미인 악사 80명과 말 120필을 접수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정공(魯定公)은 80명의 여악 중 30명을 계손사에게 내주고 나머지는 내궁에 머물게 했다.

그때부터 노정공과 계손사(季孫斯)는 각기 낮이면 노래와 춤을 즐기고 밤이면 미인들을 끼고 술을 마셨다. 조회를 여는 것이 귀찮아 열흘이 넘도록 정청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소식이 공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성질 급한 제자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말했다.

"선생님이며, 이제 노(魯)나라를 떠날 때가 왔나봅니다."

공자(孔子)가 대답했다.

"아직 이르다. 며칠 후면 교제(郊祭)를 올리는 날이다. 주공이 교제를 마치고 나서 그 조(胙)를 대부들에게 나누어주면 이는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를 나누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교제(郊祭)란 남쪽 교외로 나가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참고로 북쪽 교외로 나가 하늘에 올리는 제사는 사제(社祭)라고 한다.

또 조(胙)는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고기로서, 제사가 끝나면 군주는 신하들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주는 것이 관례였다. 신하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다.

마침내 교제날이 되었다.

노정공과 계손사 등 문무백관은 남쪽 교외로 나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노정공(魯定公)은 제사를 지내자마자 부리나케 궁으로 돌아갔다.

제(齊)나라에서 바친 미인 악사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제사를 지낼 때 쓴 '조(胙)'를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잊고 말았다.

제관이 궁으로 들어가 아뢰었다.

"조(胙)를 나눠주십시오."

노정공은 귀찮은 표정으로 아무렇게나 말했다.

"과인은 바쁘다. 계손사에게 나눠주라고 일러라."

하지만 계손사(季孫斯) 역시 제사가 끝남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 강악과 강악무를 즐기고 있었다.

결국 조(胙)는 분배되지 않았다.

그 날 밤, 공자(孔子)는 길게 탄식했다.

"아, 나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지 않았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다음날 아침, 공자(孔子)는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곡부성을 떠났다.

계손사에게 베풀하던 자로(子路)와 자유(子有)도 관복을 벗어던지고 스승 공자의 뒤를 따랐다.

공자(孔子)가 노(魯)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려 한다는 소문은 계손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깜짝 놀라 악사장 기(己)를 보내 공자를 데려오게 했다. 악사장 기가 서둘러 곡부성을 나섰다.

그때 공자(孔子)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북쪽 교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기(己)가 뒤쫓아가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노나라를 떠나시는 겁니까?"

공자(孔子)가 그윽한 눈길로 기(己)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노래로 대답해도 괜찮겠는가?"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아 거문고를 타며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군주가 여인의 말을 믿으면

군자는 떠나가는도다.

군주가 여인을 가까이하면

사직은 사라지는도다.

이런 그들 속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며

이렇게 나의 세월을 보내리라.

악사장 기(己)는 공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다.

그가 성안으로 돌아오자 계손사(季孫斯)가 불러 물었다.

"공자가 뭐라고 하던가?"

기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계손사는 크게 탄식했다.

"아아, 공자(孔子)는 내가 제나라 무녀(巫女)를 받아들인 것을 책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자는 노(魯)나라를 떠나갔다.

이 떠남이 곧 그 유명한 공자의 '천하 역유(歷遊)'다.
이때 공자 나이 56세.
따르는 제자는 수십 명에 달했다.

[列國誌] 2부 장강의 영웅들 (289)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1)

초(楚)나라를 쳐부순 이후 오왕 합려(闔閭)의 명성과 위엄은 중원에까지 크게 떨쳤다. 합려(闔閭)는 천하가 손안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북방의 제(齊)나라와 남쪽의 월(越)나라다.

그 두 나라만 제압하면 오(吳)나라는 명실공히 중원의 3분의 2를 지배하는 패자(霸者)가 되는 것이다.

합려(闔閭)가 제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다름 아니다.

제(齊)나라가 회수(淮水)를 사이에 두고 오(吳)나라 바로 정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나라만 굴복시키면 황하 근방의 노(魯)나라나 위(衛)나라, 정(鄭)나라 등은 자연 오나라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생각만 해도 짜릿한 일이었다.

어느 날, 합려(闔閭)는 신임 재상 오자서를 불러 물었다.

"북의 제(齊)나라를 먼저 도모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남쪽의 월(越)나라를 먼저 평정하는 것이 좋겠소?"

오자서(伍子胥)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끝에 대답했다.

"북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남쪽의 월(越)나라는 해안선이 복잡하게 뒤얽힌데다가 산이 가로막혀 있어 일시에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 곳을 치면 저 곳으로 도망치고, 저 곳을 치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쳐 좀처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랜 세월을 두고 야금야금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

북쪽의 제(齊)나라는 임치성을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가 잡혀 있다. 백성들도 공실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비록 영토는 넓다고 하나 힘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그 중심부만 제압하면 나머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오자서의 말을 들은 오왕 합려(闔閭)는 공감이가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어떻게 제나라를 제압하는 것이 좋겠소?"

이번에는 오자서의 대답에 망설임이 없었다.

"제(齊)나라는 최근 동방의 패자로 자처할 만큼 힘이 강대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재상 안영과 사마 전양저로 인해 나라도 안정되었습니다. 힘으로 맞서서는 결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나라와 우호를 맺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호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吳)나라는 한 면이 바다요, 삼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군사가 아무리 용맹하다 하더라도 세 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초(楚)나라는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므로 당분간 안심해도 됩니다."

남은 것은 제나라와 월나라인데, 우리가 제나라와 우호를 맺으면 모든 힘을 남쪽으로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이 북쪽을 도모하자는 것은 제(齊)나라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제나라를 동맹

국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오왕 합려(闔閭)는 비로소 오자서의 뜻을 알아챘다.

결국 오자서(伍子胥)는 월나라를 평정하여 남쪽 후방을 안정시킨 후 제나라를 길목으로 하여 중원을 제패하자는 것이었다.

"좋은 계책이오. 그런데 우리는 제(齊)나라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우호를 맺는단 말이오?"

"세자 파(波)가 부인을 잃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세자 파를 언제까지 혼자 놔둘 작정이십니까?"

"제나라와 혼인을 맺자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齊)나라와는 교류가 없지만 사자를 보내어 청혼하면 결코 그들은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호를 맺는 첩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합려(闔閭)는 추진력이 강한 왕이었다. 오자서의 간언을 듣자 즉시 대부 왕손락(王孫駱)을 제나라로 보내어 혼인을 청했다.

이 무렵 제경공(齊景公)은 나이가 이미 일흔이 넘었다.

늙고 쇠약해서 과거의 진취적이고 호방한 기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느닷없이 남방 오랑캐인 오(吳)나라가 청혼해오자 당황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화를 내며 청혼사를 꾸짖어 쫓아냈겠으나, 지금은 그런 패기가 사라졌다. 더욱이 지금 오(吳)나라는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신하들을 불러 물었다.

"오나라와 혼인하는 것이 어떠한가?"

대부분의 신하들이 침묵하는 중에 총신인 대부 여미(黎彌)가 아뢰었다.

"오(吳)나라는 초나라 수도를 점령할 만큼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들과 우호를 맺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청혼을 거절하면 그들은 필시 대군을 몰고 임치를 향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제경공(齊景公)은 머릿속으로 불타는 임치성의 광경을 그려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마침 그에게는 열다섯 살이 갓 넘은 어린 딸이 있었다. 늦게 얻은 딸이라 무척 사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강(少姜)이라 불렀다.

제경공(齊景公)은 소강을 오나라로 시집보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나라에서 온 청혼사를 불러 승낙하는 말을 내렸다.

여러 차례 사신이 오간 끝에 마침내 소강(少姜)은 오나라 세자 파(波)에게 시집왔다. 그런데 소강은 나이가 너무 어렸다. 몸도 성숙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괴로웠다.

소강(少姜)은 풍속과 기후가 다른 낯선 남방 땅의 생활이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었다. 틈만 나면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다. 세자 파(波)가 위로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소강은 우울증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다.

오왕 합려(闔閭)는 어린 새 며느리가 불쌍했다.

그녀가 늘 북쪽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북문 성루를 개조하여 호화스럽게 장식했다. 성문이름도 '망제문(望齊門)'이라고 고쳤다.

소강(少姜)은 매일 망제문 위로 올라가 북쪽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하늘만 쳐다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녀의 슬픔과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쌓여갔다. 병세도 더욱 악화되었다.
 끝내 소강(少姜)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소강은 남편인 세자 파(波)에게 부탁했다.
 "제가 죽거든 우산(虞山) 꼭대기에 묻어주십시오."
 우산은 오성 근처에 있는 산으로, 소강은 죽어서라도 제(齊)나라 쪽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다.
 소강(少姜)이 죽자 세자 파(波)는 합려의 허락을 받아 그녀를 우산(虞山) 위에 묻었다. 오늘날도 안
 휘성 상숙현 우산에 올라가면 제녀묘(齊女墓)가 있다. 소강의 무덤이다. 또 그 곁에 망해정(望海亭)
 이라는 정자가 서 있다.
 그런데 세자 파(波)는 마음이 무척 여렸다.
 소강을 무척 사랑했었던 것이다. 어린 아내가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또한 병들어 눕고
 말았다.
 얼마 안되어 세자 파(波)도 소강(少姜)의 뒤를 따라가듯 세상을 떠났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2)

졸지에 어린 며느리에 이어 세자 파(波)마저 잃은 오왕 합려(闔閭)는 침통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젖어 나라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제 북쪽이 안정되었으니 월(越)나라를 치리라!"
 합려(闔閭)는 이렇게 선언했다.
 그런데 재상 오자서(伍子胥)가 반대하고 나섰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어째서 때가 아니라고 하오?"
 "안이 튼튼해야 밖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막 세자를 잃었습니다. 세자는 나라
 의 앞날입니다. 먼저 후계를 정해놓은 뒤 월(越)나라를 쳐야 합니다."
 합려(闔閭)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과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소. 누가 좋을 것인가?"
 그보다 며칠 전이었다.
 오자서(伍子胥)는 느닷없이 한밤중에 한 사내의 방문을 받았다. 합려의 아들이자 세자 파(波)의 친
 동생인 부차(夫差)였다.
 - 공자께서 웬일이십니까?
 부차(夫差)는 용모가 비범하고 기상이 출중하여 죽은 형과는 대조적이었다. 속으로 적지 않은 야
 심도 키우고 있었다.
 이때 부차의 나이 26세.
 한창 패기만만한 시절이었다.
 - 나라의 앞일을 의논하고자 특별히 재상을 찾아왔습니다.
 오자서(伍子胥)는 속으로 짐작했으나 모르는 척 물었다.
 - 나라의 앞일이라니요?
 - 세자이신 형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부왕께서는 조만간 새로 세자를 세우실 터인데, 형

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나라 적자(嫡子)는 바로 나입니다. 적자가 세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상께서는 부왕께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공자 부차(夫差)는 돌아갔다.

'왕재(王才)다!'

오자서(伍子胥)는 부차가 제법 당차다고 생각했다. 기회를 엿보던 중 합려가 월나라 치는 일을 꺼냈을 때 그는 오히려 후계자 얘기를 꺼낸 것이었다.

여러 아들 중 누가 책임자이겠냐는 합려의 물음에 오자서(伍子胥)는 망설임없이 대답했다.

"후계를 정하는 일은 적자라야 뒤에 어지러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파(波) 세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바로 아랫동생인 부차(夫差) 공자가 적자입니다. 마땅히 부차(夫差) 공자를 후사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합려(闔閭)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내가 보기에 부차(夫差)는 어리석고 인자하지 못하오. 오나라 계통을 계승하지 못할까 두렵구려."

"부차는 신의가 있어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또한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우리 오(吳)나라는 바야흐로 중원으로 웅비할 날개를 펴는 중입니다. 이런 때에는 활달하고 기상이 출중한 분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오자서의 적극적인 추천에 합려(闔閭)는 마음을 정했다.

"그대의 말을 좇기로 하겠소. 그대는 부차(夫差)를 잘 보좌해주기 바라오."

이렇게 하여 부차는 오나라 세자에 책봉되었다.

그 날로 그는 오자서의 집으로 가서 감사의 절을 올렸다.

BC 497년 (오왕 합려 18년)의 일이었다.

그해 겨울, 뜻밖의 소식이 오(吳)나라에 전해졌다.

- 월왕 윤상(允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상은 오랫동안 월나라를 다스려온 명군이였다.

어린 나이에 임금에 올라 복잡하게 얽힌 해안선을 따라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실공히 월(越)나라를 강대국으로 끌어올렸다.

남쪽 땅에서 양질의 쇠가 많이 나는 점을 이용해 주재료가 구리였던 병기를 철기로 바꾼 주인공이기도 했다.

월나라에 명검(名劍), 명장(明匠)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월왕 윤상의 적극적인 광산 개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윤상이 죽고 아들 구천(勾踐)이 월나라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합려(闔閭)는 눈을 매처럼 번뜩였다.

"하늘이 내린 기회요. 윤상이 죽고 그 아들 구천(勾踐)이 새 왕에 올랐다고 하니, 지금쯤 월(越)나라는 매우 어수선할 것이오. 이 틈을 타 월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어떻겠소?"

모든 신하들이 찬성하는데, 유독 오자서만은 고개를 저었다.

"비록 월(越)나라가 우리 나라에 지은 죄는 적지 않지만, 국상이 난 것을 기회로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후일 월(越)나라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려가 주저하는 빛을 보이자 태재 백비(伯嚭)가 일어나 혼연히 말했다.

"월(越)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웃해 있으면서도 초나라와 가까이하며 번번히 우리의 배후를 노려왔

습니다. 이제 윤상이 죽고 철없는 구천(勾踐)이 왕위에 올랐다 하니 월나라도 윤이 다했음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에 관한 일을 앞에 놓고 어찌 참된 용기 운운하며 한가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월(越)나라를 송두리째 없애버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백비(伯嚭)가 눈에 불을 켜고 오자서의 말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원래 백비는 초(楚)나라 망명객으로서 오자서의 천거에 의해 오나라 국정에 참여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초나라를 원수로 삼고 있었다. 초나라를 치는 일에는 의기가 투합됐다.

그런데 초나라 수도 영성 점령 이후 백비(伯嚭)의 마음속에는 다른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어찌 오자서 혼자 오나라 국정을 좌지우지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리라 마음먹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월(越)나라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합려의 비위를 맞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기면 일등공신이요, 지면 그뿐인 것이다.

오자서와 백비의 의견이 대립되자 합려(闔閭)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역시 마음은 월(越)나라 정벌 쪽으로 쏠려 있었다. 잠시 생각한 끝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세자 부차(夫差)는 오자서와 함께 도성을 지키라. 나는 백비, 왕손락, 전의 등과 함께 정병 3만을 거느리고 남문으로 나가 월(越)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리라!"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3)

앞서도 언급했듯, 월(越)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홀연히 중국 역사 무대 위로 등장했다. 그 이전까지의 일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사기>에 의하면 월나라 조상은 하왕조를 세운 우(禹) 임금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다. 아마도 하왕조 때 회계 땅에 봉해진 모양이다.

회계(會稽)는 지금의 절강성으로, 중국 대륙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그 부족은 몸에 문신(文身)을 하였고, 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는 대체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풍습이다. 꽤나 원시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로가 확보되고 문화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그들도 문명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철 제련법의 발달이 그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바야흐로 철기시대를 연 것이며, 월(越)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역사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된 주인이 아닐까.

월(越)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물론 칼과 관계되는 일화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객과 관련이 깊다. 월(越)나라에는 소위 명검이라고 하는 훌륭한 칼만 많이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에 못지 않은 검객도 출현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검객 월녀(越女)'다.

오나라, 월나라 역사 얘기를 담은 <오월춘추(吳越春秋)>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월(越)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월녀(越女)는 인적과 멀리 떨어진 숲 속에 살며 검술을 익혔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신묘한 검

술을 칭찬하였다.

이 소문은 널리 퍼져 월왕 윤상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윤상(允常)은 사자를 파견해 후한 예물을 주며 군사들에게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그녀를 초청했다.

월녀(越女)는 월왕의 초빙에 응하여 도성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원공(猿公)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났다. 원공이 월녀에게 말했다.

- 듣자하니 네가 검술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나와 한번 겨루어보자.

월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 제가 어찌 노선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만,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숲 속에 있는 대나무를 다듬어 칼의 대용품으로 삼아 대결하였다. 원공(猿公)이 먼저 월녀에게 공격을 가했다. 월녀(越女)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원공의 공격에 반응했다.

가늘고 짧은 대나무 끝을 뺨어 정확하게 원공의 대나무 칼 끝에 맞춘 것이다. 원공(猿公)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 뒤로 물러나 다시 공격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세 번씩 공수를 주고받았다.

마침내 월녀(越女)가 원공을 향해 공격했다. 원공은 그 공격을 당해낼 수 없어 뒤로 물러나 훌쩍 높은 나무위로 뛰어올랐다. 별안간 원공(猿公)은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흰 원숭이만이 나뭇가지 위에 서서 길게 울부짖더니 홀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뒤 월녀(越女)는 궁으로 들어가 월왕을 만났다.

월왕은 장교 이상의 지휘관을 불러 월녀에게서 신묘한 검술을 배우게 하였고, 다시 장교들은 군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때부터 월나라 군대의 검술은 열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다.....

월(越)나라가 역사 무대 위로 나서자마자 강국으로 활약하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일화다.

윤상에 이어 새로이 월왕에 오른 구천(句踐) 또한 검과 검술을 매우 즐겼음에 틀림없다.

1965년 호북성 강릉의 초묘(楚墓)에서 발견된 월왕구천지검(越王句踐之劍)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 월왕 구천(句踐)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위기를 맞았다.

이듬해 봄, 북쪽 이웃 나라인 오나라 왕 합려가 3만 대군을 이끌고 월나라 땅으로 쳐들어 온 것이다.

구천(句踐)은 젊고 용맹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더욱이 그에게는 아버지 윤상 시대부터 벼슬을 살아온 유능하고 노련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범려(范蠡), 문종(文種), 제계영(諸稽郢), 영고부(靈姑浮), 주무여(疇無餘), 서안(胥犴) 등이었다.

이 중 특히 범려(范蠡)는 윤상 말년에 발탁한 대부로서, 나이는 젊었지만 국정 운영에 천부적이라 할 만큼 많은 재능을 지닌 인재였다.

월왕 구천(句踐)은 오군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접하자마자 중신 회의를 열었다. 대부 범려(范蠡)가 말했다.

"오나라가 우리의 국상(國喪)을 이용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은 정도(正道)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싸움에 이길 것입니다. 더욱이 오나라는 손무가 은퇴하였으므로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오자서뿐인데, 그 오자서마저 오성(吳城)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왕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취리(樵李) 땅으로 나가 오군을 맞아 싸우십시오."

범려의 말에 월왕 구천(句踐)은 힘이 솟았다. 곧 방어군을 편성했다.

- 제계영(諸稽郢)은 대장이 되고, 영고부(靈姑浮)는 선봉장이 되라.

- 주무여(疇無餘)와 서안(胥犴)은 좌우익이 되어 과인을 보좌하라.

아울러 대부 범려를 군사(軍師)로 삼아 군사 3만을 이끌고 오군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4)

오·월 두 나라 군대는 취리(樵李) 땅 용문산(龍門山) 근처에서 마주쳤다.

서로 10리 간격을 두고 영채를 세웠다.

이튿날부터 두 나라 군사들은 한데 어우러져 싸웠다.

좀처럼 승패가 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전심전력을 기울인 것이었다. 3일 연속 싸웠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자 오왕 합려는 전략을 세로이 세웠다.

"영채를 오대산(五臺山)으로 옮겨라."

오대산은 취리(樵李) 북쪽에 위치한 산이다.

일종의 후퇴였다. 그는 월군(越軍)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여 월군이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일거에 덮쳐들 작정이었던 것이다.

다음날 월왕 구천(句踐)은 싸움을 걸기 위해 영채를 나섰다가 오군이 오대산 기슭으로 옮긴 것을 알았다. 높은 구릉 위로 올라가 바라보니, 오군의 대오는 정연했고, 창과 갑옷이 햇빛에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구천(句踐)은 은근히 겁을 먹었다.

대장 제계영을 불러 말했다.

"오군이 저렇듯 형세가 대단하니 쉽게 무찌르지 못할 것 같소. 그렇다고 저들을 마냥 우리 땅에 둔치게 할 수도 없는 일. 어찌 무찌르면 좋겠소?"

제계영(諸稽郢)이 대답한다.

"정면으로는 깨기 어려우니 별동대를 조직하여 저들을 어지럽힌 후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천(句踐)은 제계영의 말에 따라 별동대를 조직했다.

주무여(疇無餘)가 지휘하는 좌익 군사 중에 5백 명을 뽑고, 서안(胥犴)이 지휘하는 우익 군사 중에서 5백 명을 뽑았다. 그들은 각기 장창과 극(戟, 가지 창)을 꼬나쥐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오나라 영채 양편을 공격했다.

그러나 오군 진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영채 주위로 높은 루(壘)를 쌓아놓고 그 뒤편에 궁노수를 배치해두었다. 별동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 방벽 뒤에서 활만 쏘아댈 뿐 군사를 내지 않았다.

월(越)나라 별동대는 세 번이나 올라갔지만 오히려 희생자만 냈을 뿐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낙심했다. 어두운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군사 범려(范蠡)가 말했다.

"정공법으로는 오군을 격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奇計)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라면 무엇을 말함이요?"

"죄수들을 이용하여 적의 예기를 꺾은 후 일거에 들이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귓속말로 한참을 속삭였다.

구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과연 기계(奇計)구려."

다음날 구천(句踐)은 사자를 도성으로 보내 명했다.

- 사형수 3백 명을 뽑아 데려오라.

며칠 후 사형수 3백 명이 월군 영채에 당도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그들을 모아 놓고 명했다.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겠노라."

그는 사형수들에게 할 일을 지시했다.

잠시 후, 3백 명의 사형수는 1백 명씩 3대(三隊)로 나누어 오군 진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복장은 모굴이 송연할 정도로 섬뜩했다. 상체는 벗겨진 채였고, 손에는 각자 커다란 칼을 거머쥐었다. 벗겨진 몸뚱아리에는 온갖 기괴한 문신이 새겨져 있어 더욱 음산했다.

오나라 군사들은 영채 안에 있다가 이 기괴한 행렬을 발견했다. 결사대인가, 생각하여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결사대치고는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조용하고 느릿느릿했다. 오군(吳軍) 병사들은 활을 쏘는 대신 계속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3백 명 사형수 중 선두에 선 1백 명이 오나라 진영 앞에 멈춰섰다. 한 죄수가 나와 오(吳)나라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들은 큰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요. 이제 그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스스로 사형식을 거행할까 하오."

말이 끝나자마자 일렬로 늘어선 1백 명의 죄수들은 일제히 칼을 들어 자기 목을 찔렀다. 선혈을 뿜으며 그들은 차례차례 쓰러져 죽었다. 고금을 통해 들어본 적이 없는 진풍경이었다.

영채 너머로 이 진귀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오(吳)나라 군사들은 기겁초풍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여기 와서 죽는 속셈이 뭐야?"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이 두 번째로 1백 명의 죄수들이 영문 앞에 서서 또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그들이 죽자 그 뒤에 있던 일대(一隊)가 역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자결했다.

이제 오(吳)나라 군사들은 놀라움을 넘어서 기가 질려버리고 말았다.

그때였다.

별안간 좌우 골짜기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일며 한 떼의 군사들이 벌 떼처럼 달려나왔다. 오군 장수 주무여(嚱無餘)와 서안(胥狴)이 지휘하는 좌우익 군사들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오군(吳軍) 병사들은 느닷없는 월나라의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얼떨결에 활을 쏘아대기는 했으나, 이미 영채 좌우의 누벽(壘壁)이 무너진 뒤였다.

뿐만 아니었다. 영채 바로 정면으로 월왕 구천(句踐)이 대군을 거느리고 벼락처럼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제야 월군의 계책에 속은 것을 깨달은 오왕 합려(闔閭)는 북을 치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들은 철저히 월군에 의해 포위된 것이었다.

"포위망을 뚫어라!"

악 쓰듯 외쳐대는 사이 홀연 한 장수가 그 앞에 나타났다.

월나라 대장 제계영(諸稽郢)이었다.

제계영(諸稽郢)은 합려를 보자 화살처럼 일직선으로 달려왔다. 그가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오군

장수 왕손락(王孫駱)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제계영은 합려를 버리고 왕손락을 맞아 칼을 휘둘렀다.

그 틈을 이용해 합려(閼閼)는 영채를 벗어났다.

그가 막 북쪽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또 한 장수가 번개처럼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월군 선봉대장 영고부였다.

영고부(靈姑浮)는 다짜고짜 합려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합려는 기겁하여 상체를 뒤로 젖혔다. 칼날은 그의 얼굴 앞을 지나쳐 그대로 발등을 찍었다.

"아악!"

합려(閼閼)는 자신의 오른발이 끊어져 나간 것을 알았다.

고통을 참고 겨우 병차에 매달려 달리는데 다행히 오군 장수 전의(專毅)가 달려와 그를 호위했다.

왕손락(王孫駱)은 제계영을 맞아 싸우다가 오왕 합려가 부상당한 것을 알고는 재빨리 빠져나와 전의와 함께 합려를 모시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싸움은 일방적이 되었다.

월나라 군사는 신바람이 나서 달아나는 오군을 찌르고 베고 넘어뜨렸다.

월군(越軍)의 대승이었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5)

발이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은 오왕 합려(閼閼)는 10리 밖으로 달아나 형(陘)이라는 곳에서 패잔병을 수습했다.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었다.

"아아, 오자서의 말이 틀림없구나."

회군령을 내렸다

오군(吳軍)은 침울했다.

왕 합려의 부상이 몹시 심했기 때문이었다. 겨우 지혈을 하여 피를 멈추게 한 후 쉬지 않고 오성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합려(閼閼)는 더 이상 자신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오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수레를 멈추게 한 후 백비에게 말했다.

"세자 부차(夫差)를 불러오라."

오성에 남아 있던 부차와 오자서는 합려가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다.

합려(閼閼)가 눈물을 뿌리며 오자서를 향해 말했다.

"내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려. 아아, 구천에 대한 원수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나는 오자서(伍子胥) 그대만 믿겠소."

오자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왕께서는 이번 패전에 대해 패념치 마십시오. 쾌유하신 연후에 얼마든지 구천(句踐)에 대해 보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왕 합려(閼閼)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소. 내가 죽거든 그대는 부차(夫差)를 도와 나의 원수를 꼭 갚아주세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아들 부차의 손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부차야, 부차야. 너는 월(越)나라를 잊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남겨주는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부차(夫差)가 눈물을 뿌리며 대답하려는데, 합려의 입에서 검은 피가 한 움큼 쏟아져 나왔다. 놀란 오자서와 부차가 합려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합려의 숨은 이미 끊어진 뒤였다.

BC 496년(오왕 합려 19년) 여름의 일이었다.

부차(夫差)는 부왕 합려의 유해를 수레에 모시고 오성으로 돌아왔다.

오자서를 비롯한 백비, 왕손락 등은 예법에 따라 세자 부차(夫差)를 왕위에 올려 모시고 합려에 대한 장사를 치렀다. 장지는 파초문 밖 해용산(海憑山).

오늘날 소주 교외의 호구(虎丘)가 그 곳이다.

오왕 합려의 묘가 '호구(虎丘)'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내력이 있다.

부차(夫差)는 합려의 묘를 조영하는 데 10만 명의 인부를 동원했다. 삼중으로 곽(郭)을 만들고 봉분 안에는 어장을 비롯한 3천 개의 칼을 묻었다. 또 수은으로 연못을 만들어 금은옥으로 세공한 물새를 그 곳에 띄웠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바라보니 합려의 능 위로 커다란 백호(白虎)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해용산을 호구산(虎丘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일설에는 백호(白虎)가 나타난 것은 이 시대가 아니라 합려가 죽은 지 270년이 지난 진시황(秦始皇) 때라고 한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제는 합려가 소장하고 있던 명검을 갖고 싶어서 해장산에 매장된 합려의 묘를 파다.

도굴 중에 백호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했다. 그 바람에 도굴은 중지되고, 사람들은 해용산을 호구산(虎丘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진시황(秦始皇)은 끝내 합려의 칼을 찾아내지 못했다.

또 묘를 파낼 때 생긴 커다란 구멍에 물이 괴어 못이 되었는데, 그 못이 곧 '검지(劍池)'다. 지금도 소주 호구산에 가면 검지가 있다.

이제 부차(夫差)는 오나라 왕이 되었다.

그는 부왕 합려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 그는 상당히 집요한 성격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도 월(越)나라로 쳐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 국상(國喪) 중에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오자서의 말에 따라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복수심이 약해질까 두려워 시자(侍者) 열 사람을 궁전 좌우에 배치한 후 다음과 같이 외치게 했다.

- 부차야, 너는 월왕(越王)이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겠지?

시자들은 부차가 궁전 안팎을 출입할 때마다 매번 이 같은 말을 큰소리로 외쳐댔다. 또 조정 신하들에게도 이 같은 말을 일러주며 인사로 대신하게 했다.

그때마다 부차(夫差)는 피눈물을 쏟으며 대답했다.

"내 어찌 월(越)나라를 잊을 리 있으리오."

그러는 한편 오자서와 백비에게 명하여 맹렬하게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태호(太湖)에는 늘 수군들이 나와 훈련에 임했고, 영암산 골짜기는 보병들이 진을 치고, 활을 쏘고, 나가고 물러나고 하는 함성소리로 오(吳)나라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렇게 2년여가 흘렀다.

부차(夫差)는 상복을 벗었다. 수군과 육군의 훈련도 모두 마쳤다. 오나라 군사력은 2년 전에 비해 놀랍도록 강해져 있었다.

"이제야말로 월(越)나라에 대해 복수할 때다!"

마침내 부차(夫差)는 태묘에 제사를 올린 후 전군에 명을 내렸다.

- 월나라로 쳐들어가라!

오자서(伍子胥)가 총대장이 되었고 백비가 부장이 되었다.

오군(吳軍)은 태호 물길을 따라 수륙 양면으로 월(越)나라를 향해 일제히 공격해 들어갔다.

BC 494년(오왕 부차 2년) 봄의 일이었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6)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다.'

오왕 부차(夫差)의 대대적인 침공을 맞은 월왕 구천(句踐)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중얼거렸다.

- 가소롭구나 부차여. 이번에는야말로 너를 죽이고 오(吳)나라를 멸망시키리라!

구천(句踐)은 모든 신료를 불러 오군을 맞이해 싸울 일을 의논했다.

그런데 중신들의 뜻이 구천과 같지 않았다.

대부 범려(范蠡)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나라 사람들은 지금 전왕 합려의 죽음을 철천지한(徹天之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월(越)나라를 치기 위해 지난 2년여 간 뼈를 깎는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들의 사기는 산을 울릴 정도입니다. 이런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군사를 내는 것보다는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부 문종(文種)도 군대 내는 것을 반대했다.

"범려(范蠡)의 말이 옳습니다. 오자서의 군대는 이제껏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대저 책략이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 후 이행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의욕을 앞세워 싸우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도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왕께서는 굳게 지키시면서 몸을 낮추어 화친을 구한 후 패자(霸者)의 야망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평소 구천(句踐)은 이들의 말에 한 번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너무 달랐다. 구천은 노골적으로 불만스런 표정을 지었다.

"맞서 싸우는 것을 피하고 지키기만 하라니, 나는 그대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소. 초(楚)나라를 정벌한 바 있는 합려도 나에게 패해 목숨을 잃었는데, 하물며 그 아들 부차 따위를 겁내다니!"

"겁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날카로운 예기가 무디어지기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굳게 지키자는 범려(范蠡)의 생각이나 화친을 도모하자는 문종(文種)의 생각은 다 좋은 계책이 아니요. 오(吳)나라는 대대로 우리와 원수지간이요.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내 어찌 앞으로 이 나라를 통솔하겠소?"

이미 한 번 오군을 대파한 바 있는 구천(句踐)은 두려울 것이 없었다.

결국 범려와 문종의 의견을 기각하고 전군을 동원하여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임을 선포했다.

구천(句踐)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물길을 거슬러 태호(太湖) 방면으로 진격했다.

두 나라 군사는 부초산(夫椒山) 아래서 맞부딪쳤다.

군사를 먼저 일으킨 것은 오왕 부차(夫差)였지만, 막상 싸움이 붙자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것은 월왕 구천(句踐) 쪽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첫 싸움에서 부차는 구천에게 패했다. 오군(吳軍)은 1백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신바람이 났다.

승세를 타고 오군을 추격했다.

3사(三舍, 90리) 거리를 물러난 오자서(伍子胥)가 전군에 새로운 명을 내렸다.

- 영채를 굳게 쌓되, 나가 싸우지 마라. 명을 어기는 자는 목을 베리라!

월(越)나라 군사는 사기충천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싸움을 걸어왔다.

그러나 오군 진영은 일절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쥐 죽은 듯 조용히 영채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뿐이었다.

부아가 치민 것은 오왕 부차(夫差)였다.

그는 오자서를 불러 다그치듯 물었다.

"어째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요?"

오자서(伍子胥)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의 몸에 병이 있어 지금은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바탕 꾸짖음을 내리려던 부차(夫差)는 오자서가 아프다는 말에 노기를 가라앉혔다. 오히려 걱정하는 빛을 띠었다.

"적은 매일같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오자서(伍子胥)가 병에 걸려 싸울 수가 없다니,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오왕 부차(夫差)는 낙심했다.

이 정보는 세작(細作)들에 의해 월왕 구천의 귀에도 들어갔다.

구천(句踐)은 오자서가 와병중이라 나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앙천대소(仰天大笑)했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오군의 사기는 지금쯤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럴 때 총공세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또 기회를 맞이하랴!"

매사에 신중함을 기하는 범려(范蠡)가 구천에게 간했다.

"오자서(伍子胥)는 지략이 깊은 장수입니다. 그는 우리를 꾀려고 일부러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쳐들어가지 마십시오."

"의심도 병이오. 이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소."

구천(句踐)은 범려의 간언을 일축하고 전군에 총공격을 내렸다.

월나라 군사들은 북을 울리며 전함을 타고 상류를 향해 쳐들어 올라갔다. 그들이 부초산(夫椒山) 기슭 아래를 지나갈 때였다.

별안간 양쪽 갈대숲에서 수백 척의 배가 일제히 미끄러져 나왔다.

두말할 나위없이 오군(吳軍) 전함이었다.

그 배들은 빠른 속도로 진격하더니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적함이다!"

월(越)나라 군사들은 방향을 틀어 미끄러져 달려오는 오군 전함을 향해 화살로 맞대응했다.

그때 또 강의 상류쪽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수십 대의 오군 전함이 무서운 속

도로 구천(句踐)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덮쳐들었다. 선수(船首)에는 오자서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다.

"오자서다!"

월(越)나라 군사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병들어 누워 있는 줄 알았던 오자서(伍子胥)가 난데없이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범려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은 구천(句踐)은 친히 복채를 들고 군사들을 독려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일제히 적함을 공격하라."

하지만 이미 예기가 꺾인 월나라 군사들이었다.

그들은 양쪽에서 퍼부어대는 불화살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자서(伍子胥) 전대(戰隊)의 위세에 잔뜩 겁을 먹었다. 허둥지둥하며 공연히 아까운 화살만 강물 속으로 쏘아댔 뿐이었다.

그때 북풍이 사납게 불어와 파도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오자서(伍子胥)가 이끄는 함대는 더욱 빠른 속도로 다가온 반면, 월나라 전함들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기우뚱거렸다. 그 바람에 갑판 위에 서 있던 군사들 수십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강물 속으로 빠졌다.

바람이 잦아졌을 때는 월군(越軍)은 이미 삼면이 오군에 포위된 뒤였다.

오자서가 함교에 우뚝 서서 크게 소리쳤다.

"월왕(越王)은 들어라. 나 오자서가 선왕의 원한을 갚기 위해 여기 왔노라!"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배들이 일제히 월왕 구천(句踐)이 타고 있는 전함만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월왕 구천(句踐)은 기겁했다. 이제는 방향을 틀어 강 하류쪽으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다.

"퇴각하라!"

배들이 일제히 머리를 돌려 하류로 향했다. 이에 오군(吳軍)은 신바람이 나서 월군(越軍)뒤를 추격하며 쉴 새 없이 화살을 퍼부어댔다.

월군(越軍)은 다급했다.

자기네 배끼리 서로 부딪쳤다.

월군 장수 영고부가 탄 배가 가장 먼저 뒤집혔다. 영고부(靈姑浮)는 물 속에 빠진 채 헤어나지 못했다. 선봉장 서안(胥犴)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오군(吳軍)은 승세를 놓치지 않고 월(越)나라 군사를 마구 쏘아죽였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7)

겨우 포위망을 뚫고 목숨을 구한 월왕 구천(句踐)은 고성 땅에 이르러 육지로 올라왔다. 하지만 오군(吳軍)의 추격은 더욱 거셌다. 그들은 고성(固城) 땅을 겹겹이 포위하고 성안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를 모조리 끊어버렸다.

뒤늦게 오자서의 병이 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책이었음을 안 오왕 부차(夫差)는 몹시 기뻐했다. 오자서가 고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 자신도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고성으로 달려왔다.

"과연 경(卿)은 천하 영걸이오."

오자서(伍子胥)가 허리를 숙이며 사죄했다.

"본의 아니게 왕을 속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나부터 속여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았소. 그나저나 언제쯤이면 월왕을 무릎꿇게 할 수 있겠소?"

"열흘 안에 월왕(越王)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열흘이오?"

"고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줄기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열흘이 지나면 저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자서(伍子胥)는 알지 못했다.

고성 안에는 낮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영천(靈泉)이란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것을.

열흘이 지나도 고성(固城)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자서가 이상하게 여길 때 성 안에서 사자가 나왔다. 오자서(伍子胥)는 이제야 항복 사자가 왔나보다 싶어 얼른 그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사자가 내민 것은 항복 문서가 아니라 방금 잡은 듯한 싱싱한 물고기였다.

비로서 고성 안에 샘물이 있음을 안 오자서(伍子胥)는 다시 고성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구천(句踐)은 이미 사흘 전에 고성을 빠져나간 뒤였다.

그 무렵.

월왕 구천(句踐)은 회계산에 도착하여 패잔병을 점검하고 있었다.

회계산은 지금의 절강성 소흥현 동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당시 월나라 도성인 제기(諸暨)와 매우 가까웠다.

남은 병사는 5천여 명.

그나마 부상자가 반 이상이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오군에게 반격을 가할 수가 없었다. 월군(越軍)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월왕 구천(句踐)은 침통한 표정으로 탄식했다.

"내가 범려와 문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또 급보가 날아들었다.

- 고성을 함락시킨 오자서(伍子胥)가 회계산으로 진격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구천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자신도 모르게 군사 범려를 돌아다보았다.

살아날 계책을 마련해보라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범려(范蠡)가 못 본척 입을 다물고 있자 구천(句踐)이 다시 말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나가는 사람에게는 경(卿)으로 삼아 월나라의 국정을 함께 논의하리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범려(范蠡)가 보다 못 해 한마디 던졌다.

"장사를 잘하는 상인은 여름에는 가죽을 사들이고 겨울에는 홑옷을 사며, 가뭄이 들 때는 배를 사고 장마가 질 때는 수레를 사두어 물건이 모자랄 때를 기다립니다. 왕께서는 우환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내다가 회계산에 갇힌 뒤에야 모신(謫臣)을 구하니, 이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야유였으나 구천(句踐)은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대의 말을 듣는다면 아주 늦은 것이 아니질 않소?"

구천이 이렇게까지 몸을 낮추며 애걸하자 범려(范蠡)는 그제야 입을 열어 아뢰었다.

"우리 나라가 종묘사직을 보존하는 길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구천의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스쳐갔다.

"오(吳)나라에 예물을 보내 화평을 청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는 오왕 합려를 죽인 바 있소. 우리가 화평을 청해도 저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찌 오?"

"오자서와 협상하면 당연히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나라 태재 백비는 재물과 여색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비(伯嚭)는 지금 오자서를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환심을 사면 화평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백비가 우리 뜻에 동조한다 해도 오왕 부차(夫差)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질 않소?"

"만일 오왕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왕께서 스스로 볼모가 되어 그를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월(越)나라 사직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영원히 오(吳)나라에 대해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 왕을 인질로 내주고 나라를 보존한다.

물론 최악의 경우이겠으나 이만저만 상식을 초월한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당장에 목을 베도 그 만일 정도로 불충한 발언이었다.

구천(句踐)은 놀란 눈으로 범려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구천의 눈은 이렇게 질타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려(范蠡)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었다. 정면으로 구천의 눈길을 마주 받았다.

그런 그의 눈동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월나라 사직의 신하입니다.'

잠시 군신(君臣)간에 강렬한 눈싸움이 이어졌다. 눈길을 먼저 피한 것은 월왕 구천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종소. 협상에 임하겠소."

범려(范蠡)는 스승이자 동료 대부인 문종(文種)을 불러 협상 준비를 부탁했다. 도성인 제기로 사람을 보내어 백옥 20쌍과 황금 1천 일(鎰). 그리고 미인 여덟 명을 데리고 왔다.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문종(文種)은 밤의 어둠을 이용하여 오나라 진영으로 갔다.

그는 은밀히 백비의 영채를 찾아갔다.

백비(伯嚭)는 잠자리에 들러다가 월나라 측에서 사자를 보내왔다는 말에 고개를 가웃했다.

'어째서 이런 밤중에 나를 찾아왔을까?'

그는 수하 군사에게 물었다.

"혼자 왔더냐?"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자 여덟 명과 함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비(伯嚭)의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입가에는 이내 한 가닥 미소가 떠올랐다.

'옳거니. 이는 필시 월(越)나라가 화평을 청하려는 것이로구나.'

백비의 예상은 정확한 것이었으나, 그의 입가에 서린 웃음에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는 오(吳)나라로 망명한 이후 줄곧 오자서의 그늘에 가려왔었다.

대외정책이라든지 전쟁에는 오자서가 한 수 위였다. 그는 이것이 못내 불만이었다.

- 오자서(伍子胥)만 권세를 누릴 것인가.

그는 호시탐탐 오자서를 제치고 국정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2년 전 오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越)나라를 침공했던 것도 오로지 공을 세워 자신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아쉽게도 그 전쟁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오왕 합려까지 부상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

그 뒤 백비는 많이 위축되었다.

이번 월나라 정벌은 그에 대한 복수전이었다.

오자서(伍子胥)가 입안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다.

- 이제 마지막 공세만 취하면 월왕 구천(句踐)은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판이다.

오자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공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었다.

백비(伯嚭)는 시기하는 마음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 그 공을 내 것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뜻밖에 월(越)나라 사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백비는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켰다.

'좋은 기회다.'

섬광 같은 것이 스쳐갔다.

그는 자신의 주도하에 이 전쟁을 마무리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렇다. 내가 월왕 구천의 항복을 유도하면.....'

모든 공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누가 뭐래도 이번 전쟁의 일등공신은 자기가 되는 것이다.

백비(伯嚭)는 마음을 정하자 월(越)나라 사자를 들어오게 했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8)

월(越)나라 대부 문종(文種)은 몸을 잔뜩 낮춘 채 들어와 백비(伯嚭)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백비(伯嚭)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월(越)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사람은 이익에 밝다. 교활하기도 하지만 다루기도 쉽다.

문종(文種)은 한껏 공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태재께서는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월(越)나라는 우리 나라 왕을 죽인 불공대천의 원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네 나라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냐?"

백비의 언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만했다.

하지만 문종(文種)은 속으로 더욱 기뻐했다. 이런 자일수록 대화를 나누기가 수월한 것이다.

"우리 나라 임금 구천(句踐)은 워낙 아는 것이 없어 그간 오(吳)나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왕께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시고 오나라 충복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왕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두려워 먼저 공덕이 높고 오나라 간성(干城)이신 태재께 이 미천한 하신(下臣)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잘것 없으나 여기 조그만 물건을 가져왔으니 부디 태재께서는 받아주시고 우리 월(越)나라의 일을 오왕께 말씀드려주십시오."

문종(文種)은 가지고 온 미인 여덟 명과 물품 명단을 백비에게 바쳤다.

백비(伯嚭)는 자신의 예상대로 월(越)나라가 화평할 마음이 있음을 알고 더욱 기뻐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위엄있는 표정을 지으며 꾸짖었다.

"월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때가면 월나라 물건이 모두 오나라 것이 될 터인데, 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시시한 것들을 받을 것인가? 너는 나를 너무 우습게 알았다!"

문종(文種)은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태재께서 월(越)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월나라가 패하긴 했지만, 아직 회계산에는 5천 정병이 남아 있습니다. 장차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귀국 군사와 싸우면 어찌 쉽게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싸워서 질 경우에는 성안의 모든 보물을 불살라버리고 초(楚)나라로 달아날 터인데, 어찌 그것이 오나라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吳)나라가 여기서 더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 월나라도 망하겠지만, 오나라 또한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반대로 이번 화평이 성립된다면 오(吳)나라는 우리 월(越)나라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재께서는 일등 공훈에 오르시게 되며 나라 일을 태재의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태재께서 이번 화평에 힘써만 주신다면, 저는 우리 나라로 돌아가 왕의 딸을 왕께 바칠 것이요, 대부의 딸을 대부에게 바칠 것이요, 사(士)의 딸을 사에게 바치겠습니다."

문종의 모든 말이 바로 백비가 노리는 바가 아닌가.

백비(伯嚭)는 흐뭇한 마음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그대의 왕은 정녕 우리 오(吳)나라를 섬길 마음이 되어 있는가?"

"어찌 이런 중대한 일을 미천한 하신(下臣)이 마음대로 지껄이겠습니까. 지금의 모든 약속은 우리 왕께서 친히 저에게 내리신 말입니다. 태재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오와 월 두 나라를 모두 장악하십시오."

백비(伯嚭)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대가 오자서(伍子胥)를 찾아가지 않고 특별히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월(越)나라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내 어찌 그런 그대의 마음을 저버릴 수 있을 것인가. 내일 날이 밝으면 마땅히 그대를 데리고 왕께 가 화평을 주선하리라."

백비(伯嚭)는 문종이 가져온 보화와 미인들을 자기 군막에 숨기고 그를 자기 영중에 머물게 했다. 다음날이었다.

백비(伯嚭)는 문종과 함께 오왕 부차에게 가 월나라가 화평할 의사가 있음을 아뢰었다.

지난 2년간 한시도 부왕 합려의 죽음을 잊은 적이 없는 부차(夫差)는 백비의 말을 듣자마자 눈꼬리부터 치켜올렸다.

"월(越)나라는 나의 철천지원수다. 내 어찌 원수와 화평을 맺을 것인가!"

그러나 이미 백비(伯嚭)는 부차를 설득할 말을 준비해왔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아뢰기 시작했다.

"왕께서는 지난날 손무(孫武)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군사는 흉기(凶器)이니 잠깐 쓸 뿐 오래 써서는 안 된다.' 월나라가 비록 우리에게 큰 죄를 지었으나, 이제 화평을 청하기 위해 신하를 보내 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본즉, 월(越)나라는 앞으로 몸종처럼 우리를 섬길 것이요, 왕의 딸은 왕에게, 대부의 딸은 대부에게, 사(士)의 딸은 사에게 바칠 것이라 합니다."

"월(越)나라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 종묘를 받들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께서 월나라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구천(句踐)은 종묘를 불태우고 처자를 죽이고 금과 옥을 강물에 던져버린 후 정병 5천 군사와 더불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사도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께서는 저들을 모두 죽이는 것과 월(越)나라의 땅과 재물과 여자를 얻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묘한 언변이었다.

부차(夫差)는 대답할 말을 잃었다. 아니, 속으로는 백비가 나서서 득이 많은 화평을 주선하고 있는 것이 고맙기까지 했다.

그는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누그러진 음성으로 물었다.

"월(越)나라 사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군막 밖에서 왕의 분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라 이르라."

이때 월나라 대부 문종(文種)이 군막 안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문종(文種), 무릎 걸음으로 들어가 머리를 조아리다.

짧지만 상당히 강렬한 대목이다.

군막이라고 했지만 왕이 거처하는 곳이니만큼 상당히 길고 넓었을 것이다. 그 긴 거리를 시종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군막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제37장 오월(吳越) 전쟁 (9)

월(越)나라 대부 문종(文種)의 무릎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질 때마다 피가 배어나왔다.

부차도 백비도 그 밖의 신료들도 그 핏자국을 보았다.

이윽고 문종(文種)이 부차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렸다.

부차(夫差)가 그를 향해 물었다.

"그대 임금 부부가 다 우리 오나라 신첩(臣妾)이 되겠다고 했는지?"

백비(伯嚭)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물론 문종(文種)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구천의 딸을 바치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부차(夫差)의 입에서는 엉뚱하게도 구천 부부 운운하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문종(文種)은 주춤했으나 이내 부차의 뜻을 알아들었다.

'아, 왕과 왕의 부인을 인질로 삼겠다는 뜻이로구나.'

그가 여기 오기 전 범려가 예상했던 최악의 경우가 현실로 닥친 것이었다.

문종(文種)은 망설였다.

어찌 대답할 것인가. 상황으로 보건대 월왕 구천을 인질로 내놓지 않는 한 부차(夫差)는 협상에 응할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 범려의 말대로 나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월(越)나라의 신하다.'

문종(文種)은 마음을 굳히고 다시 한 번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왕께서는 오왕의 신하가 되고 그 처는 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왕의 뜻에 달렸으니, 오로지 종묘사직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태재 백비(伯嚭)가 거들었다.

"구천(句踐) 부부는 우리 오나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월나라를 통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 오왕 부차(夫差)는 결심했다.

가슴이 뻗듯했다. 마침내 부왕 합려의 원수를 갚고 월나라를 오나라에 통합시킨 것이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문종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그대는 돌아가라. 가서 월왕에게 전하라. 전쟁은 끝났다고!"

그때 오자서(伍子胥)는 자신의 막사 안에 있었다.

심복 장수 하나가 급하게 들어오며 보고했다.

"지금 월(越)나라 사자가 왕을 알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평을 청하러 온 모양입니다."

오자서(伍子胥)는 대경실색했다.

이제 군사를 휘몰아 회계산으로 진격하면 영원히 월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데 화평이라니!

그는 혹시나 하여 부랴부랴 부차의 군막으로 달려갔다.

과연 군막 안에는 월나라 사자 문종(文種)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표정으로 보아 이미 협상을 마친 후인 것 같았다.

오자서(伍子胥)는 예를 올리는 것도 잊고 외쳐 물었다.

"왕께서는 월나라와 화평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소. 허락했소."

오자서가 부르짖었다.

"안 됩니다. 화평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외침 소리에 놀란 것은 월나라 대부 문종이었다. 그의 얼굴은 삼시간에 흠빛으로 변했다. 오자서(伍子胥)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거나 앓을까 두려워서였다.

오자서는 계속해서 험악한 어조로 간언을 올리고 있었다.

"바야흐로 하늘이 월(越)나라를 우리 오(吳)나라에게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라니요? 세 줄기의 강물(전당강, 오송강, 부춘강)이 오와 월을 둘러싸고 있어 이 곳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며, 오(吳)가 있으면 월이 있을 수 없고, 월이 있으면 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릇 우리가 북쪽 중원 땅을 쳐서 이긴다 해도 우리는 그 곳에서 살 수 없고 그들의 수레도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越)나라는 우리가 쳐서 이기면 곧바로 그 땅에서 살 수 있으며 그들의 배

도 탈 수 있습니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어찌 그런 이익을 버리려 하십니까? 더욱이 월(越)나라는 선왕을 죽인 원수입니다.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왕께선 선왕의 유언을 잊으셨습니까?"

오자서의 거센 반발에 오왕 부차(夫差)는 당황했다.

뭐라 대답할지 몰라 눈만 검벽이는데 태재 백비(伯嚭)가 앞으로 나서서 아뢰었다.

"재상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복종을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굴복하는데, 그것을 치는 것은 예(禮)가 아닙니다.

지난날도 우리 오(吳)나라는 월나라와 수로(水路)로 의(誼)를 맺고 진(晉)나라와는 육로로써 의를 맺은 바 있습니다."

"만일 오자서재상의 말처럼 오월이 동주(同舟)할 수 없다면 육로로 인접해 있는 진(晉), 진(秦), 제(齊), 노(魯) 여러 나라는 진작에 한 나라로 통합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안 되고 제노(齊魯) 동행은 된다는 말입니까."

"또 오자서(伍子胥)는 선왕의 원수이기 때문에 월(越)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자서는 자신의 원수국인 초나라와는 어찌하여 화평을 맺었습니까? 더욱이 그때의 화평조건이란 고작 공자 승(勝)을 돌려보낸 데 불과했습니다."

"지금 월(越)나라는 왕이 우리 나라로 들어와 종복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비교해도 어느 것이 유리합니까.

지금 오자서(伍子胥)는 충성을 빙자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는 왕에게 잔인하다는 평만 남겨줄 것입니다. 진실로 오(吳)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월(越)나라와의 화평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묘한 논리였다. 오왕 부차(夫差)는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띠었다.

"태재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오. 재상은 이번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과인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오."

오자서(伍子胥)는 기가 막혔다.

탄식과 분노의 불길이 가슴속에서 활활 타올랐다.

'지난날 내가 피이(被離)의 말을 듣지 않고 백비를 천거했는데, 아아 그가 비무극보다 더한 간신일 줄이야.'

오자서(伍子胥)는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며 막부를 나왔다.

마침 대부 왕손웅(王孫雄)이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자서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그에게 말했다.

"월(越)나라는 앞으로 10년이면 회복할 것이요. 다시 10년이면 크게 일어날 것이요. 그러므로 20년 안에 우리 오(吳)나라 궁성은 큰 못으로 변하고 말 것이오."

이를테면 예언이었으나 왕손웅(王孫雄)이 그 말뜻을 알아들을 리 없었다.

반면, 군막 안에 남아 있는 백비(伯嚭)는 속으로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었다.

'오자서(王孫雄)를 꺾었다. 이제 앞으로는 나의 시대다!'

부차(夫差)는 부차대로 자신의 위엄과 성덕을 펼친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되었다.

월나라 대부 문종에게 화평 조약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 그대는 돌아가서 화평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월왕(越王)에게 말하고 친히 나의 앞에 와서 무릎을

끓도록 하라.

며칠 후, 회계산 기슭에 높은 단이 세워졌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화평조약을 맹세할 제단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제단은 여느 회맹 때의 것과 많이 달랐다. 대등한 조건에서의 협정이 아니라 월(越)나라가 오(吳)나라를 섬기겠다는 항복 맹세인 것이다.

오왕 부차(夫差)는 높은 단 위에 앉았다.

월왕 구천(句踐)은 단 밑에 무릎을 꿇었다. 구천은 몸을 일으켜 계단을 올라가 친히 항복 문서를 부차에게 바쳤다.

부차(夫差)는 흡족했다. 타이르듯 구천에게 말했다.

"일찍이 나는 월나라의 모든 신료를 살육하여 부왕의 원수를 갚으리라 결심했었다. 그러나 그대의 신세가 너무 가련하여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이제 월(越)나라는 나의 영토가 되었다. 그대는 지난 죄를 깨닫고 신하의 신분으로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구천(句踐)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한다.

"대왕의 크신 은덕으로 목숨을 보존하였으니 어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제부터 평생토록 대왕을 모시며 함께 고락을 누리겠습니다."

이른바 '회계산의 치욕'이었다.

월왕 구천(句踐)은 마음속으로 이 수모와 굴욕과 울분을 잊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을 머금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다만 대왕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은 이미 대왕의 신하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지금 당장 대왕을 따라 오(吳)나라로

[列國誌] 2부 장강의 영웅들 (298)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1)

회계산(會稽山)에서 오왕 부차(夫差)에게 무릎 꿇고 항복한 월왕 구천(句踐)은 도읍인 제기(諸暨)로 돌아왔다. 시가(市街)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은 어둡고 백성들은 활기를 잃었다. 구천(句踐)은 왕궁 앞에 이르자마자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

"나는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월(越)나라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건만, 오히려 주초산에서 패하고 회계산에서 치욕을 당했도다. 이 어찌 통탄할 비극이 아닌가."

구천(句踐)의 주변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모든 신료가 함께 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았다. 망국의 왕과 망국민의 비통함이었다.

"아아, 이 몸은 천 리 먼 곳으로 볼모가 되어 떠나게 되었도다. 이제 떠나면 과연 언제 돌아올 것인가."

구천(句踐)의 애절한 하소연은 좀처럼 그치질 않았다.

어느 순간 한 신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구천 앞에 가서 섰다. 대부 문종(文種)이었다. 그는 눈물을 훔치고 비장한 어조로 간했다.

"왕이시여. 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옛날 은나라 시조 탕왕(湯王)은 하대(夏臺)에 수금되었고 주나라 문왕(文王)은 유리에 사로잡힌 바 있으나, 그들은 후에 다시 일어나 천자가 되었습니다."

"또 제환공(齊桓公)은 거나라로 달아났고, 진문공(晉文公)은 백적으로 망명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일어나 천하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역대의 위대한 왕과 패자(霸者)는 한결같이 괴롭고 어려운 역경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왕께서 부초산에서 패배를 당하고 회계산에서 굴욕적인 맹세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는 모두가 하늘의 뜻입니다. 남은 것은 지나간 간난(艱難)을 딛고 우뚝 서서어 대업을 이루는 일뿐입니다. 바라건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스스로 굳은 뜻을 세우십시오."

문종의 이같은 말에 구천(句踐)은 문득 생각을 바꾸었다.

흔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외쳤다.

"그대 말이 옳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결코 이 나라 사직을 포기하지 않겠소."

그 날부터 구천(句踐)은 나라일을 정리하여 오나라로 출발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부고에 있는 보물을 내어 수레에 실었다. 또 여자 330명을 뽑아 그 중 3백 명을 오왕 부차(夫差)에게 보내고, 나머지 30명은 태재 백비에게 보냈다.

그러는 사이 한 달이 후딱 지나갔다.

이제 며칠 후면 5월이다. 구천(句踐)이 인질이 되어 오나라로 떠나야 할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때맞추어 회계산에 주둔하고 있던 오나라 장수 왕손웅(王孫雄)으로 부터 독촉장이 날아왔다.

- 빨리 출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리러 가겠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종묘로 들어가 하직인사를 올렸다. 선왕들의 무덤을 찾아 일일이 참배했다.

이윽고 구천과 그 부인이 오나라를 향해 떠나는 날이 되었다.

구천(句踐)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왕궁을 나와 절강(浙江) 나루터로 향했다.

범려와 문종 등 모든 신료들이 인질이 되어 떠나는 왕을 전송하기 위해 그 뒤를 따랐다. 절강 나루에 당도했다. 구천(句踐)이 배에 올라타려고 할 때였다.

대부 문종(文種)이 술잔에 술을 채워 높이 쳐들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 하늘이시여, 우리 왕을 도우소서. 처음에는 괴로울지라도 후일엔 반드시 영광이 있게 하소서. 불행한 자로 하여금 덕(德)을 기르게 하시고, 근심 걱정을 복으로 변하게 하소서. 위세를 자랑하는 자를 망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에 복종하는 자를 번영케 하소서.

- 한 번 불행한 자에겐 다시 불행이 없게 하시고, 한 번 눈물을 흘린 자에겐 두 번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소서.

이어 그는 술잔을 구천에게 바치며 말했다.

"왕이시여, 부디 이 간난(艱難)을 헤치고 곳곳하게 서십시오. 오늘의 이 애간장 끊어지는 고통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 뜻에서 이 술잔을 바칩니다."

월왕 구천(句踐)은 문종이 바치는 고별 술잔을 받아들였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다가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들 눈이 붉어지며 고개를 외면했다.

대부 문종이 물러나오자 이번에는 범려(范蠡)가 앞으로 나섰다.

"왕이시여, 불행이 없으면 그 뜻을 넓힐 수가 없고 근심이 없으면 앞날을 멀리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자고로 모든 성현이 이런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왕께서는 부디 이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구천(句踐)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신하들이여, 나는 오늘의 일을 결코 피하지 않겠소. 다만 걱정되는 것은 내가 떠나고 없는 이 나라 사직이요. 옛날 요임금은 순(舜)과 우(禹)에게 나라일을 맡겼는데, 가뭄이 일어도 큰 피해가 없었고 황하가 범람해도 풍년이 일었다 하오."

"나는 이제 고국을 떠나며 이 나라 사직을 그대들에게 맡기는 바요. 특히 범려(范蠡) 그대는 이 나라 사직을 지켜나갈 중추요. 부디 나를 대신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키워 오늘의 이 치욕을 설치(楔齒)해 주시오."

이르테면 범려를 섭정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범려(范蠡)는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었다.

그는 양연히 고개를 쳐들고 아뢰었다.

"모름지기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이는 신하 된 사람의 치욕이며,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왕께선 적국으로 볼모가 되어 가시니 이는 바로 우리 신하들의 치욕입니다."

"어찌 월(越)나라에 왕의 근심을 함께 나눌 신하가 없겠습니까. 신은 일월(日月)에 맹세하오니, 왕을 따라 오(吳)나라로 가 우리 왕께서 겪는 치욕과 근심과 걱정을 함께 할까 합니다."

순간 나루터는 무거운 정적에 빠졌다.

'야!'

어느 누구도 범려(范蠡)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구천(句踐)은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가 나와 함께 오(吳)나라로 가면 누가 이 곳에 남아 월(越)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요?"

범려(范蠡)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한다.

"왕께서는 문종에게 나라일을 맡기십시오. 임금을 모시고 임기응변 하는 일은 신이 문종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위무하는 일은 문종(文種)이 신보다 잘 압니다."

"그는 왕께서 오나라로 가 계시는 동안 군량을 비축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백성들을 단결시킬 것입니다. 신은 왕을 모시고 오(吳)나라로 가 함께 간난을 이겨낸 후 다시 돌아와 문종(文種)이 비축해놓은 군량을 바탕으로 오나라에게 원수를 갚을까 합니다."

구천(句踐)은 자신을 따라 오나라로 가겠다는 범려의 각오에 다시 한 번 감격했다.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한참 동안 범려를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문종에게로 눈길을 던졌다.

"그대는 과인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가?"

"왕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 동안 신은 범려(范蠡)가 말한 대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비축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놓겠습니다. 왕께서는 부디 오늘을 잊지 마십시오."

대부 문종(文種)의 이러한 충성 맹세에 다른 대부들도 각기 앞으로 나서며 구천에게 맹세했다. 태재 고성(苦成)이 술잔을 들었다.

- 신은 임금의 명령을 백성에게 펴고, 임금의 덕(德)을 밝히고, 복잡한 것을 통합하고, 어려운 일을 다스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인(行人) 벼슬에 있는 예옹(曳庸)이 나섰다.

- 모든 나라 제후에게 사자를 보내어 여러 가지 분규를 해결하고, 서로의 의혹을 풀되 다른 나라에 가서는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맹세합니다.

사직(司直) 호진(皓進)이 나서서 아뢰었다.

- 신의 직분은 바른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종(文種)이 왕을 대신하여 잘못 행하는 일이 있으면 신은 직언으로써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의심나는 점을 판단케 하겠습니다.

사마 제계영(諸稽郢)이 맹세한다.

- 신은 1년을 하루같이 군사들과 함께하며 진법을 훈련하고, 활 쏘는 것과 칼 쓰는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2)

월왕 구천(句踐)이 배 위에 오르자 돛이 오르고 배가 움직였다.

구천과 범려(范蠡)는 난간에 서서 강변에 서 있는 신료들을 내려다보았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문득 구천(句踐)이 들릴 듯 말듯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나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루가 점점 멀어져 갔고, 이윽고 강변의 신료들은 하나의 작은 점이 되었다.

오(吳)나라로 향하는 뱃전에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새를 보라,

한 마리 수리로다.

빈 하늘을 가르는 것은 힘찬 날개짓.

모래톱에 모여 한가로이 노니는

힘찬 날개의 저 놀림이여,
 구름사이에 있구나.
 흰 새우를 쪼고 물을 마시고
 가고 오는 것을 마음대로 하도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
 이 땅을 떠나는가
 까닭을 모르겠다.
 하늘도 무심하구나.
 바람아 불어라 나는야 북쪽으로 간다.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기약할 수 없도다.
 괴롭고 괴로운 이 마음
 칼로 베는 듯하는데
 언제 이 눈물 그칠 것인가.
 월왕 구천의 아내인 월부인(越夫人)이 부르는 노래였다.
 구천(句踐)은 이 노래를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조용히 부인 곁으로 다가가 위로를 했다.
 "그대는 너무 슬퍼 마오. 나에게는 날개가 있소, 조만간 높이 날아오를 날이 도래할 것이오. 그때
 까지만 참으시오."
 월왕 구천(句踐)이 탄 배는 오나라 경계로 들어섰다.
 범려(范蠡)가 먼저 오성으로 들어가 태재 백비를 방문했다.
 그는 구천(句踐)이 당도했음을 알리고 황금과 여자를 바쳤다.
 백비(伯嚭)는 마치 자신이 오왕이 되기라도 한 듯 거만하게 물었다.
 "대부 문종(文種)이 오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가 왔는가?"
 "문종은 나라일을 정리하느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대 왕은 어디 있는가?"
 "오강 나루에서 태재의 분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백비는 범려를 따라 오강 나루터로 나갔다. 월왕 구천(句踐)은 백비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
 했다.
 "이렇게 목숨이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태재 덕분입니다."
 백비(伯嚭)는 구천의 공손한 태도에 마음이 흡족했다.
 "기회를 보아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힘써주겠소."
 구천(句踐)은 압송되는 형식으로 함거를 타고 오성으로 들어갔다.
 오나라 중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왕 구천은 상반신을 발가벗고 무릎걸음으로 기어가 궁 뜰 아
 래 꿇어 엎드렸다.
 월부인(越夫人)도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 범려는 따로이 시종에게 월(越)나라에서 가져온 보
 물과 여자의 명단을 바쳤다.
 오왕 부차(夫差)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품 목록을 훑어본 후 입을 열었다.
 "내가 부왕의 원수를 갚기로 한다면 어찌 그대를 살려둘 수 있으리오만, 그대의 정성을 보아 특별
 히 목숨을 보존시켜주는 것이니 그대는 오(吳)나라에 대해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그자리에 오자서도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구천의 항복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간(諫)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활을 당겨 쏘거늘 하물며 뜰 앞에 앉아 있는 적을 어찌 그냥 버려두십니까? 구천(句踐)은 원래 속이 음험한 자입니다. 지금은 형세가 궁하여 가마솔의 고기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만, 목숨을 부지하고 한 번 뜻을 얻기만 하면 마치 바다로 돌아간 고래처럼 큰 파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왕께서는 구천의 간교함에 속지 마시고 지금 곧 목을 참하십시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 말에 구천(句踐)과 범려(范蠡)의 안색이 핏색해졌다.

오왕 부차(夫差)가 타이르듯 오자서를 향해 말했다.

"내 듣기로 항복한 자를 죽이면 그 재앙이 삼대에까지 미친다 하오. 내가 구천을 살려두는 것은 월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오. 우리에게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경(卿)은 아무 염려 마오."

태재 백비(伯嚭)가 오왕 부차(夫差)를 돕기 위해 한마디했다.

"오자서는 눈앞의 일에는 밝을지 몰라도 나라를 편하게 하는 법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왕께서는 오자서의 말에 과념치 마십시오."

오자서(伍子胥)는 턱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어찌랴. 부차의 마음이 이미 구천을 살려주기로 마음을 정한 것을.

부차(夫差)는 월왕 구천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그 조치라는 것이 구천에게는 여간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 선왕 합려의 능침이 호구산에 있다. 구천(句踐) 부부는 오늘부터 머리를 깎고 그 능침 옆에 있는 석실에 기거하면서 아침저녁으로는 능침을 돌보고 낮에는 말을 기르도록 하라.

합려 왕의 능지기 겸 목부(牧夫)로 삼은 것이었다.

그 날부터 구천(句踐)부부와 범려(范蠡)는 합려의 무덤으로 가 석실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때묻은 옷을 입고 냄새나는 말똥을 치웠다. 아침저녁으로는 무덤의 풀을 깎았다.

때때로 부차(夫差)는 구천을 불러 자신의 수레를 끄는 말고삐를 잡게 하여 거리로 행차하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다.

- 저 말고삐를 잡은 자가 월왕 구천이다.

그러나 구천(句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걷기만 했다.

한편, 오자서(伍子胥)는 범려가 유능한 인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오왕 부차를 찾아가 그를 오나라 신하로 삼을 것을 청했다.

부차(夫差)도 범려가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인 후 범려만 따로이 궁안으로 불러들였다. 무릎을 꿇은 범려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어진 여인은 망한 집으로 시집가지 않고, 현명한 사람은 망한 나라에서 벼슬하지 않는다 하였다. 덕 없는 구천(句踐)은 나라를 망치고 자기 신세까지 망쳐 노예가 되어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대는 종복도 없이 말똥 치우기가 비참하지도 않느냐? 만일 그대가 구천을 버리고 나를 섬긴다면, 나는 그대의 지난날 죄를 용서하고 그대를 높은 벼슬에 봉하리라. 나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없는가?"

그러나 범려(范蠡)는 머리를 조아리며 정중히 사양했다.

"망국의 신하는 정치를 말하지 않으며, 패장은 용맹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지난날 신은 충과 신과 지혜가 부족하여 능히 월왕(越王)을 돕지 못하고 오왕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다행히 대왕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듯 저희들을 석실에서 생활하게 하시니 신은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신이 부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오자서(伍子胥)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부차에게 재빨리 속삭였다.

"범려(范蠡)는 예사 인물이 아닙니다. 구천과 범려를 함께 있게 하면 무슨 흥계를 꾸밀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범려를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

부차(夫差)는 오자서의 말이 못마땅했다.

조금 전에는 범려를 등용하라고 청하더니, 지금은 죽이라고 하질 않는가. 그는 오자서가 늙었다고 생각했다.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소. 나를 섬길 뜻이 없다고 하니 그냥 석실로 돌아가게 합시다."

오자서(伍子胥)는 한숨을 내쉬며 궁을 나왔다.

범려(范蠡)는 다시 호구산 석실로 돌아왔다.

그는 전보다 더욱 구천(句踐)을 공손히 섬겼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월나라에 있을 때와 다를 없이 구천을 보살피고 돌보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오왕 부차(夫差)는 오자서의 말대로 혹시나 그들이 판뜻을 품지나 않을까 의심하여 측근 시자(侍者)를 보내 몰래 그들의 석실을 엿보게 했다.

오왕의 측근 시자는 호구산으로 가 밤새 석실을 엿탐했다.

그러나 구천(句踐)과 범려(范蠡)는 부지런히 말에게 먹일 풀만 썰 뿐 조금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먼동이 틀 때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다.

부차(夫差)는 오자서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리오. 그들이 수시로 태재 백비에게 뇌물을 바치며 궁중 내의 일을 소상히 알아내고 있었던 것을.

범려(范蠡)는 그 날 저녁에 이미 백비의 통보를 받고 엿탐꾼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3)

그날 밤이었다.

백비(伯嚭)는 구천(句踐)이 머물고 있는 석실로 사람을 보냈다.

- 조만간 귀국하게 될 것 같소.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덕분이니 월왕은 귀국하더라도 나에 대한 의를 저버리지 마시오.

월왕 구천(句踐)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기뻐했다.

"이것이 꿈이나 아닌지 모르겠소."

범려의 손을 붙들고 춤이라도 출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범려(范蠡)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모든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입니다. 신이 왕을 위해 점을 쳐보겠습니다."
 거북등이 없었으므로 시초(蓍草)점을 쳐보기로 했다.
 이내 사(辭)가 나왔다.
 사방이 막혀 벗어날 길이 없으니
 만물이 쇠하고 상하도다.
 좋은 일은 도리어 재앙이 될 것이니
 비록 소식이 있어도 기뻐하지 마라.
 군이 범려(范蠡)가 해석해주지 않아도 불길(不吉) 중의 불길이었다.
 구천(句踐)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 이상 나의 처지가 나빠질 것이 없는데 재앙이라니, 뭔가 잘못된 점이 아니오?"
 범려가 어두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오나라 조정에는 백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요?"
 "아마도 오자서(伍子胥)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범려의 말에 구천(句踐)은 방금 전의 기쁨과 기대감을 까맣게 잊었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절망과 수심으로 가득 찼다.
 범려(范蠡)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 시각, 오자서(伍子胥)는 부차가 구천을 귀국시킬 작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부리나케 궁으로 들어가 또 한바탕 피를 토하듯 외쳐대고 있었다.
 "옛날 하나라 걸왕(桀王)은 은나라 탕왕(湯王)을 잡아만 두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또한 은나라 주왕(紂王)은 주문왕(周文王)을 가두어만 두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나라를 내주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구천을 잡아만 두고 죽이지 않으니, 우리 오(吳)나라가 하(夏)나라나 은(殷)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왕께서 만일 구천을 이대로 가두어두거나 석방한다면 우리 오(吳)나라는 장차 하(夏)나라나 은(殷)나라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자서의 단언에 오왕 부차(夫差)는 자신도 모르게 모굴이 송연해졌다. 자신이 너무 감상적이었음을 깨달았다.
 "경의 말이 옳소. 내 어찌 구천(句踐)을 탕왕이나 주문왕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리오. 경의 말대로 내일 아침 구천을 불러 아예 죽여 없애겠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날 밤부터 오왕 부차(夫差)는 심하게 아팠다.
 설사가 나고 온몸에 열이 올랐다. 이 때문에 부차는 구천을 죽이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백비는 오왕 부차의 마음이 변한 것을 알았다. 석방은 커녕 오히려 구천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자 재빨리 심복 부하를 석실로 보냈다.
 - 오자서의 간교한 수작에 의해 우리 왕께서 월왕(越王)을 죽이기로 했소. 그대들은 이에 대한 방비를 신속히 강구하도록 하시오.
 이 소식은 구천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그는 어찌나 낙심했는지 울음조차 터뜨리지 않았다. 멍한 표정으로 범려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이윽고 힘없이 입을 열었다.

"이제 꿈쩍없이 죽게 되었구려."

그러나 범려(范蠡)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평소와 다른없는 태도를 취했다.

"왕께서는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오왕이 지난 2년여 동안 왕을 잡아 두고서도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아침에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날 밤 범려(范蠡)는 석실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본 후 구천(句踐)에게 말했다.

"신이 천상(天象)을 보니 월나라는 3년간 주인을 잃은 후 20년 후에 천하를 제패할 수(數)였습니다. 반면에 오(吳)나라는 20년 후에 나라가 망할 천수(天數)였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그 말에 구천(句踐)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다.

"내가 갇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것은 오로지 그대의 현명함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 후 다시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오왕 부차로부터는 아무런 명도 내려오지 않았다. 구천(句踐)은 언제 부차의 부름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 몰라 더욱 초조했다. 하루가 마치 1년 같았다.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다시 범려(范蠡)에게 물었다.

"어째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일까요?"

"백비의 부하 말에 의하면 오왕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길조이겠소. 아니면 흉조이겠소?"

혹 오왕 부차가 죽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서려 있는 물음이었다.

범려(范蠡)는 다시 시초 점을 쳐보았다.

점괘를 보고 난 범려가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오왕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되었습니다. 오왕의 병세는 3일 후부터 차도가 있을 것이요. 닷새 후에는 완쾌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왕께서는 이 기회에 오왕(吳王)을 문병하십시오."

"궁으로 들어가면 일찍이 의술을 배운 바 있다고 말한 후 오왕의 대변을 친히 맛보십시오. 병세를 물으면 3일 후부터 차도가 있을 것이요, 닷새 후에는 완쾌된다고 칭송하십시오. 그대로만 되면 오왕(吳王)은 크게 감동하여 왕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구천(句踐)은 대경실색했다.

오왕 부차의 똥을 맛보라니!

아무리 중복 노릇을 하는 불모라도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구천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눈물부터 흘렸다.

"나는 차마 그 짓은 못 하겠소."

"하셔야 합니다. 옛날 주왕(紂王)은 주문왕을 감금하고 그 아들 백읍고(伯邑考)를 잡아다 끓는 가마솥에 삶아서 주문왕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왕(周文王)은 원수를 갚기 위해 울음을 참고 살아죽은 자신의 아들을 먹었습니다."

"일시적인 굴욕을 참지 못하면 어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월(越)나라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루빨리 왕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범려의 설득에 월왕 구천(句踐)은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중소. 오왕의 똥을 먹겠소."

다음날 구천은 태재 부중(府中)으로 들어가 백비에게 청했다.

"듣자하니 오왕께서 병들어 누워 계시다 합니다. 청컨대 태재께서는 이 구천으로 하여금 오왕을 문병하고 그 병세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비(伯嚭)는 구천이 부차에게 잘 보이려는 줄 눈치챘다.

"그대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내 어찌 그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소?"

구천(句踐)은 그 날로 백비의 알선을 받아 부차가 누워 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구천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두 번 절을 올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대왕께서 병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후 신(臣) 구천은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신은 월(越)나라에 있을 때 용한 의원으로부터 의술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의 대변을 보면 대략 그 병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의 변을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부차(夫差)는 자신의 대변을 맛보겠다는 구천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크게 감동했다.

"그대가 나의 대변을 직접 맛보겠다는 말인가?"

"신은 이미 항복하여 대왕의 충복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의 병세를 짐작하는 일인데, 어찌 대변인들 피하겠습니까."

"놀라운 충성이로다. 내 그대의 희생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구나. 좋다, 병이 나으면 내 반드시 그대의 충성에 보답하리라."

그러고는 변통(便桶)을 가져오게 하여 대변을 보았다.

구천(句踐)은 변통을 앞으로 가져다 똥을 한움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신중하게 맛보기 시작했다. 이 광경에 궁안의 시자(侍者)들은 물론 부차까지도 코를 움켜쥐고 외면했다.

그러나 월왕 구천(句踐)은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똥 맛보기를 계속했다.

이윽고 그는 부차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臣) 구천은 대왕께 축하드립니다. 대변의 맛을

제38장 구천의 와신상담 (4)

과연 부차(夫差)의 병은 이틀 후에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나흘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싶게 깨끗하게 나았다. 부차(夫差)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없이 컸다.

그는 궁중 문대(文臺)에다 크게 잔치를 베풀고 신료들을 초청했다.

"오늘 나의 병이 낫게 된 것은 오로지 구천의 정성 때문이다. 내 구천과 함께 이 기쁨의 잔을 나누리라. 구천을 불러오라."

잠시 후 구천(句踐)이 궁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복장이 여전히 죄수 차림이었다. 부차(夫差)는 좌우 시자들에게 명했다.

"구천이 아직까지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 목욕을 시키고 새로 의관을 내주어 들게 하라."

구천(句踐)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겉으로는 거듭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체 시자(侍者)를 따라 욕탕으로 들어갔다. 새옷을 갈아입고 다시 부차 앞으로 나왔다.

부차(夫差)는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천의 손을 잡아끌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모든 신료에게 말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이다. 어찌 오래도록 욕될 수가 있겠는가. 과인은 장차 월왕의 죄를 용서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작정이다. 오늘 이 자리는 월왕을 위한 자리다. 모든 신하는 국빈에 대한 예(禮)로서 월왕을 대하라."

구천(句踐)으로서는 이 얼마나 기다리던 말이었던가. 그는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다.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부차를 섬기는 척했다. 부차 또한 수시로 구천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오자서(伍子胥)는 울화가 치밀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병상에서 일어난 부차의 흥을 꺾 수도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두 잔 술을 받아 마시고는 횡하니 일어나 문대(文臺)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런 오자서의 행동을 훔쳐보던 백비가 재빨리 부차에게 속삭였다.

"이런 기쁜 날에 오자서가 제멋대로 자리를 차고 나가버리니 참으로 불손한 행동입니다. 오자서(伍子胥)는 자신의 공훈을 믿고 너무 교만해진 듯합니다. 왕께서는 깊이 통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 역시 오자서의 교만함과 무례한 언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소."

잔치는 저녁때까지 이어졌다. 부차(夫差)는 백년지기를 대하듯 구천에게 자꾸 술을 권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얼큰히 취했다.

그러나 구천의 연극은 취중에도 계속되었다.

어느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오왕 부차를 위해 송수시(頌壽詩)를 읊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황왕(皇王)이 위에 계시니

그 은혜가 봄날의 햇살 같도다

어지심은 비할 데 없고

그 덕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름답도다,

그 덕(德) 영원하시고

그 수(壽) 만세를 누리소서

모든 나라 제후들

다 복종할지니

길이 오나라 다스리고

천하를 세우소서.

부차(夫差)는 한껏 취한 후에야 잔치를 파했다.

그는 여전히 흥겨웠다. 민가로 나가는 구천의 손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사흘 안에 그대를 월(越)나라로 돌아가게 해주겠소."

'안 된다. 구천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 날 밤 오자서(伍子胥)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게 구천과 범려의 치밀한 계획임을 확신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다.

날이 새자마자 오자서는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달려갔다.

부차(夫差)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오?"

오자서(伍子胥)는 절규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왕께서는 지난날 선왕의 죽음을 잊으셨습니까? 구천(句踐)은 온순하고 공손한 체하지만 그 속마음은 호랑이나 승냥이보다 더 음험하고 날카롭습니다. 귀에 단 소리는 왕의 몸을 망칠 것이요, 눈에 즐거운 웃음은 이 나라를 수렁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금 구천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충직한 말을 듣지 않고 교언(巧言)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면 이는 털을 숯불에 넣고서 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계란을 바위에 던지고도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부디 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그제야 부차(夫差)는 그가 구천의 일 때문에 온 것을 알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과인은 3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소. 그런데도 경은 나를 위해 위로의 말 한 번 해준 적이 없소. 이것은 경(卿)이 불충(不忠)한 신하라는 뜻이오. 또 경은 나를 위해 탕약 한 번 지어준 적이 없소. 이것은 경이 불인(不仁)한 신하라는 뜻이오. 불충하고 불인한 신하를 어디에 쓰겠소?"

"....."

"반면 월왕 구천(句踐)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천 리 먼 곳에 와 있으면서도 재물을 바치고 종노릇을 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스럽다는 뜻이오. 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내 변을 핏고도 추호도 과인을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소. 이는 그가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오."

불충하고 불인한 신하가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죽이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것 같소?"

오왕 부차(夫差)의 말을 들은 오자서(伍子胥)는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다시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 그리도 순진하십니까? 대저 호랑이가 몸을 낮추는 것은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이며, 승냥이가 몸을 움츠리는 것은 상대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왕(越王)은 우리 나라에 패하여 인질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가 왕의 변을 핏은 것은 그 맛이 달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왕을 잡아먹기 위한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면 우리 오(吳)나라는 장차 월(越)나라의 압제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경(卿)은 더 이상 속좁은 소리를 하지 마라.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도다!"

오자서(伍子胥)는 더 간해보았자 소용없음을 알았다.

"아아,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궁에서 물러나왔다.

제 38장 구천의 와신상담 (5)

BC 491년(오왕 부차 5년, 월왕 구천 6년), 구천(句踐)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국 월(越)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오나라로 잡혀가 부차의 종복 생활을 한 지 만 3년 만의 귀국이였다.

오나라 수도 오성(吳城)에서 월나라 수도 제기(諸暨) 사이에는 수백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수로가 아니면 서로 내왕할 수 없을 정도다. 한마디로 물의 나라였다.

그 중 대표적인 강이 오송강, 전당강, 부춘강이었다.

이들 세 강은 종으로 횡으로 수백 개의 지류를 형성하면서 오(吳)와 월(越)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었다.

월왕 구천(句踐)은 오성을 나와 육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늘날 회계만으로 흘러드는 부춘강가에 섰다. 하늘은 높고 밝았으며, 강은 깊고 맑았다. 이제 이 강을 건너 그 지류인 포양강(浦陽江)을 따라 내려가면 도읍인 제기(諸暨)다.

구천(句踐)은 강 건너 아름다운 고국 산천을 바라보았다.

감개무량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내가 지난날 이 곳을 떠날 때는 다시는 월(越)나라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듯 이 산천을 보게 될 줄이야!"

구천(句踐) 부부는 범려의 안내를 받아 배에 올랐다.

돛이 오르고 배가 강심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다. 부춘강을 건너 포양강을 거슬러올라갔다. 포양강 나루에는 이미 문종을 비롯한 월(越)나라 신하들과 백성들이 대거 영접 나와 있었다.

배가 당도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과 마중 나온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러 천지가 흔들릴 지경이었다.

그동안 구천을 대신하여 월나라를 다스린 문종(文種)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습니까. 왕께서는 결코 회계산의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입니다."

구천(句踐)도 문종의 손을 부여잡고 대답했다.

"회계산의 치욕을 내 어찌 꿈속에서인들 잊으리오. 내가 오늘날 살아 돌아온 것은 하늘이 내게 원수를 갚게 하려 함이오."

그러고는 천문에 밝은 범려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내가 언제 입성하면 좋을지 점을 쳐보시오."

범려(范蠡)는 즉석에서 시초 점을 쳐보았다.

범려가 사(辭)를 보고 나서 대답했다.

"내일 입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둘러 수레를 달리십시오."

감격의 시간이 지나자 구천(句踐)은 곧 수레에 올랐다.

포양강 나루에서 도성인 제기(諸暨)까지는 육로로 꼬박 하룻길이기 때문이었다. 구천의 수레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뚫고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일행은 밤새도록 달렸다.

수레는 다음날 정오 무렵에 제기에 당도했다. 도성 안으로 들어선 구천(句踐)은 가장 먼저 종묘로 달려가 자신의 귀환을 고하였다. 그러고는 궁으로 들어가 왕좌(王座)에 올랐다. 월나라는 방방곡곡 기쁨에 넘쳤다.

구천(句踐)은 조정 신료들에게 명했다.

귀국 후 첫 일성이었다.

- 도읍을 옮기리라!

그는 3년 전 회계산에서 오왕 부차에게 무릎 꿇고 항서(降書)를 바친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읍을 회계(會稽)로 옮겨 그 날의 굴욕을 잊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성 쌓는 일은 범려가 맡았다.

범려(范蠡)는 회계 땅으로 달려가 천문을 보고 지리를 살핀 후 회계산 주변으로 큰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것이 곧 월나라의 새도읍인 회계성(會稽城)이다.

그는 또 회계성 서북쪽의 와룡산에 비익루(飛翼樓)를 세우고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천문(天門)'이라 이름하였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동남쪽에는 하수구를 내어 지호(地戶)를 상징케하는 한편 크고 견고한 성곽을 쌓았다. 하지만 비익루가 있는 와룡산에는 일절 성벽을 쌓지 않았다.

범려(范蠡)는 군사들을 시켜 와룡산에 성벽을 쌓지 않은 이유를 널리 퍼뜨리게 했다.

- 우리는 오(吳)나라를 섬기는 나라다. 서북쪽에 성벽을 쌓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오나라로 공물을 보내는 데 몹시 불편하다. 하늘로 통하는 문에 어찌 벽을 쌓을 것인가.

이 소문은 오나라 세작들을 통해 오왕 부차의 귀에도 전해졌다.

부차(夫差)는 구천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가 이 같은 소문에 접하자 매우 만족했다.

- 과연 구천은 나를 섬기는 마음이 시종여일(始終如一)하구나.

그러나 범려(范蠡)가 와룡산에 성벽을 쌓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후일 오(吳)나라를 칠 때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아놓은 것이었다.

회계성(會稽城)이 완공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보니 회계성 뒤편에 난데없이 산 하나가 솟아 있었다. 주위 둘레만도 수십 리가 되는 산이었다.

그 모양은 마치 거북이 엎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초목도 무성했다. 회계성(會稽城)을 쌓으며 나온 흙무더기에 나무를 심은 것이겠으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간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과장되이 말했다.

"이 산은 제나라 낭야 땅에 있는 동무산(東武山)이 아닌가. 어찌 하룻밤 사이에 동무산이 이 곳으로 날아왔는지 모르겠도다!"

범려는 본래 제(齊)나라 사람이다.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 이곳 저곳 유랑하다가 남쪽 월(越)나라에 와서 정착하여 관직에 올랐다. 그러므로 그가 고향 땅에서 자주 본 동무산의 형상을 그 곳에 재현시키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동무산(東武山)을 본떠 만든 그 산이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산이 날아온 것'으로 소문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 그것은 범려(范蠡)가 노린 바이기도 했다.

그는 월왕 구천(句踐)에게 그 소문을 고했다.

"신이 성을 준공하자 하늘이 이에 응하여 난데없이 산을 솟게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월(越)나라가 장차 천하 패권을 잡을 징조입니다."

구천은 기뻐하며 그 산을 괴산(怪山)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 산을 비래산(飛來山), 혹은 구산(龜山)이라고 불렀다.

범려(范蠡)는 다시 비래산 위에 영대(靈臺)라는 대(臺)를 세우고 그 위에 3층 누각을 지어 마치 신령스런 짐승이 오나라를 노리고 있는 듯하게 꾸몄다. 이렇듯 그는 회계성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오(吳)나라와 연관시켜 꾸몄다.

제 38장 구천의 와신상담 (6)

성곽과 도로와 궁성이 갖추어지자 월왕 구천(句踐)은 제기 땅을 떠나 회계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회계성(會稽城)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몹시 견고했다.

구천(句踐)은 만족하여 궁성을 둘러본 후 범려를 치하했다.

"경이 없었더라면 과인은 지금까지도 오(吳)나라에서 말뚝을 치우고 있었을 것이요. 진실로 내가 돌아온 것은 그대 덕분이요."

구천(句踐)은 내전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잠자는 방 안의 구조가 눈에 익었다. 왕의 침실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웅색했다. 영문을 알지 못한 구천이 범려를 돌아보았다.

범려(范蠡)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왕께서는 지난날 호구산 석실에서 고생하시던 때를 잊지 마시고 부디 월(越)나라를 재건하여 오나라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십시오."

구천(句踐)은 범려의 뜻을 알았다. 그의 손을 움켜잡고 대답한다.

"과인은 오로지 경(卿)의 가르침에 따를 뿐이요."

이 날부터 월왕 구천의 고난스런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오(吳)나라에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가혹하게 다뤘다. 그는 자정이 넘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잠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찔렀다. 겨울에 발이 시리면 오히려 찬물을 가져다 발을 담그고 자신을 꾸짖었다.

- 구천아, 구천아. 너는 오(吳)나라에서 당한 굴욕을 잊었느냐.

여름이면 방 안에 화로를 갖다놓고, 겨울이면 얼음을 품속에 끼었다. 또 그는 침상 위에 폭신한 보료를 깔아놓는 대신 쉼나무를 깔아 그 위에 누웠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온몸을 쏘서댔다.

등이 배겨 견딜 수 없으면 스스로를 또 심하게 질책했다.

- 구천아, 구천아. 네가 호구산 석실에서 잘 때 이보다 편했느냐!

침상 위에는 곰 쓸개를 매달아놓았다.

쓸개는 몹시 쓰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허를 댈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구천(句踐)은 쉼나무 침상에 눕기전에 한 번, 일어날 때 한 번 그 쓸개를 핥았다. 도저히 써서 핥기가 고통스러울 때는 고개를 쳐들어 자신을 향해 꾸짖었다.

- 구천아, 구천아. 네가 핥은 부차의 똥 맛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말이 있다.

와신(臥薪)은 '쉼나무 위에 눕다' 라는 뜻이다.

상담(嘗膽)은 '쓸개를 맛보다' 라는 뜻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한다는 뜻의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구천(句踐)은 잠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때로는 소리없이 흐느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갈며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가 어찌나 빠드득 이를 갈았는지 구천의 이는 모두 으스러졌다고 한다.

월왕 구천(句踐)은 자신에게만 엄격했던 것은 아니다.

나라의 신료들과 백성들에 대해서도 엄한 법령을 적용했다. 춘추시대를 기록한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인 <국어(國語)>를 보면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젊은 남자는 늙은 여자를 아내로 삼지 못하게 했다.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지 못하게 했다. 튼튼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여자가 열일곱 살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는다면, 남자가 스무 살이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그 부모까지 처벌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여자는 스무 살에 시집을 가고, 남자는 서른 살에 장가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구천(句踐)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관례를 깨고 조혼(早婚)을 강요한 것이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국어(國語)>는 기록하고 있다.

여자는 해산이 임박하면 관가에 신고해야 했고, 관가에서는 의원을 파견하여 애를 낳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돌봐주었다. 그리하여 아들을 낳으면 산모에게 술 한 병과 개 한 마리를 잡아주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술 한 병에 돼지 한 마리를 주어 산모를 보양시켜 주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유모를 보내주었고 쌍둥이를 낳으면 양식을 보태주었다. 적자(嫡子)가 죽으면 그 집은 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주었고, 서자(庶子)가 죽으면 석 달 동안 부역을 면제해주었다.

법령만 엄격하게 편 것은 아니었다.

구천(句踐)은 애정과 사랑과 인의로써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

사람이 죽으면 친히 그 집에 행차하여 조문하고 슬퍼하기를 마치 친아들처럼 했다. 고아, 과부, 병자, 빈약자의 자식들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가르치고 먹여주었다.

뛰어난 사인(士人)들에게는 깨끗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훌륭한 의복을 주고, 음식을 넉넉히 제공해 마음놓고 도의(道義)를 갈고 닦을 수 있게 했다.

궁성 밖으로 나갈 때는 수레 뒤에다 음식을 실어 거리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며 반드시 그 이름을 물어보았다.

농사 때가 되면 친히 들에 나가 밭을 갈았다.

월부인(越夫人) 또한 늘 베틀에 앉아 베를 짜다. 구천 부부는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했다. 자신이 몸소 심은 것이 아니면 먹지 않고, 직접 짠 옷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이렇게 7년 동안 구천(句踐)은 와신상담을 하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에 맞추어 문종(文種)은 나라 살림을 다스리고, 범려(范蠡)는 군대 양성에 온 힘을 쏟았다.

구천(句踐)은 오왕 부차에 대해서도 지극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는 오나라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술책이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오(吳)나라로 사자를 보내어 부차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다. 그때마다 월나라에서 나는 특산품을 수레 가득히 실러보냈다.

오왕 부차(夫差)는 이러한 구천의 지극한 충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지난날 빼앗은 월 땅을 도로 구천에게 돌려주었다. 이리하여 월(越)나라는 동으로는 은(鄞), 서로는 고멸(姑蔑), 남으로는 구무(句无)에 이르고, 북으로는 어아(禦兒) 땅에 이르러 사방 8백 리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구천(句踐)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나무로 만든 배 10척과 갈포(葛布) 10만 필, 꿀 1백 병, 호피(虎皮) 5쌍을 부차에게 바쳤다.

"착하구나, 구천이여!"

부차(夫差)는 너무나 기뻐 구천에게 의관을 우모(羽毛)로 장식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우모로 장식

한 의관은 제후만이 착용할 수 있다.

그 무렵, 오나라 조정의 실권은 오자서에서 백비에게로 옮겨가 있었다. 월왕 구천의 귀국 문제로 인해 오자서(伍子胥)는 부차와 사이가 멀어졌고, 대신 백비가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월나라에 대해 부차의 인정이 관대해지자 오자서(伍子胥)는 아예 병들었다 핑계하고 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나는 것은 태재 백비뿐이었다.

제 38장 구천의 와신상담 (7)

어느 날, 오왕 부차(夫差)가 태재 백비를 불러 말했다.

"이제 사방이 안정되고 나라가 태평하니 과인은 큰 궁궐을 짓고 편히 즐기고자 하오. 놀기 좋은 궁궐을 지을 만한 곳이 없을까?"

백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신이 살펴보건대 우리 오나라에는 풍광이 좋기로 고소산(姑蘇山)만한 곳이 없습니다. 고소산에는 이미 부왕인 합려께서 궁궐을 지은 바 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작아 왕께서 즐기실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전의 고소산 궁궐을 헐어버리시고 그 터에 새로이 커다란 고소대(姑蘇臺)를 지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도다. 내 고소산에다 1백 리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이에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소대(姑蘇臺)를 지어 인간 세상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리라!"

얼마 후, 오(吳)나라 전역에는 고소대를 짓기 위한 큰 목재를 구한다는 현상이 나붙었다.

이 소식은 월(越)나라 신하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월나라에는 재상 범려 외에 또 한 명의 모신(謨臣)이 있었다. 다름 아닌 내정 담당관 문종(文種)이었다.

- 높이 나는 새는 맛있는 과일을 탐하다 죽게 마련이고, 깊은 못 속에 사는 고기는 좋은 미끼를 욕심내다가 죽는 법이다. 내 어찌 이런 기회를 놓칠 것인가.

그는 오나라를 망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범려와 의논한 후 함께 월왕 구천을 찾아가 아뢰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吳)나라에 대해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번에 오왕 부차(夫差)가 고소산에 커다란 궁궐을 짓는다고 하니, 왕께서는 그들이 좋아할 물품을 보내시어 오왕의 목숨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구천(句踐)이 물었다.

"우리가 목재를 보내는 것과 부차의 목을 취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소?"

"신은 그동안 오(吳)나라에 대해 원수를 갚기 위해 일곱 가지 방법을 강구해두었습니다."

문종(文種)은 그 방법을 구천에게 조목조목 설명해주었다.

첫째, 재물을 보내어 오(吳)나라 임금과 신하들을 기쁘게 해준다. 이는 그들을 방심케 하는 것이다.

둘째, 수시로 오(吳)나라에 곡식을 꾸어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그들의 창고를 비게 하는 것이다.

셋째, 아름다운 미인을 보내어 오나라에 바친다. 이는 부차의 마음을 흐리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훌륭한 목공과 목재를 보내어 화려한 궁궐을 짓게 한다. 이는 오(吳)나라 재물을 탕진케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지혜 있는 신하를 오나라로 파견한다. 이것은 오나라에 난(亂)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오나라의 충신들을 궁지에 몰아넣어 은퇴시키거나 자살하도록 한다. 이는 부차(夫差) 주위에서 인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일곱째, 그 사이 월(越)나라는 재물을 저축하고 군사를 조련한다. 이는 대군을 몰아 오(吳)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미 우리는 첫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부차(夫差)가 고소산에다 궁궐을 지을 마음이 있다고 하니 이제 바야흐로 넷째 방법을 쓸 때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재를 구해 오나라에 바치면 부차는 궁궐 짓는일에 박차를 가할 것이요, 그러면 그만큼 그들의 재물은 일찍 바닥날 것입니다. 왕께서는 주저치 마시고 궁궐 짓는데 맞춤형 목재를 구해 오(吳)나라로 보내십시오."

"좋도다, 그대의 말이여. 오나라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내 무엇을 주저하고 아까워하리오."

구천(句踐)은 곧 목공 30명을 골라 남쪽 울창한 산으로 들여보냈다.

목공들이 산 속을 뒤질 때 문득 눈앞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나무 모두 둘레가 20 아름이 넘었고, 높이는 50길에 달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선 것은 노(櫟)나무였고, 그늘진 곳에 선 것은 남(楠)나무였다.

목공들조차 그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았다.

그들은 구천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구천(句踐)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하늘이 우리 월(越)나라를 위해 신목(神木)을 보내주셨구나."

그러고는 친히 그 산으로 가 두 나무에게 제사를 지낸 후 목공들을 시켜 베게 했다. 목공들은 나무를 깨끗이 다듬고 손질했다. 그런 후에 오색이 영롱한 용과 봉황을 그려넣었다.

문종(文種)은 큰 배에 그 목재를 싣고 강을 건너 오성으로 들어갔다.

"동해의 천신(賤臣) 구천이 우연히 큰 목재를 얻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쓸 수 없어 대왕께 바칩니다."

부차(夫差)는 문종이 가지고 온 목재를 보고 입이 크게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伍子胥)가 황급히 달려와 간했다.

"옛날 걸왕은 영대(靈臺)를 짓고 주왕은 녹대(鹿臺)를 지었다가 결국 재물만 탕진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구천이 이런 목재를 보낸것은 우리 오나라를 해치려는 수작입니다. 받지말고 돌려보내십시오."

부차(夫差)는 자신의 흥취를 깨는 오자서가 미웠다.

"구천(句踐)은 자신이 이 목재를 사용할 수도 있건만 일부러 과인에게 보냈소. 어찌 그 호의를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부차는 오자서가 보는 앞에서 태재 백비를 불러 고소산에다 고소대(姑蘇臺)를 지으라 명했다.

공사가 시작되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였다. 월(越)나라에서 바친 두 개의 목재에 걸맞는 궁궐을 짓느라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커진 것이었다.

고소대(姑蘇臺) 공사는 무려 5년이 걸렸다.

높이가 3백 장(丈)이요, 넓이가 84장(丈)이었다.

1장(丈)은 10척이요, 당시의 1척은 약 23cm이니 3백 장이라면 700m에 가까운 높이였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 과장도 섞여 있으리라.

이 거대한 공사를 마치기 위해 오(吳)나라 백성들은 밤낮 없이 중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죽고 부상당한 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고, 그 원망은 하늘에 닿을 듯했다.

제 38장 구천의 와신상담 (8)

월왕 구천(句踐)은 고소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월나라의 양대 동량(棟樑)이라 할 수 있는 범려와 문종을 불러들였다.

"이제 일곱 가지 계책 중 첫째와 넷째를 실행에 옮겼소. 다음은 어떤 계책을 쓰는 것이 좋겠소?" 이번에는 범려(范蠡)가 안을 내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오왕 부차(夫差)가 고소대를 지었다는 것은 곧 놀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미인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미인계(美人計)를 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미인들을 부차에게로 보내지 않았소? 새삼스레 미인계라니, 그 뜻을 잘 알 수 없구려."

"지금까지 보낸 여인들로는 미인계라 할 수 없겠지요. 옛날 유씨씨(有施氏)는 걸왕에게 말희(妹喜)를 보내 하왕조를 종식시켰고, 유소씨(有蘇氏)는 달기(妲己)를 주왕에게 보내 은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낼 미인은 바로 이 정도의 미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어찌 쉽게 구할 수 있으리오?"

"우리 월(越)나라는 예부터 색향(色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미인이 많습니다. 왕께서는 신에게 동자(童子) 1백 명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신은 관상 잘 보는 자 1백 명을 뽑아 그 동자들과 조를 이루어 두루 국내를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발견된 미인들을 대상으로 신이 직접 확인하면 어찌 경국지색(傾國之色)을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종고 종도다!"

이때부터 월(越)나라 각지에서는 미인 뽑는 일로 부산했다.

반 년쯤 지나자 동자와 관상가로 구성된 1백 조의 채홍사(採紅使)로부터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모두 2천 명의 미인이 추천되었다.

이 일을 관장하는 범려(范蠡)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내려가 추천된 미인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리하여 다시 50명을 선발하고,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 마침내 두 명의 미인을 뽑았다.

- 서시(西施)와 정단(鄭旦).

범려가 최종적으로 낙점한 여인들의 이름이었다.

서시(西施)는 저라산 아래에 사는 어느 초부(樵夫)의 딸이었다.

저라산은 지금의 절강성 저파시 근처에 있는 산이다. 회계성에서 동쪽으로 2백여 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원래 저라산 밑에는 동촌(東村)과 서촌(西村)이라는 두 마을이 있었다. 그 곳은 시씨(施氏)의 집성촌이었다.

최종적으로 뽑힌 두 여인은 공교롭게도 둘 다 서촌 태생이었다.

한 여인은 서촌(西村) 토박이이고, 다른 한 여인은 외지를 떠돌다가 그 곳에 정착한 사람의 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토박이 여인을 서시(西施)라고 불렀고, 다른 한 여인을 정단(鄭旦)이라 하였다. 서시란 서촌에 사는 시씨(施氏)라는 뜻이요, 정단이란 정나라에서 온 단씨(旦氏)라는 뜻이다.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자색을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그 녀들은 구용강(句勇江)가의 이웃에 살았다. 두 여인은 매일 함께 강가로 나가 빨래를 했다. 맑은 강물에 비친 두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마치 한 쌍의 부용(芙蓉) 같았다.

범려(范蠡)는 구용강가에서 빨래하는 두 여인을 보고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망설임 없이 두 여인을 데리고 회계성으로 돌아왔다.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은 월(越)나라 최고의 미인을 구경하기 위해 만사 제쳐놓고 모여들었다. 그 바람에 범려와 두 여인이 탄 수레는 길이 막혀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때 범려(范蠡)는 한 가지 꾀를 내었다.

'두 여인의 미모도 확인하고 국고(國庫)도 충당하자.'

범려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을 교외 별관으로 데리고 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 미인을 보고자 원하는 사람은 이 궤에다 금전 1문(文)씩 넣되, 만일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도로 가져가라.

백성들은 앞다투어 궤 속에다 돈을 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 커다란 궤가 가득 찼다. 잠시 후 범려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을 데리고 누대 위로 올랐다. 두 여인은 난간에 기대어 구름처럼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았다.

"아.....!"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탄성조차 내지르는 것을 잊었다. 그들의 눈에 두 여인은 지상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선녀가 하강한 것처럼 보였다. 두 여인의 모습이 난간에서 사라졌는데도 사람들은 흠뻑 젖어 있을 줄 몰랐다. 아무도 돈을 도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었다.

범려(范蠡)는 이렇게 사흘간을 교외 별관에서 머물렀다.

그 사이 모인 돈이 한 고을에서 거두어들인 세금과 맞먹을 정도였다. 범려는 그 돈을 국고에 바치고 나서 새삼 탄식했다.

- 여인의 아름다움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로구나. 지난날 한 왕조가 멸망할 때마다 그 뒤에 미인이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로구나.

범려(范蠡)는 자신의 집 뒤편에 작은 누각을 짓고 두 여인을 그 곳에 머물게 했다. 그러고는 늙은 학사들을 초빙해 노래와 춤과 화장하는 법과 걸음걸이법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방중술(房中術)까지 가르쳤다.

그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에게 오왕 부차의 정신을 빼놓을 모든 재주와 기술을 습득시킬 작정이었던 것이다.

BC 489년(월왕 구천 8년), 구천이 오나라에 풀려난 지 3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1)

오나라가 월나라를 치고, 월왕 구천(句踐)이 오나라로 잡혀가 굴욕적인 종복 노릇을 하고, 그 후 귀국하여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와신상담하고 있을 그 시기는 공자(孔子)가 한창 천하를 역유(歷遊)하고 다닐 무렵이었다.

일찍이 공자가 제자 자로(子路)에게 밝혔듯이 그의 천하 역유는 다름이 아니었다.

-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곳으로 가 동주(東周)를 이루리라.

자신의 정치 사상을 알아주고 펼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느 나라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갈 작정이었다. 이것은 망명과는 성격이 달랐다. 좀더 쉽게 말하면 벼슬자리를 구하러 다닌 것이다.

그러나 공자(孔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다.

그의 천하 역유(歷遊)는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그가 지니고 있는 사상, 인의와 예를 바탕으로 한 정치 형태는 존망이 걸린 당시 나라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제후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천하 역유(歷遊)는 1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공자가 노(魯)나라를 떠나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는 위(衛)나라였다. 그는 그 곳에서 자로의 처형인 안탁추(顔濁鄒)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다.

당시 위나라 군주는 위영공(衛靈公).

위영공(衛靈公)은 공자의 방문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 선생이여, 진(陳)을 치고 적을 무찌르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 저는 아직 진 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자(孔子)는 실망했다.

열 달을 머문 후 위(衛)나라를 떠났다. 그러나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다. 국경 근처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나라 도성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현자로 소문난 거백옥(蘧伯玉)의 집에 머물며 그와 사귀었다.

이때 위영공의 부인은 남자(男子)라는 여인이었다.

송나라 공녀 출신으로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몹시 음탕했다. 시집오기 전 송나라 공자 조(朝)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 중에 위영공에게 시집온 것이다.

남자는 위영공의 아들 괴귀(蒯瞶)를 낳았다.

괴귀는 장성하여 위나라의 세자가 되었다. 그러나 남자는 송나라 공자 조(朝)를 잊지 못했다.

이 무렵 위(衛)나라에도 한 미남자가 있었다. 이름을 미자하(彌子瑕)라 했다. 그런데 미자하는 남색가(男色家)였다. 위영공도 여색보다는 남색을 즐겨했다. 그는 아름다운 청년 미자하를 자신의 남색 상대로 삼았다.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하루는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자하(彌子瑕)가 복숭아를 먹다 말고 위영공의 입 안에다 넣어주었다.

위영공(衛靈公)은 그런 미자하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반조각 복숭아를 맛있게 먹으며 자랑했다.

- 미자하(彌子瑕)는 나를 너무나 극진히 위하는구나. 맛있는 복숭아를 차마 혼자 먹지 못하고 과인의 입에 그 반을 넣어주었도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신하들은 외면하고 소리 없이 웃었다.

위영공(衛靈公)은 밤마다 미자하를 데리고 자면서도 부인인 남자(男子)를 몹시 두려워했다.

미자하(彌子瑕)가 속삭였다.

- 군부인에게도 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은 계책이다.

며칠 후, 위영공(衛靈公)은 송나라로 사람을 보내 남자의 옛 연인인 공자 조(朝)를 위나라로 불러들였다. 마침내 남자(男子)는 그리고 그리던 연인 공자 조와 해후하여 그간의 정열을 쏟아냈다.

이에 위영공(衛靈公)은 미자하와 붙어 지내고, 그 부인 남자(男子)는 옛 애인인 송공자 조(朝)와 엉켜 지냈다. 어느덧 위나라 백성들 사이에는 그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세자 괴귀(蒯瞶)는 어머니에 관한 추잡한 소문 때문에 낮이 뜨거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심복 부하 희양속(戲陽速)을 불러 비밀리에 지령을 내렸다.

- 기회를 보아 나의 생모를 살해하라.

그러나 이 지령이 사전에 남자의 귀에 들어갔다.

남자(男子)는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위영공에게 하소연했다.

- 자식이 어미를 죽이려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영공 또한 분노하여 세자 괴귀(蒯瞶)를 나라 밖으로 추방한 후 손자이자 괴귀의 아들인 공손첩(公孫輒)을 세손으로 세웠다.

이럴 때 공자(孔子)가 다시 위나라 도성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위영공의 부인 남자(男子)는 자신의 음탕함을 감추기 위해 공자를 맞아들여 공경히 대접했다.

어느 날, 위영공(衛靈公)이 부인과 함께 수레를 타고 나들이를 나갔다.

공자를 불러 그 뒤를 따르게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위나라 도성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수레에 함께 탄 것은 색(色)이고

수레 뒤를 따르는 것은 덕(德)이로구나.

색(色)을 좋아하는 부인은 수레 옆에 태우고 인(仁)과 예(禮)를 펼치는 공자는 그 뒤를 따르게 한 위영공의 처사를 조롱하는 노래였다.

공자(孔子)는 그 노래를 듣고 홀연 깨우쳤다.

- 그렇구나. 위나라 임금은 덕보다 색(色)을 더 좋아하는구나.

공자는 더 이상 위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그곳을 떠나 송(宋)나라로 들어갔다.

하지만 송나라 군주 송경공(宋景公)도 남색에 빠져 있었다.

그의 상대는 사마 환퇴(桓魋)였다. 환퇴는 공자가 송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신(家臣)을 불러 명했다.

- 공자(孔子)가 지금 도성 밖 커다란 나무 밑에서 강론을 펼치고 있다. 너는 그 곳으로 가 나무를 베어버리고 공자를 잡아죽여라.

그러나 공자는 그 소식을 미리 듣고 얼른 송(宋)나라를 떠났다.

이번에는 정(鄭)나라로 갔다.

그러나 정애공(鄭哀公) 역시 폭정을 펼치며 군사 부문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자의 말에는 귀도 기

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그 곳에서 공자(孔子)는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 상갓집 개가 왔다.

정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다.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며 관직을 구하는 공자에 대한 비웃음이었다.

-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실망한 공자(孔子)는 정나라를 떠나 진(晉)나라로 향했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2)

공자(孔子)가 정나라를 떠나 황하(黃河)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 무렵 진(晉)나라에서는 집정 대신 조양(趙鞅)이 자신의 동료 대신인 두명독(冀鳴犢)과 순화(舜華)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소문을 들은 공자(孔子)는 발길을 멈추고 탄식했다.

- 아름답구나 황하여, 넓고도 넓구나. 내가 이 황하를 건너지 못하는 것 또한 운명이로다.

자공(子貢)이 달려나와 물었다.

- 지금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 두명독과 순화는 진(晉)나라의 어진 사람이다. 조간자(趙簡子, 조양)가 아직 뜻을 얻지 못했을 때 그는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뜻을 이루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새나 짐승도 같은 동류를 죽이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공자(孔子)는 황하를 건너는 것을 단념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래도 위(衛)나라가 가장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음인가. 그는 다시 위나라로 들어갔다.

그런데 공자(孔子)는 운도 나빴다.

그가 위나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위영공이 죽은 것이다. 위나라 대부분은 세손 공손첩(公孫轅)을 군위에 올렸다.

그가 위출공(衛出公)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괴귀가 살아 있었다.

괴귀는 진(晉)나라에 망명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군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진(晉)나라에 도움을 요청해 놓고 귀국할 기회만 엿보았다.

반면, 아버지를 제치고 먼저 임금자리에 오른 위출공은 위출공대로 임금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제(齊)나라에 도움을 청하여 아버지의 귀국을 저지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위출공(衛出公)이 공자의 사상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공자(孔子)는 실망하고 다시 위나라를 떠났다.

진(陳)나라로 들어갔다. 진나라에서는 그래도 오래 머문 편이었다. 수 년을 그 곳에서 체류한 공자와 제자들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이번에는 채(蔡)나라를 바라보고 걸었다.

채나라에서는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가 다시 길을 떠났을 때 초(楚)나라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 무렵 초소왕(楚昭王)은 패전의 악몽에서 벗어나 한창 의욕적으로 나라 재건에 힘을 쏟을 때였

다.

- 이 기회에 학식 높은 공자(孔子)를 우리 나라로 초빙하자.

그는 사자를 보내 공자를 모셔오게 했다.

초소왕(楚昭王)은 친히 나와 공자를 영접했다.

그 동안 돌아다니며 받은 대접중 그나마 가장 극진한 환대였다. 초소왕은 그와 더불어 몇날 며칠을 얘기했다. 감동한 초소왕은 공자에게 이사(里社) 땅을 내리고 높은 벼슬에 등용할 것을 결심했다.

그러자 초나라 영윤 공자 신(申)이 위기를 느끼고 초소왕에게 간(諫)했다.

- 옛날 주문왕은 풍(豐) 땅에 있었고 주무왕은 호(鎬) 땅에 있어 그 사방 거리가 1백 리 안팎이었지만, 능히 큰 덕을 닦아 마침내 은나라를 멸하고 주(周)나라를 세웠습니다.

- 오늘날 알려진 공자의 덕(德)은 주문왕이나 주무왕에 못지않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도 다 지혜롭고 어진 사람들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나라를 터전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한다면 그 때는 어찌할 작정이십니까?

그 말에 초소왕(楚昭王)은 공자를 등용할 생각이 눈 녹듯 사라졌다.

공자(孔子)는 초소왕의 변심을 눈치채고 즉시 초(楚)나라를 떠났다.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공자는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위(衛)나라로 들어갔다.

위출공(衛出公)은 공자를 이용해 나라 안팎의 근심을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자가 출사를 거절했다. 다만 그는 제자 자로(子路)와 자고(子羔)를 천거해 위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고국인 노(魯)나라에 다소간 변화가 일었다.

삼환의 최고 권력자인 계손사가 죽은 것이다. 계손사의 뒤를 이어 노나라 재상에 오른 사람은 계손사의 아들인 계손비(季孫肥)였다.

그는 공자의 제자들 중에 인재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위(衛)나라를 방문하여 공자를 찾아왔다.

- 자유(子有)를 보내주십시오.

공자가 아니라 그 제자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자유는 지난날 계손사 밑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무렵 공자(孔子)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자신 벼슬에 오를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앞길을 막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는 계손비(季孫肥)의 청을 수락하고 자유(子有)를 계손비에게 내주었다. 자유의 귀국을 계기로 공자도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노(魯)나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미 위출공에게 출사한 자로(子路)와 자고(子羔)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노(魯)나라로 돌아왔다. 천하를 역유(歷遊)한 지 13년 만의 귀국이였다.

이때 공자의 나이 68세.

공자의 제자 자유(子有)를 비롯하여 자공(子貢), 유약(有若), 복불제(宓不齊) 등은 공자에 의해 천거되어 노나라에서 벼슬을 살았다. 자신이 못 이룬 예(禮)와 인의(仁義)의 정치를 제자들을 통해 펼쳐보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7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자(孔子)는 5년 동안 노(魯)나라에 머물며 <시(詩)>와 <서

(書)>와 <예(禮)>와 <악(樂)>에 대한 편찬 작업에 온 정열을 쏟아붓게 된다.

이 책들이 바로 유가 경전으로 전해오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禮記)>다. <악(樂)>은 전해오지 않는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3)

BC 490년이면 아직 공자가 천하를 역유(歷遊)하고 있을 때다.

오나라에서는 부차(夫差)가 고소대 공사에 한창 박차를 가할 무렵이요, 월나라에서는 구천(句踐)이 와신상담하며 미인계를 쓰기 위해 서시(西施)를 찾아내 훈련을 시키고 있을 무렵이다.

이 해, 동방의 패자국 제(齊)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안영, 전양저 등 명재상과 명장수를 배출하여 전성기를 구가한 바 있는 제경공(齊景公)이 70세가 넘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제경공의 재위 58년.

참으로 오랫동안 군위를 누렸다.

그런데 문제는 제경공의 사후(死後)였다. 제경공의 부인은 연희(燕姬)다. 그녀는 일찍이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아들 또한 성장하지 못하고 죽었다.

제경공에게는 후궁의 몸에서 난 여러 아들이 있었다.

양생(陽生), 가(嘉), 구(駒), 검(黔), 서(鉏), 도(荼) 등 여섯 공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 중 제경공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은 아들은 막내인 공자 도(荼)였다.

그러나 공자 도의 나이가 워낙 어려 제경공(齊景公)은 그를 세자로 임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던 중 제경공(齊景公)이 병이 나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대대로 제나라에서 벼슬을 살아온 상경 국하(國夏)와 고장(高張)을 불러 뒷일을 부탁했다.

- 내가 죽으면 공자 도(荼)를 군위에 세우고 충성을 다해주시요.

그러고는 나머지 공자들을 모두 내(萊) 땅으로 가서 살게 했다.

이르테면 추방이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제경공이 노환으로 죽었다.

국하(國夏)와 고장(高張)은 제경공의 유언대로 나이 어린 공자 도(荼)를 군위에 올리고 자신들이 조정의 실권을 잡았다.

이 소식을 들은 내(萊)땅의 공자들은 목숨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공자 양생(陽生)과 서(鉏)는 노나라로 망명하고, 공자 가(嘉)를 비롯한 나머지 공자들은 위(衛)나라로 달아났다.

이것을 보고 내(萊) 땅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경공(景公) 돌아가심이어!

공자들은 장사에도 참석 못 하고

3군(三軍) 일에도 관여치 못하네.

아아, 우리들은 장차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공실의 어지러움과 나라 앞날의 불안함을 빚댄 노래였다.

이때 제나라 조정에 진걸(陳乞)이라는 대부가 있었다.

진걸은 일찍이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바 있는 진무우(陳無宇)의 아들이다. 진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를 펴지 못하던 국하와 고장이 하루아침에 조정의 실권을 거머쥐게 되자 속으로 여간 불만이 크지 않았다.

진걸(陳乞)은 아버지 진무우를 닮아 계교가 많고 쉽사리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이중적인 처세를 취했다. 겉으로는 국하(國夏)와 고장(高張)을 충실히 따르는 척하며, 뒤돌아서는 여러 대부들에게 두 사람을 비방했다.

즉 국하와 고장 앞에서는,

- 여러 대부들이 두 분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들이 일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두 분께서 불만을 품은 대부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척했고, 다른 대부들에게 가서는 또,

- 국하(國夏)와 고장(高張)은 우리 제나라의 화근입니다. 그들은 주공을 손아귀에 넣고 지난날의 신하들을 모두 몰아내려 하고 있소.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요. 라고 속삭여대는 것이었다.

대부들은 모두 진걸의 말을 믿었다.

그 중 진걸의 말을 듣고 가장 분개한 사람은 포목(鮑牧)이었다. 포목은 제환공 때의 명신 포숙(鮑叔)의 후손으로 대대로 고씨나 국씨와는 사이가 나빴다.

이듬해인 BC 489년.

마침내 진걸(陳乞)과 포목(鮑牧)은 여러 대부들의 가병을 규합한 후 임금인 공자 도(荼)를 장악하기 위해 궁궐을 들이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국하(國夏)와 고장(高張)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공격했으나 임치성 내 장(莊)이라고 하는 큰 거리에서 패했다. 겨우 임치성을 탈출한 국하는 거나라로 도망쳤고, 고장은 노나라를 바라보고 달아났다.

하루아침에 제나라 조정의 실권은 진걸과 포목에게로 돌아갔다.

진걸(陳乞)은 좌상이 되고, 포목(鮑牧)은 우상이 되었다. 그들은 국씨와 고씨를 멸족시키지는 않았다.

국하의 아들 국서(國書)에게, 그리고 고장의 아들 고무비(高無丕)에게 각각 대를 잇도록 했다.

그런데 진걸(陳乞)은 애초부터 천민 소생인 제 6공자 도(荼)가 임금자리에 오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욱이 공자 도는 나이가 어렸다. 진걸은 평소 공자 양생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노(魯)나라에 사람을 보내 공자 양생(陽生)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아무도 양생의 귀국을 알지 못했다.

그해 10월, 진걸(陳乞)은 많은 대부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내가 요즘 천하에 보기 드문 장사 한 분을 구했기에 여러 대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렇듯 오시라 한 것이요."

"천하장사라니 어떤 분이요?"

진걸(陳乞)은 큰 궤 하나를 내왔다.

궤 뚜껑을 열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대부들은 깜짝 놀랐다. 노(魯)나라로 망명했던 제 1 공자 양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내 진걸의 뜻을 알아차렸다.

포목(鮑牧)을 비롯한 몇몇 대부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집 안은 무장병사들에 의해 포위된 뒤였다. 대부들은 겁이 나 슬며시 일어나 공자 양생(陽生)에게 절을 올렸다. 포목도 어쩔 수 없이 공자 양생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진걸(陳乞)은 그 즉시로 수레를 준비시켜 공자 양생을 태워 궁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어린 공자 도(荼)를 끌어내고 그 자리에 공자 양생을 앉혔다. 이 임금이 제도공(齊悼公)이다.

제도공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공자 도를 태(駘)라는 땅으로 추방했다.

그러나 공자 도(荼)는 태 땅에 이르기 전에 제도공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비운의 공자 도(荼)는 죽은 후에 시호를 받지 못했다.

그는 1년 남짓 군위에 올랐는데, 역사는 그를 '안자(安子)'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安)은 공자 도의 이름이고 자(子)는 단순히 공자라는 뜻이다.

진걸(陳乞)은 진걸대로 포목이 자신의 뜻에 반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제도공에게 간(諫)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포목(鮑牧)이 국외에 망명중인 공자들과 비밀리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얼마 후 제도공(齊悼公)은 포목에게 역모죄를 뒤집어씌워 죽였다.

그러나 그 후손은 끊지 않고 포목의 아들 포식(鮑息)을 당주에 오르게 하여 포숙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이로써 진걸(陳乞)은 재상에 올라 제도공을 능가하는 권세를 쥐게 되었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4)

제도공(齊悼公)은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반대파 대신들을 죽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제경공 시절을 그리워하며 제도공을 미워하고 원망했다.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다.

BC 487년(제도공 2년, 오왕 부차 9년).

마침 적당한 빌미가 생겼다.

이웃인 노(魯)나라가 주(邾)나라를 침공한 것이었다. 주나라는 제나라의 동맹국이자 제도공의 여동생이 시집간 나라다.

제도공(齊悼公)은 노애공이 주나라를 쳐 임금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에 탁자를 내리치며 분노했다.

"노(魯)나라가 나의 매제인 주(邾)나라 임금을 잡아 감금했다는 것은 우리 제나라를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노나라를 쳐 복수하리라!"

그런데 제경공이 죽은 이후 제(齊)나라 군사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단독으로 노(魯)나라를 쳐 이길 자신이 없었다.

이 무렵, 중원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오(吳)나라였다.

제도공(齊悼公)은 오왕 부차에게 사신을 보냈다.

- 함께 노나라를 쳐 땅을 나누어 가집시다.

오왕 부차(夫差)는 월나라를 쳐 속국으로 삼은 뒤 기고만장해 있었다.

천하에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도공의 청을 듣고 뭇 듯이 기뻐했다.

- 내가 전부터 산둥 쪽으로 진출할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기회가 왔구나.
 그 해 여름, 부차(夫差)는 노나라에서 망명해온 공산불뉴(公山不狃)를 길 안내자로 삼아 노(魯)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공산불뉴는 노나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 그는 오군(吳軍)을 안내하면서 전날 자신을 핍박했던 땅에 이르러서는 닥치는 대로 방화하고 약탈하고 살육했다.
 이에 맞추어 제도공(齊悼公)도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 땅으로 쳐들어갔다.
 그들은 삼시간에 노(魯)나라 동쪽 일대의 땅을 빼앗았다.
 제 · 오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기겁한 것은 노애공이었다.
 노애공(魯哀公)은 자신의 힘으로 제 · 오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재빨리 사자를 보내어 제도공에게 화해를 청했다.
 "이미 주(邾)나라 임금을 석방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주나라를 괴롭히지 않을 터이니, 제공(齊公)께서는 그만 화를 푸시고 군사를 물려주십시오."
 제도공(齊悼公)도 오랫동안 군사를 밖으로 내면 국내에 변이 생길까 두려웠다. 그는 못 이기는 척 노(魯)나라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빼앗은 땅을 돌려준 후 노애공과 화해했다.
 아울러 대부 공맹작(公孟縶)을 오왕 부차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는 이미 노나라와 화해했으니, 오(吳)나라는 더 이상 수고스럽게 노나라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제도공의 변덕에 부차(夫差)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공맹작을 향해 큰소리로 꾸짖었다.
 "우리 오(吳)나라가 제나라 뜻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인 줄 아느냐?"
 이때는 이미 해가 바뀌어 BC 486년이 되었다.
 부차(夫差)는 노나라에 나가 있는 군대를 소환하기는 했으나 제나라에 대해 몹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그 해 가을철에 부차는 한(邾) 땅에 성을 쌓고 장강과 회수를 연결하는 운하를 뚫었다. 언제든지 뱃길로 제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였다.
 한 땅은 오늘날 안휘성 양주 땅이다.
 한편, 노애공(魯哀公)은 오왕 부차가 제나라에 대해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자기 나라를 쳤던 제도공에 대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제(齊)나라를 치자!'
 이렇게 마음먹은 노애공은 사자를 오나라로 보내어 연합을 청했다.
 부차로서는 기다리던 일이었다.
 이듬해인 BC 485년 정월,
 마침내 오 · 노 연합군은 각각 서쪽과 남쪽 길을 통해 제(齊)나라 땅으로 쳐들어갔다. 여기에 담(郳)나라 군사까지 가세했다.
 부차(夫差)는 눈 깜짝할 사이 제나라 남쪽 땅인 식(郕) 땅을 점령하고 그 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 바람에 제(齊)나라는 큰 분란에 휘말렸다.

제도공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 우리 임금이 공연히 오(吳)나라와 노(魯)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다. 이 모든게 주공의 책임이다.

이때 진걸(陳乞)은 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제나라 정권은 그 아들 진상(陳常)이 물려받고 있었다. 진상은 백성들의 원망을 잘 알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마저 돌팔매의 대상이 될 것 같았다.

진상(陳常)은 포목의 뒤를 이어 포씨 당주가 된 포식에게 접근하여 은밀히 사주했다.

"오늘의 화란(禍亂)은 모두 주공이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요. 지금 나라안이 전쟁으로 어지러우니, 이 기회에 주공을 죽여 오(吳)나라의 오해를 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합시다. 주공을 죽이는 일은 그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길이기도 하오."

포식(鮑息)은 진상이 자기를 이용해 제도공을 살해하려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소."

제도공이 아무리 폭군이라고는 하지만 포숙 이래 대대로 제(齊)나라 은혜를 받아온 명문가 후손으로서 난신(亂臣) 대열에 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진상(陳常)은 머쓱했다.

"그대가 못 하겠다면, 내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임금을 없애겠소."

며칠 후였다.

제도공(齊悼公)은 성밖으로 나가 싸움터로 가는 군사들을 사열한 후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진상이 제도공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술을 따라주었다.

그런데 그 술에는 무서운 짐독(鴆毒)이 들어 있었다. 제도공은 술을 받아마신지 한식경이 못 되어 아홉 구멍으로 피를 쏟으며 죽었다.

진상(陳常)은 오왕 부차에게 사람을 보내 지난날의 일을 사죄했다.

- 우리 주공께서 급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해의 일은 오로지 선군(先君)의 독단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군도 죽었으니, 오왕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종묘사직만이라도 보존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제(齊)나라는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오나라를 섬기며 우호를 다지겠습니다.

오왕 부차(夫差)는 제도공이 죽은데다가 항복이나 다름없는 화해를 청해오자 크게 만족했다.

영채 밖으로 나가 제도공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하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노(魯)나라도 군대를 철수시켰다.

제나라 백성들은 제도공이 독살당한 것을 짐작했으면서도 그 일을 따지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기뻐했다. 그만큼 제도공(齊悼公)은 대부들과 백성들에게서 인심을 잃고 있었다.

오군이 회군하자 진상(陳常)은 제도공의 아들 공자 임(任)을 받들어 군위에 세웠다.

그가 제간공(齊簡公)이다.

제간공은 군위에 오르자마자 진상(陳常)을 우상에 임명하고 함지(鬬止)를 좌상에 올렸다.

그해 3월의 일이었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5)

월왕 구천의 와신상담(臥薪嘗膽)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시(西施)와 정단(鄭旦) 역시 범려의 집에 머물며 3년 동안 노래와 춤과 온갖 재주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들이 주렴을 두리운 비단 수레를 타고 거리로 나가면 온 성안에 향기가 가득 차는 듯했다.

마침내 범려(范蠡)는 서시와 정단을 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월왕 구천에게 선보이기 위해서였다.

"아.....!"

구천(句踐)은 눈을 휘둥그레 뜬 채 할말을 잃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어찌 이렇게 고운 여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구천(句踐)은 첫눈에 서시와 정단에게 반했다.

'아깝도다.'

그의 가슴속에는 자신이 두 미인을 데리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원수인 부차에게 내 주기가 아까웠다.

하지만 범려(范蠡)는 냉정했다.

그는 구천의 마음을 짐작한 듯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오(吳)나라가 멸망하는 날 왕께서는 이 같은 미인을 백 명, 천 명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구천(句踐)은 멧쩍은 웃음을 지었다.

얼른 변명을 했다.

"과인이 어찌 지난날의 치욕을 잊을 리 있겠소? 이번 미인계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그러고는 궁중 여인인 선파(旋波), 이광(移光) 등 여섯 여인을 서시와 정단의 몸종으로 붙여주었다.

BC 485년(월왕 구천 12년) 5월.

월나라 재상 범려(范蠡)는 서시와 정단을 데리고 오나라로 건너갔다.

오나라 궁궐로 든 범려는 부차에게 절을 올린 후 월왕 구천의 말을 전했다.

"동해의 천신(賤臣) 구천은 먼저 제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신 왕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신은 늘 태산과 같은 성은을 입으면서도 직접 왕을 모시지 못하는것이 한(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인들을 뽑아 왕께 보내오니 곁에 두시고 부리시기 바랍니다."

부차(夫差)는 전에도 월나라로부터 여러 미인들을 받아온 터였기에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범려(范蠡)가 불러들인 두 여인을 보는 순간 그는 이미 예전의 부차가 아니었다.

눈빛부터가 달라졌다.

"음.....!"

지금까지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있을까.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의 모습은 천상의 선녀 한 쌍이 하강한 듯했다. 그는 정신이 몽롱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오자서도 있었다.

그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월나라가 미인계를 쓰고 있음을 알아챘다.

재빨리 일어나 간(諫)했다.

"왕께서는 두 여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이 듣건대 사치는 천화(千禍)의 근원이요, 음란은 만재(萬災)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구천이 왕에게 두 미인을 바치는 것은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려는 수작입니다. 당장 월(越)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오자서의 말에 범려(范蠡)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여차하면 몇 년 동안 공들였던 계책이 무너질 판이었다.

그때 부차(夫差)가 오자서에게 대답했다.

"영웅은 호색이오. 미인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구천(句踐)이 저런 미인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그 충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소. 재상은 공연히 남을 의심하지 마오."

범려를 의식해서인지 한껏 부드러운 어조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쾌한 기색이 숨겨져 있음을 범려(范蠡)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가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날부터 오왕 부차(夫差)는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을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두 여인 모두 빼어났으나 요염하고 비위를 잘 맞추기는 정단보다 서시가 월등했다. 차츰 서시(西施)가 부차의 곁을 차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어찌 알았으랴.

그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다.

범려가 철저하게 훈련시킨 간자(間者)였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서시(西施)가 부차에게 속삭였다.

"듣자하니 왕께서는 고소산에 아름다운 궁궐을 짓는다고 하였는데, 신첩은 언제쯤 그 궁궐을 구경할 수 있을지요?"

그 무렵 고소대(姑蘇臺)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죽고 상하는 인부가 많아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었다.

부차(夫差)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귀여운 서시(西施)가 고소대를 보고 싶어하자 태재 백비를 불러 명했다.

"고소대 공사가 어찌 늦어지는가. 회계산에 주둔시켜 놓은 왕손웅(王孫雄)의 군사 3천 명을 불러들여 고소대 짓는 일에 투입하라!"

부차(夫差)는 월나라가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회계산에다 군사 3천 명을 주둔시켜 놓은 바 있었다. 그런데 서시(西施)가 고소대를 빨리 보고 싶어하자 그 군대를 거두어들여 노역부로 대용하게 한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伍子胥)는 기절초풍할 듯 놀랐다.

비분과 울화가 극도에 달했다.

그는 그 길로 궁으로 달려가 피를 토하듯 간언했다.

"어떻게 국경 수비의 군사를 노역부로 쓸 수가 있습니까? 무릇 군대란 나라를 지키는 간성(干城)입니다. 한시도 태만해서는 안 되는 터에 오히려 그들을 노역으로 전용하시니 이는 진실로 스스로 오(吳)나라를 멸하는 짓일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구천(句踐)이 서시와 정단을 보낸 것은 왕을 음란의 세계로 빠뜨리려는 수작입니다. 왕께서 서시와 정단을 옆에 끼고 향락에 빠져 계실 때 구천은 월나라를 강하게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속히 고소대(姑蘇臺) 공사를 중지하시고, 서시(西施)와 정단(鄭旦)을 구천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하지만 부차(夫差)는 이미 오자서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다.

오자서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태재 백비에게 명했다.

"한 달 이내에 고소대 공사를 마무리지으라."

오자서(伍子胥)는 통분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6)

군사들이 대거 공사에 투입되면서 고소대 공사는 빠르게 진척되었다.

한 달 가량이 지나자 고소대가 완공되었다.

고소대(姑蘇臺)는 과연 장관이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방 2백 리가 한눈에 들어왔고, 궁궐 대청에는 6천 명의 궁녀가 한꺼번에 춤을 출 수가 있었다. 대들보와 기둥에는 교룡(蛟龍)과 봉황(鳳凰)이 아로새겨졌고, 난간에는 옥이 장식되었다. 넓은 정원에는 기화요초가 만발했으며, 동산에는 온갖 짐승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았다. "이 곳이야말로 별천지입니다."

부차(夫差)는 서시가 만족해하자 무척 기뻐다.

이때부터 부차와 서시(西施)는 궁에 머무는 시간보다 고소대로 나가 음악과 술과 춤을 즐기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차가 가는 곳에는 서시가 있었고, 서시가 거니는 길에는 언제나 부차의 모습이 보였다.

반면 정단(鄭旦)은 어느새 고립되었다.

그녀는 원래 서시와 가까운 사이였으나 오(吳)나라로 건너온 후부터 경쟁 심리가 발동했다. 그런데 서시(西施)가 부차를 독차지하고 자신은 외톨이가 되자 마음이 몹시 울적했다.

마침내 그녀는 시기하는 마음이 지나쳐 병이 났고, 결국은 반 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부차(夫差)는 그녀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서시(西施)를 아꼈다.

그렇다면 정단(鄭旦)도 상당한 미인이었을 터인데 부차(夫差)는 어찌하여 정단을 제쳐두고 서시만을 총애했을까?

아마도 서시에게는 서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여담으로 서시(西施)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서시의 아름다움에 파생된 대표적인 단어로 '효빈(效顰)'이라는 말이 있다.

효(效)란 '모방하다'라는 뜻이요, 빈(顰)이란 '찡그리다'라는 뜻이다.

즉 '찡그리는 것을 흉내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장자(莊子)>의 <천운(天運)> 편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온다.

앞서도 얘기했듯 서시(西施)는 월나라 동쪽 저라산 아래에 사는 초부의 딸이었다. 무척 가난했을 것이다.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위에 병이 있었던 모양이다. 통증이 올 때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썹을 찡그리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그 눈썹 찡그리는 모습이 오히려 서시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침어낙안(沈魚落雁)'이라는 말이 있다.

헤엄치던 물고기가 부끄러워 물속 깊이 숨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땅으로 떨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를 이르는 말이다.

마을 젊은이들은 물론 여인네들까지 서시의 묘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마침내 저라산 서촌 마을의 여인들은 서시(西施)처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썹을 찡그리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나 눈썹을 찡그린다고 해서 어찌 추한 여인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는가.

못생긴 여인들마저 눈썹을 찡그리고 다니자 마을 남자들은 더 이상 그 꼴을 보기가 괴로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사 가지 않은 남자들은 눈썹을 찡그리고 다니는 여인들을 보지 않기 위해 대문을 잠그고 일절 나다니지 않았다.

'효빈(效顰)'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요즘도 '분수도 모르고 남을 함부로 흉내내는 사람'을 빗대어 이 말을 쓰고 있다.

서시(西施)가 정단을 제치고 부차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눈썹 찡그림'의 매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눈썹을 찡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정도로 서시의 아름다움이 압도적으로 뛰어났던가.

어쨌거나 부차(夫差)는 서시에게 빠졌고, 그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했다.

서시(西施)는 영암산 일대의 풍광을 좋아했다.

그래서 부차(夫差)는 서시를 위해 영암산 한쪽 기슭에 관왜궁(館娃宮)이라는 별궁을 지었다.

'미인이 머무는 궁'이라는 뜻이다.

관왜궁(館娃宮) 주변으로는 구리 도랑을 만들어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도록 했으며, 옥돌을 깎아 난간을 만들었다.

부차(夫差)는 또 서시를 즐겁게 하기 위해 향섭랑(響屧廊)이라는 복도를 만들었다. 향(響)은 '진동하다'라는 뜻이요, 섭(屧)이란 나무로 만든 신발을 말한다.

그러므로 '향섭랑(響屧廊)'이란 땅을 파서 큰 독을 묻어놓고 그 위에 두꺼운 판자를 깐 복도다.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고 그 위를 걸을 때면 부드럽고 아늑한 음향이 은은히 울려 퍼졌다.

그 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자객의 침입을 미리 알기 위해 침전과 내궁마다 향섭랑(響屧廊)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오왕 부차에 의해 처음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서시동(西施洞)이라는 아늑한 동굴도 만들었다.

부차(夫差)와 서시는 종종 그 동굴 속에 들어가 놀았다. 오늘날도 그 동굴 밖에 약간 움푹 패인 바위가 하나 있는데, 서시(西施)가 앉았던 자리라고 한다.

또 완화지(翫花池), 완월지(翫月池)라는 두 연못을 파고 벽천정(碧泉井)이라는 샘물도 팠다. 서시는 때때로 그 샘물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화장을 했다. 그때마다 부차(夫差)는 옆에 서서 서시가 화장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부차(夫差)는 향산(香山)이라는 석가산(石假山)을 만들고 거기에 향나무를 가득 심었다.

향산 아래로 커다란 연못과 작은 계곡을 만들어 물이 흐르게 했다.

향수계(香水溪)다.

서시(西施)는 배를 타고 노닐며 향나무 열매를 따곤 했다.

향수계 바닥에는 옥 같은 자개돌을 깔았다. 그 곳에서 서시는 자주 헤엄치며 놀았다. 자개돌이 비치는 맑은 향수계(香水溪)에서 헤엄치는 서시의 모습은 한 마리 은어 같았다.

성 동남쪽에 채련경(採蓮徑)이란 곳이 있다.

그 곳은 부차와 서시가 함께 연(蓮)을 따던 곳이다.

또 성안 남쪽에서 북쪽으로 큰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에서 부차(夫差)는 서시와 함께 비단 돛의 배를 타고 놀았다.

그래서 그 호수를 금범경(錦帆徑)이라고 했다.

성의 남쪽엔 장주원(長州苑)이란 곳이 있다. 오왕 부차와 서시가 사냥하던 곳이다. 어성(魚城)에선

고기를 기르고 압성(鴨城)에선 오리를 길렀으며, 계파(鷄坡)에선 닭을 치고, 주성(酒城)에선 술을 만들었다.

오늘날도 소주(蘇州) 땅에 가면 여러 절경과 명소터가 남아 있다.

사람들은 이 명소를 '소주팔경(蘇州八景)'이라고 부르고 있다.

서시(西施)가 거쳐하던 관왜궁을 비롯하여 고소대, 백화주, 향수계, 서시동, 완화지, 채련경, 벽천정 등이 바로 그곳이다.

이 모두가 부차와 서시가 노닐던 곳이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7)

오왕 부차(夫差)의 이런 향락과 서시에 대한 총애는 세작을 통해 고스란히 월왕 구천의 귀에 들어갔다.

구천(句踐)은 다시 범려와 문종을 불러 다음 계책을 의논했다.

"그 동안 우리는 재물을 보내어 부차(夫差)의 의심을 덜었고, 목재를 보내어 고소대(姑蘇臺)를 짓게 했고, 서시와 정단을 바침으로써 부차의 마음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군사를 일으켜 오(吳)나라로 쳐들어가면 어떻겠소?"

문종(文種)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 아닙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침 우리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장차 이 일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인은 백성들의 기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소. 이 재앙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소?"

이번에는 범려(范蠡)가 나서서 대답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엉뚱했다.

"왕께서는 전혀 근심하실 바가 아닙니다. 이번의 기근은 월(越)나라에게는 행운이요, 오(吳)나라에게는 재앙입니다."

구천(句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재상은 잘못 말한 것이 아니오? 기근이 든 것은 우리 월나라인데 어찌 행운이며, 오나라는 풍년이 들었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야말로 오(吳)나라의 창고를 비게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부차(夫差)는 우리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후환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 몸을 낮추고 오나라에 식량 원조를 청하면 오나라의 풍년이 어찌 우리 월나라에게 다행이 아닐 수 있으며, 우리 월(越)나라의 흉년이 오나라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왕께서는 오(吳)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곡식을 꾸어달라고 하십시오."

이제 구천(句踐)은 범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었다.

그는 즉시 문종을 사자로 삼아 오왕 부차에게로 보냈다.

문종(文種)은 이미 재물로써 태재 백비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쉽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많은 뇌물을 바치고 백비에게 식량 원조의 주선을 청탁했다.

백비는 문종을 데리고 고소대로 가 부차를 알현했다.

"월나라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문종(文種)이 나서서 아뢰었다.

"금년에 월(越)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라건대 왕께서는 우리 월(越)나라를 위해 곡식 1만 석을 꾸어주십시오. 내년이면 반드시 갚아 드리겠습니다."

부차(夫差)는 정사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다.

태재 백비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눈빛이었다.

백비가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이미 대왕의 신하입니다. 월나라 백성 또한 대왕의 신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곡식을 아껴 백성들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꾸어주시어 대왕의 은덕을 만천하에 퍼십시오."

이때 오자서(伍子胥)는 월나라에서 문종이 와 식량 원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기겁했다.

'이번에 식량을 꾸주면 우리 나라 창고는 텅 비게 된다. 월(越)나라는 결코 그 곡식을 갚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관복을 입고 고소대로 달려왔다.

"식량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는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서, 국경을 접한 이웃일 뿐 아니라 교통마저 편리합니다.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터에 왕께서는 어이하여 저들의 힘을 늘려주시려 하십니까?"

"저들에게 곡식을 보내는 것은 원수의 힘을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때가 늦습니다. 절대로 곡식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기회를 맞아 월(越)나라를 아예 없애버리십시오."

그러자 부차(夫差)의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 서렸다.

"그대의 말은 틀렸소. 내가 듣기로, '의로운 군대는 굴복한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굶주린 사람을 구제한다' 라고 하였소. 월(越)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굴복하였는데 그들을 친다는 것은 의로운 군대가 아니오. 나는 월나라를 구휼할 것이오."

끝내 오왕 부차(夫差)는 오자서의 간언을 물리치고 곡식 1만 석을 문종에게 내주었다.

문종(文種)은 머리를 조아리며 약속했다.

"왕께서 우리 월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곡식을 보내시니, 내년에는 반드시 곡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종이 1만 석의 곡식을 싣고 돌아오자 월왕 구천(句踐)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그는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풀었다.

백성들은 구천의 은덕을 칭송했다.

그 이듬해 월(越)나라는 풍년이 들었다.

반면 오(吳)나라는 흉작이었다.

구천(句踐)이 범려와 문종을 불러 물었다.

"지난해에 오나라로부터 빌린 곡식을 떼어먹자니 신용을 잃게 되고, 곡식을 갚자니 이는 우리 월(越)나라의 큰 손해요. 대관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범려(范蠡)가 주저함이 없이 입을 열었다.

"그 일은 간단합니다. 왕께서는 곡식 중에 상등품만 골라 오(吳)나라로 보내되, 그 전에 술에다 살짝 찌십시오."

"곡식을 술에다 찌는 까닭은 무엇이오?"

곁에 있던 문종(文種)이 범려의 뜻을 알아차리고 대신 대답했다.

"우리가 보낸 곡식이 상등품인 것을 보면 오(吳)나라는 반드시 그것을 두었다가 내년 봄에 씨로 쓸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찢은 곡식을 보냄으로써 오나라에 신용을 지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오나라의 내년 농사를 망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왕이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그 계책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소?"

이번에는 범려(范蠡)가 웃음을 머금으며 대답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나라 궁실에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보낸 간자(間者)가 있습니다. 그 간자는 틀림없이 오왕 부차로 하여금 우리가 보낸 곡식을 내년에 씨앗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간자라니?"

"왕께서는 서시(西施)를 잊으셨습니까?"

순간 구천(句踐)은 범려의 말뜻을 깨달았다.

범려와 문종의 치밀한 계책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내 곡식 중 상등품을 가려 술에다 살짝 찌게 한 후 오(吳)나라로 보냈다.

오왕 부차(夫差)는 구천으로부터 빌려준 곡식을 받아 과연 크게 칭찬했다.

"월왕은 참으로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 보내온 것이 모두 상등품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곡식이 살짝 익힌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에 범려로부터 지시를 받은 서시(西施)가 한마디 거들었다.

"본래 월(越)나라 땅은 토질이 비옥하여 곡식이 매우 싹듭니다. 이 곡식을 이대로 먹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내년에 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말이 옳다."

부차(夫差)는 기뻐하며 월나라에서 보내온 곡식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내년 농사에 심도록 했다.

이듬해 봄,

오(吳)나라 백성들은 월나라에서 보내온 곡식을 심었다.

하지만 이미 술에 찢은 곡식이 제대로 자라 날 리 없었다. 오나라는 크게 흉년이 들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을 쳤고, 부차(夫差)는 이를 구휼하기 위해 군량미를 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그때까지도 그들은 월(越)나라가 찢은 곡식을 보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만 토질이 달라 그런 줄 알았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8)

- 오나라 흉작!

이 보고를 받은 월왕 구천(句踐)은 패재를 불렀다.

범려와 문종을 불러 다시 물었다.

"이제야말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칠 때가 되지 않았소?"

그런데 범려(范蠡)가 또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오(吳)나라를 칠 때가 아닙니다. 오나라 조정에는 아직도 오자서(伍子胥)와 같은 충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군사들도 아직 강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부차로부터 오자서를 떼어놓고 군사를 좀더 훈련 시킨후에야 오나라를 쳐 이길 수 있습니다."

구천(句踐)은 실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오자서를 부차에게서 떼어놓을 것이며, 언제까지 우리 군사를 훈련시켜야 한단 말ियो?"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왕께서는 7년을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서시(西施)의 보고에 의하면 오자서(伍子胥)는 오왕의 신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오자서(伍子胥) 스스로가 타국으로 망명하거나 부차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군사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범려와 문종의 설득에 구천(句踐)은 조급증을 가라앉혔다.

그 해 범려(范蠡)는 군사 훈련에 한층 더 열정을 쏟았다.

월(越)나라 군사들은 일찍이 여검객 월녀(越女)로부터 검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칼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부족한 것은 궁술이었다.

범려(范蠡)는 군사들에게 집중적으로 궁술을 훈련시키던 중 우연히 한 초부로부터 진음(陳音)이라는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재상께서는 어찌하여 진음을 초빙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어떤 사람ियो?"

"진음(陳音)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으나 젊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우리 나라로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그는 백발백중의 명궁일 뿐 아니라 한번에 세 마리의 새를 쏘아 맞추는 신기(神技)를 지니고 있습니다."

범려(范蠡)는 관심을 품고 진음을 찾아갔다.

마침 그는 집 뒤의 공터에서 활쏘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과연 백 발이면 백 발 다 과녁에 가서 적중했다. 더욱이 그가 사용하는 활은 여느 활과 달랐다.

범려(范蠡)는 기뻐하며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 활의 이름은 무엇ियो?"

진음(陳音)이 대답했다.

"이것은 활(弓)이 아니라 노(弩)라고 합니다."

"활과 노는 어떻게 다르오?"

"원래 노(弩)는 활에서 생겨난 것이요, 활은 탄(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탄은 탄궁(彈弓)이라고 하는데 작은 탄환을 튕겨 적을 쏘아 맞추는 것이지요."

탄궁은 오늘날의 새총 같은 것이다.

탄궁(彈弓)은 고대의 어느 효자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옛날 석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숲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숲 속의 짐승을 잡아먹었다.

목이 마르면 안개와 이슬을 마셨다.

그러다가 죽으면 백모(白茅)에 싸서 들판에 내다버렸다. 그 시체들은 대부분 들짐승들에 의해 뜯어먹히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효자 하나가 들짐승과 날짐승들에 의해 자기 부모의 시체가 뜯어먹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 어떻게 하면 그 짐승들을 쫓아낼까 고심했다.

그리하여 고안해낸 것이 탄궁(彈弓)이었다.

원시인들은 그 탄궁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다.

단죽속죽(斷竹續竹) 비토축육(飛土逐肉).

대나무를 잘라 이어 흙덩어리를 쏘아 짐승을 쫓았네 라는 뜻이다.

대나무 조각을 길게 이어 잡아당긴 후 그 끝에 흙덩어리나 돌맹이로 놓아 튕겨 날아가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효자는 이 탄궁(彈弓)으로 자기 부모의 시체를 보호했다.

그 후 삼황(三皇) 중 신농(神農) 대에 이르러 대나무를 휘어 양쪽 끝에 질긴 나무 껍질을 엮어 오늘날과 같은 활을 만들었고, 나무를 깎아 화살로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궁(弓)이다.

오제(五帝) 중의 한 사람인 요(堯) 임금 때에 이르러 초나라 형산 땅에 호보(弧父)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산야에서 홀로 자라났다. 짐승을 잡기 위해 활 쏘는 법을 익혔는데, 어찌나 그 솜씨가 좋은지 제아무리 날쌔 짐승도 그의 화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뒤 호부는 예(羿)라는 사람에게 활 쏘는 법을 전수했다.

예라는 이름은 고대 중국의 신화에도 등장한다.

<회남자(淮南子)>에 의하면 요 임금 때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나타나 오곡을 태우고 초목을 말라죽게 했다.

이에 활의 명인인 예(羿)가 요 임금의 명을 받들어 9개의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뜨리고 한 개의 태양만 남게 하여 재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다. 이는 곧 예 덕분에 요 임금이 천하를 안정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羿)는 다시 봉몽(逢蒙)에게 자신의 활 솜씨를 전했다.

봉몽 또한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후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인물이다.

<회남자(淮南子)>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하루 종일 말하면 그 중에는 성인(聖人)의 말이 있고, 백 발 화살을 쏘다보면 그 중에는 예와 봉몽의 솜씨가 있다.

마구 떠들어대는 중에도 어쩌다 훌륭한 말이 있으며, 백 발 화살을 쏘다보면 그 중에 한 발쯤은 예(羿)나 봉몽(逢蒙) 정도와 같은 멋진 솜씨도 나온다는 뜻이다.

봉몽(逢蒙)은 심성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자신이 천하 제일의 명궁이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스승인 예(羿)가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인 예의 솜씨를 능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예(羿)를 죽이고 자신이 천하 제일의 명궁임을 자처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이루(離婁)> 편에 소개되고 있다.

봉몽이 예(羿)를 죽인 것은 그 스승인 예에게도 책임이 있다.

스승을 죽일 정도의 인품을 제자로 삼은 예(羿)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맹자는 단정지은 것이다. 그러나 <맹자> 외의 다른 문헌들은 봉몽(逢蒙)이 스승 예를 죽인 일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뒤 다시 봉몽은 금씨(琴氏)에게 활 쏘는 법을 전했다.

금씨는 여러나라 제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예전의 활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노(弩)다.

죽 활을 눕혀 기계를 설치하고 동시에 여러 대의 화살을 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씨(琴氏)는 이 노(弩)를 초나라에 전했고, 그때부터 초(楚)나라는 대대로 복숭아 나무로 노를 만들고 대추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일약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저의 선조는 대대로 궁노 쓰는 법을 자손에게 가르쳤으며, 저 또한 그 법을 배워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노(弩)는 활과 달라서 그것을 사용하면 새가 날기도 전에 떨어뜨릴 수 있고, 짐승이 달리기 전에 쏘아 맞힐 수 있습니다. 어찌 탄궁(彈弓)이 궁과 같을 수 있으며, 궁이 노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진음으로부터 활(弓)과 노(弩)에 대한 내력을 들은 범려는 뭘 듯이 기뻐했다.

곧 허리를 숙이고 정중하게 청했다.

"선생을 우리 나라 군대의 활 스승으로 삼고 싶습니다."

진음(陳音)은 범려의 초빙을 수락하고 그 길로 회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진음(陳音)은 월나라 군사 3천 명을 뽑아 노(弩) 제작법과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월나라 군사들은 한 번에 화살 세 대를 연달아 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아무리 강하고 날랜 군사라도 이 연노(連弩) 앞에서는 몸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진음(陳音)은 군사를 가르치는 데 열심인 나머지 3개월째 접어들면서 병이 나 죽고 말았다. 월왕 구천(句踐)은 진음의 죽음을 몹시 아시워했다. 그를 위해 극진히 장사지내 주었다.

그리고 그가 묻힌 산 이름을 진음산(陳音山)이라 명명했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9)

궁노 부대 창설을 계기로 월(越)나라 군대는 부쩍 강해졌다.

범려의 계책대로라면 이제 남은 것은 오자서(伍子胥)를 부차 곁에서 몰아내는 일뿐이었다.

범려(范蠡)는 우선 서시(西施)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

부차에게 예물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문종을 오(吳)나라로 파견하여 비밀리에 지령을 내렸다.

- 오왕에게 오자서를 의심케 하라.

이 지령이 떨어진 후 서시(西施)는 틈나는 대로 오왕 부차에게 속삭였다.

"오자서(伍子胥) 장군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왕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오자서(伍子胥)가 고집이 세긴 하나 반역을 꾀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신첩은 어쩐지 오자서 장군이 무섭기만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만은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오왕 부차(夫差)의 마음속에는 은연중 오자서의 동태를 살피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오자서(伍子胥)는 나름대로 월나라의 움직임을 염탐하고 있었다.

최근들어 부쩍 군사 훈련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았다.

'역시 복수를 꾀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궁으로 달려가 부차에게 간(諫)했다.

"신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왕 구천(句踐)은 요즘 밤낮없이 군사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월군(越軍)은 이제 부쩍 강해졌습니다. 만일 월나라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면 왕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막으시렵니까? 다시 회계산에 우리 군사를 주둔케 하여 저들의 침공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신의 말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지금이라도 사자를 월(越)나라로 보내어 저들의 동태를 알아보십시오."

부차(夫差)는 오자서가 자꾸 간(諫)하는 것이 귀찮았다.

그래서 대부 왕손웅(王孫雄)을 불러 명했다.

"그대가 가서 월나라 실정을 살피고 오라."

왕손웅은 월나라로 건너갔다.

월나라 재상 범려(范蠡)는 왕손웅이 무슨 일로 왔는가를 짐작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일절 군사 훈련을 중지시키고 씨름과 같은 놀이만 하게 했다. 왕손웅(王孫雄)은 몰래 월군의 동태를 살폈으나 한결같이 군기가 해이하고 노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비웃었다.

그는 오성(吳城)으로 돌아와 부차에게 보고했다.

"월(越)나라 군사들은 참으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장수라는 자들은 술독에 빠져 있고, 군졸들은 씨름 놀이에 열중하여 병기가 다 녹슬 지경입니다. 오자서(伍子胥)는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차(夫差)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오자서(伍子胥)가 하는 말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정녕 그는 늙었나보다."

그러고는 월(越)나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자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였다.

그러할 때 오왕 부차에게 노(魯)나라로부터 뜻밖의 제의가 들어왔다.

- 오왕께서는 어찌하여 제(齊)나라를 쳐 천하 패권을 잡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부차(夫差)는 천하패권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노(魯)나라는 느닷없이 오왕 부차에게 제나라를 치라고 권한 것일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력이 있다.

제경공 사후 제(齊)나라는 급격히 어지러워졌다.

더욱이 진걸의 아들 진상(陳常)이 정권을 잡고부터는 공실의 권위와 힘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그나마 국서(國書)와 고무비(高無丕)가 진상의 독재를 견제할 뿐이었다.

진상(陳常)은 그런 국서와 고무비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두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제간공(齊簡公)을 꼬드겼다.

"지난날 노(魯)나라는 오(吳)나라와 합세하여 우리 나라를 친 적이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이제 그 원수를 갚으십시오."

제간공의 허락이 떨어지자 국서(國書)를 대장으로 삼고 고무비와 종누(宗樓)를 부장으로 삼아 노(魯)나라로 쳐들어가게 했다.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거나 전쟁에서 패하면 그 죄를 문책할 작정이었다.

국서(國書)와 고무비(高無丕)가 노나라를 치러 나가기 전 제간공(齊簡公)은 그들을 불러 엄명을 내렸다.

"나는 반드시 노(魯)나라를 멸하고야 말겠소. 그대들은 노나라를 멸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마시오!"

이 해는 공자가 천하 역유(歷遊)에서 돌아온 해인 BC 484년(오왕 부차 12년, 월왕 구천 13년)이었다.

공자(孔子)는 귀국 후 <시경>과 <서경> 저술에 전념하던 중 제(齊)나라가 대대적인 침공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안색을 달리하며 제자들을 불러 물었다.

"노(魯)나라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부모의 나라다. 이제 우리 나라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인가. 누가 제(齊)나라로 가 이 일을 해결하고 오겠느냐?"

서로 눈치를 보는 중에 자장(子張)과 자석(子石)이라는 제자가 자원했다.

"저희들이 가서 제나라 군사를 돌려놓고 오겠습니다."

공자(孔子)는 고개를 흔들었다.

"너희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번에는 자공(子貢)이 나서서 말했다.

"제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공자(孔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자공(子貢)이라면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공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단목사(端木賜)라고 했다.

공자보다 31세 연하다.

그는 여러 제자 중 가장 변설(辯舌)이 능했다.

그것이 공자는 못마땅하여 주의를 주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기대가 적지는 않았다.

<사기>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다.

한번은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 너와 안회(顔回) 중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자공(子貢)이 대답했다.

- 제가 어찌 안회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알 뿐입니다.

공자(孔子)는 자공의 겸손함에 흡족했다.

몇 년 후 공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공(子貢)이 이번에는 스승에게 물었다.

-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 너는 그릇이다.

- 어떤 그릇입니까?

- 호련(瑚璉)이다.

호련이라 함은 종묘 제사에 쓰이는 귀한 그릇이다.

자공에 대한 공자의 기대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화다.

또 이런 일화도 전해온다.

어느때인가 진자금(陳子禽)이라는 사람이 물었다.

- 공자께서는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이에 자공(子貢)이 대답했다.

- 주문왕과 주무왕의 도(道)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자(賢者)들은 그 중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도(道)가 사람에게마다 다 있으니 어찌 어린애에게인들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선생께서는 고정된 스승이 없습니다."

그의 변설과 재치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말해주는 일화다.

공자(孔子)가 이번 노나라의 위기를 맞아 다른 제자를 제쳐두고 유독 자공(子貢)에게 일을 맡긴 것은 바로 그의 이러한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39장 미인 서시(西施) (10)

며칠 후 자공(子貢)은 제나라 수도 임치로 갔다.

진상(陳常)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왔다는 말에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다.

"자공이 임치로 온 것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로구나."

진상(陳常)은 자공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대는 노나라를 위해 세객(說客)으로 오셨소이까?"

자공(子貢)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재상께서는 틀리셨습니다. 저는 노(魯)나라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제(齊)나라를 위해 왔습니다."

진상(陳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나라를 위해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본래 노나라는 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재상께서 노(魯)나라를 치려 하시니,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대는 노나라를 치는 것이 어찌 어렵다고 말하는 게요?"

"우선 노(魯)나라는 성벽이 낮고 성을 둘러싼 해자(垓字)는 얕으며, 임금은 어리석고 신하들은 위선적이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군사와 백성들은 싸우기를 겁내고 싫어하니, 이런 나라는 치기가 어렵습니다."

"재상께서 지난날의 일을 앙갚음할 생각이시라면 우리 노(魯)나라보다 오(吳)나라를 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오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선 그 성이 튼튼하고 성지(城池)가 깊으며, 군사는 강하고 무기는 날카롭습니다. 또한 신하들도 용맹스럽고 지혜가 넘치니, 오나라야말로 무찌르기 쉬운 상대입니다."

진상(陳常)은 자공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다.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쉽고, 그대가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오. 그대가 이렇듯 어지러운 말로 나를 현혹시키려는 까닭이 무엇이오? 그런 말을 하려거든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나 자공(子貢)은 여전히 태연자약한 표정이었다.

"제가 사실대로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제가 재상에

게만 그 뜻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상(陳常)은 궁금함을 어찌지 못하여 좌우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자공(子貢)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모름지기 나라 안에 근심이 있을 때엔 강한 적을 공격해야 하며, 나라 밖에 근심이 있을 땐 약한 자를 공격해야 합니다."

"제가 보건대 재상께서는 지금 나라 안의 일로 근심이 가득합니다. 다른 대신들을 제어하고 싶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럴 경우 국력이 약한 노(魯)나라를 쳐 무찌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나라를 친 대신들이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재상께선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만 구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대신들은 입지가 강화되고, 재상은 오히려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吳)나라를 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모든 대신들은 강한 오나라를 무찌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요, 그러면 그들의 국내에서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재상의 독주를 의미하는 것이요, 큰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재상께서는 노(魯)나라를 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吳)나라를 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자공의 말에 진상(陳常)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었나를 깨달았다.

그는 안색을 부드럽게 바꾸며 거듭 물었다.

"좋은 가르침이요. 그대의 말로 인해 나의 걱정이 일시에 씻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군대는 노(魯)나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오(吳)나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면 모든 대신들이 나를 의심할 터인데,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상께서는 일단 제(齊)나라 군사를 문수가 일대에 주둔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명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길로 오(吳)나라로 가서 오왕에게 '제나라를 쳐서 노(魯)나라를 구원해주시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오나라가 제나라를 치면 자연스럽게 군대를 돌릴 수 있으니, 누가 재상을 의심하겠습니까?"

진상(陳常)은 기뻐하며 국서에게 사람을 보내어 명했다.

- 세작의 보고에 의하면 오(吳)나라 군대가 우리 국경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오. 장군은 문수가에 주둔하되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여차하면 남쪽으로 달려갈 채비를 갖추시오.

진상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자공(子貢)은 그 길로 남쪽 오(吳)나라로 내려갔다.

오왕 부차에게 알현을 청한 후 말했다.

"제(齊)나라는 일찍부터 만승지국(萬乘之國)으로서 언제나 천하 패업에 대한 야욕을 불태워왔습니다. 지금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그 야욕을 이루기 위한 첫보입니다."

"제군(齊軍)은 노(魯)나라를 무찌르고 나면 반드시 오(吳)나라를 칠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노나라나 오나라를 위해 불행한 일입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의 수도가 비었을 때 군사를 몰아 쳐들어가지 않으십니까. 만승의 나라인 제나라를 쳐서 제, 노나라를 속국으로 거느리면, 오나라의 위세는 진(晉)나라보다 더 커집니다. 왕께서는 천하 패권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북방을 노리고 있던 오왕 부차(夫差)는 자공의 권유를 듣자 귀가 솔깃했다. 그러면 서도 어쩐지 선뜻 승낙하기가 꺼림칙했다.

자공의 변설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던 것이다.

그는 슬며시 발을 뺐다.

"그대의 말이 옳소. 하지만 우리나라 남쪽에는 월(越)나라가 있소이다. 내가 일찍이 월왕을 회계산으로 몰아넣어 핍박한 적이 있는데, 듣자하니 그 일로 인해 월왕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내게 보복할 기회만을 기다리는 중이라 하오. 나는 먼저 월나라를 쳐 정벌한 후 그대의 계책에 따라 제(齊)나라를 칠까 하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오."

자공(子貢)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吳)나라는 천하 패업을 다룰 수 없습니다. 월나라는 약하고 제나라는 강합니다. 약한 월(越)나라를 쳐봤자 아무 이득이 없으며, 강한 제나라를 내버려두면 큰 불행이 닥칩니다."

"오(吳)나라가 월나라를 치는 사이 제(齊)나라도 노나라를 쳐 북방을 도모하면 그때는 북쪽으로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 커다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바가 아닙니다. 어찌 월나라와 제나라를 비교하십니까?"

"만일 왕께서 정히 월(越)나라가 근심이 되신다면 제가 월왕을 만나 월나라에서도 응원군을 보내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그리되면 월나라는 텅 비게 되고, 왕께서는 아무런 걱정없이 제(齊)나라 정벌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공의 말이야말로 부차(夫差)가 노리던 바가 아니던가.

그는 의자가 들썩거릴 정도로 기뻐하며 자공의 두 손을 잡았다.

"진실로 그렇게만 되면 내 그대와 함께 기쁨을 나누겠소!"

이렇게 해서 자공(子貢)은 또 남쪽 월(越)나라를 향해 떠나갔다.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1)

월왕 구천(句踐)은 유명한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들떴다. 백성들을 시켜 길을 닦게 하여 친히 30리 밖으로 나가 자공을 영접했다.

가장 훌륭한 공관으로 안내한 후 말했다.

"여기는 궁벽한 동해의 나라인데 선생께서 어인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특별히 왕을 위해 왔습니다."

"선생께서 이렇듯 오셨으니 이는 월(越)나라의 복입니다. 어리석은 과인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자공(子貢)이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신이 이번에 오왕을 만나보니 오(吳)나라는 노나라를 돕기 위해 제나라를 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월왕께서 오나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의심하여 오왕은 제(齊)나라를 치는 대신 월나라를 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오나라를 떠나 급히 월나라로 내려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차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월왕 구천(句踐)은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공손히 청했다.

"선생께서는 부디 이 몸을 위해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대저 남에게 보복할 뜻이 없으면서도 의심을 산다면 이는 일을 서투르게 하는 것이요, 남에게 보복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게 했다면 이는 일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일을 실행하기도 전에 발설되었다면 일은 이미 위험지경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잘못을 일컬어 곧 '삼오(三誤)' 라고 합니다."

"....."

"만일 왕께서 오나라에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의심부터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오왕(吳王)은 교만해서 간신을 좋아하고, 태재 백비는 세도를 누리기 위해 아첨을 잘한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지금이라도 오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吳)나라가 제(齊)나라를 치는 데 응원군을 보내겠다고 자청하십시오. 그러면 오왕은 월(越)나라에 대해 의심을 풀 것이요, 마음놓고 제나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오군(吳軍)이 제나라와 싸워 이기면 오왕은 더욱 교만해져 다시 진(晉)나라를 향해 쳐들어갈 것이며, 패하면 오나라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왕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이니, 오성(吳城)이 빈 틈을 타 오나라를 치면 어찌 승리를 거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공의 말을 듣는 순간 월왕 구천(句踐)은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오는 듯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자공(子貢)을 향해 두 번 절을 올렸다.

"하늘이 과인을 위해 선생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의 말씀은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백골(白骨)에 살이 돋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선생의 가르침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구천(句踐)은 감사의 마음으로 황금 1백 일(鎰)과 보검 한 자루, 양마 두 마리를 선사했다.

그러나 자공(子貢)은 그것을 받지 않고 표연히 월(越)나라를 떠났다.

그는 다시 오왕 부차에게로 왔다.

부차(夫差)는 결과가 궁금하여 물었다.

"어떻게 되었소?"

"월왕(越王)은 오나라에 대해 송구한 마음만 있을 뿐 보복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만간 사자를 보내어 왕의 의심을 풀어드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차는 기뻐하여 자공을 공관으로 보내 편히 쉬게 했다.

닷새 뒤였다.

과연 월나라 대부 문종(文種)이 사신의 자격으로 오나라로 와 월왕 구천의 말을 전했다.

- 동해의 천신 구천(句踐)은 삼가 아뢰입니다. 듣자하니 왕께서 장차 대의(大義)를 일으켜 노(魯)나라를 구하고 제나라를 치려 하신다니, 천신 구천은 이에 일조하기 위해 친히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문종을 통하여 보광검(步光劍)과 명장 굴로(屈盧)가 만든 창, 그리고 갑옷 20벌을 먼저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부차(夫差)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공을 불러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한 후 물었다.

"월왕(越王)은 참으로 신의가 있는 사람ियो. 그가 친히 과인을 따라 제(齊)나라 정벌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선생께서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자공(子貢)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쓰면서 그 임금까지 부리는 것은 불의(不義)입니다. 왕께서는 그가 보내는 예물과 응원군만 받으실 뿐, 월왕이 오는 것은 사양하십시오."

부차(夫差)는 자공이 시키는 대로 문종을 통해 말했다.

- 월왕이 굳이 따라나설 필요는 없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공(子貢)은 비로소 느긋한 마음으로 본국인 노(魯)나라로 돌아갔다.

그 무렵, 오자서(伍子胥)는 거의 궁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

오왕 부차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오자서 또한 궁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은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중에 오왕 부차(夫差)가 전군을 일으켜 제나라를 정벌하러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연실색했다.

'이를 만류하지 않으면 오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그는 궁으로 달려가 부차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월(越)나라를 놔두고 제나라를 치려 하신다니, 이게 웬말입니까? 월나라는 우리 오(吳)나라에 있어서 쉽게 다스릴 수 없는 병과 같고, 제(齊)나라는 그저 부스럼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제나라는 천 리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며, 우리 나라는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곳까지의 군량을 무슨 수로 대려 하십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반대요, 토월론(討越論)을 주장하니 부차로서는 오자서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불쾌해했다.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중얼거렸다.

"요망하구나. 어찌 군사를 내기도 전에 불길한 소리만 지껄이는가. 저 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태재 백비(伯嚭)가 그 말을 듣고 나지막히 속삭였다.

"오자서는 선왕 때부터 지내온 노신입니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를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어 선전문(宣戰文)을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나라는 분노하여 반드시 오자서(伍子胥)를 죽일 것입니다."

"남의 칼을 빌려 소를 잡자는 말이구려. 그것 참 좋은 계책이오."

부차의 허락이 떨어지자 백비(伯嚭)는 선전문을 작성했다.

제나라의 화를 돋우기 위한 것이라 격렬한 문투로 제간공을 욕했다.

부차(夫差)는 오자서를 불러 명했다.

"경(卿)이 가서 제나라에 이 선전문을 전하고 오시오."

오자서(伍子胥)는 오나라가 망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자신이야 오나라와 함께 생을 마쳐도 상관없으나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이었다.

그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심하다 마침내 아들 오봉(伍封)을 대동하고 제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다.

'대(代)를 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지난날 오나라가 제나라와 교류를 통할 때 오자서(伍子胥)는 포식의 아버지 포목(鮑牧)과 친분을 맺은 바 있었다.

오자서(伍子胥)는 임치성에 당도하자마자 제나라 대부 포식부터 찾아갔다.

포식(鮑息)이 놀라서 물었다.

"재상께서 저희 집에 웬일이십니까?"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왔소이다. 내 자식을 부탁하니 그대는 이 아이를 동생처럼 잘 돌봐주시오."

포식(鮑息)은 오자서의 뜻을 짐작했다.

"삼가 호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오자서(伍子胥)가 아들 오봉을 불러 말했다.

"너는 이제부터 이분을 형님으로 모시도록 해라. 그리고 이후 성(姓)을 왕손씨(王孫氏)로 바꾸어 행세하도록 하라. 오씨(伍氏)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해라."

그랬다.

오자서(伍子胥)는 그때 이미 자신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아들 오봉(伍封)을 제나라 땅에 남겨놓고 자신은 미련 없이 남은 생명을 불태우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내일이면 죽는다. 설사 살아 돌아간들 오왕(伍王)은 내게 죽음을 내릴 것이다.'

그는 불현듯 손무(孫武)를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2)

다음날, 오자서(伍子胥)는 제궁(齊宮)으로 들어가 제간공에게 부차의 선전문을 바쳤다.

선전문은 온통 욕설로 가득했다.

글을 읽고 난 제간공의 얼굴은 분노를 누르지 못해 연신 붉으라푸르락했다.

"저자를 잡아죽여라!"

무사들이 달려나와 오자서를 끌어내려 할 때 한 대부가 나서서 만류했다.

포식이었다.

"주공께서는 오왕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자서(伍子胥)는 오나라의 원로대신입니다. 그는 누차 오왕에게 간(諫)하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왕이 오자서(伍子胥)를 보낸 것은 우리 제나라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하려는 수작에서입니다. 주공께서는 오자서를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오왕 부차(夫差)는 어쩔 수 없이 제 손으로 오자서를 죽이게 될 것이요, 그로 인해 악명(惡名)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포식(鮑息)의 이 한마디는 효과가 있었다.

제간공(齊簡公)은 마음을 바꾸고 무사들을 내보냈다.

다시 오자서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오왕(吳王)에게 전하십시오. 제(齊)나라는 언제든지 오나라 군사를 맞아 싸우겠다고."

임무를 마친 오자서(伍子胥)는 아들을 제나라에 남겨둔 채 초연히 오나라로 돌아갔다.

제나라로 갔던 오자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본 오왕 부차(夫差)는 속으로 뜨끔했다.

'늪은 것이 명도 길군.'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오자서의 일은 나중에 처리하고 우선은 제(齊)나라를 치는 일에 전념해야 했다. 군사를 동원하고 배와 병차를 징발했다. 일부 수비 병력만 남겨놓고 전군을 동원할 작정이었다.

- 금년 5월, 제나라를 정벌하러 떠나리라!

출병일을 잡아놓은 그 날 낮이었다.

부차(夫差)는 고소대로 나가 점심을 먹었다. 온 몸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밀려왔다.

침상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나서부터 부차의 표정이 어두웠다.

기운이 없고 입도 잘 열지 않았다.

그 날 저녁 궁으로 돌아온 부차(夫差)는 태재 백비를 불러 힘없이 말했다.

"제(齊)나라 치는 일을 미룰까 하오."

백비(伯嚭)는 깜짝 놀랐다.

"제나라를 치는 일은 나라의 중대사입니다. 한순간에 이랬다저랬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관절 무슨 까닭이십니까?"

"사실은 아까 낮에 잠을 자다가 꿈을 하나 꾸었소. 그런데 그 꿈이 매우 이상했소. 길몽인지 흉몽 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아 제(齊)나라를 치러 나갈 마음이 일지 않는구려."

"어떤 꿈을 꾸셨기에 그러십니까? 신이 다소간 해몽을 할 줄 아오니 꿈 내용을 말씀해보십시오."

부차(夫差)는 망설이다가 낮에 꾸 꿈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부차(夫差)는 장명궁(章明宮)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 두 개의 가마솔이 걸려 있었는데, 아무리 불을 때도 그 안의 음식물이 익지 않았다.

별안간 검은 개 두마리가 나타났다.

한 마리는 남쪽을 보고 짖어댔고, 다른 한 마리는 북쪽을 보고 짖었다.

부차(夫差)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궁전 담 위에 삼 두 개가 나란히 꽃혀 있었다. 어디선지 물이 흘러들어 궁전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방 안에선 북소리도 아니고 종소리도 아닌 대장장이 쇠망치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동산에는 다른 나무는 없고 오동나무만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그런 정경을 바라보며 부차(夫差)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백비(伯嚭)가 별안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절을 올렸다.

"왕의 꿈이여, 참으로 좋고 아름답습니다. 왕이시여! 이는 우리 나라가 제(齊)나라 정벌에 성공할 징조입니다. 길몽 중의 길몽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장명(章明)이란 적을 무찌르고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마솥에 불을 지펴도 음식물이 익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덕이 그만큼 두텁다는 뜻입니다. 개 두 마리가 각기 남북을 향해 짖는 것은 사방 오랑캐들이 우리 나라에 복종하고 천하 제후들이 조례(朝禮)를 한다는 뜻입니다."

"삽 두개가 궁전 담에 꽂힌 것은 백성들이 함께 농사 짓는다는 뜻이며, 물이 전당 주변으로 흘러드는 것은 이웃나라들이 왕께 재물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 안에서 망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궁녀들이 왕을 위해 풍악을 올린다는 뜻이요, 오동나무가 서 있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거문고를 만들어 태평세월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꿈을 꾸셨는데, 어찌 만사가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백비의 해몽에 부차(夫差)는 기분이 풀리긴 했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꺼림칙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다시 대부 전여(展如)를 불러 물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는 흉몽인가 길몽인가?"

전여는 고개를 가웃 흔들며 대답했다.

"그 꿈은 복잡해 신이 해몽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흉몽(凶夢)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가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겠는가?"

"성밖 서쪽 양산(陽山)에 공손성(公孫聖)이라는 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능히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위해 그 기인을 불러오라."

전여(展如)는 왕손웅(王孫雄)과 함께 성밖으로 나가 공손성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공손성(公孫聖)은 전여로부터 부차의 꿈 내용을 듣더니 대뜸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전여와 왕손웅이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공손성의 아내가 나와 밝게 웃으며 대신 설명해주었다.

"제 남편은 이제나저제나 왕의 부름을 받아 이름 석 자를 떨치기를 바라더니, 이제야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공손성(公孫聖)이 허리를 펴며 울음 섞인 음성으로 아내를 꾸짖었다.

"슬프도다, 그대 같은 아낙이 어찌 나의 마음을 알리오! 나는 이제껏 수많은 점을 쳤보았지만 길흉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소. 그런데 지금 오왕의 꿈 이야기를 들어본즉 대단히 흉몽(凶夢)이라 내가 사실대로 해몽하면 오왕(吳王)은 필시 나를 죽일 것이요."

"이제 나는 궁으로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나는 당신과 생이별하는 것이 슬퍼 이렇게 눈물을 뿌리는 것인데 기쁨의 눈물이라니 웬말이요?"

전여(展如)와 왕손웅(王孫雄)은 공손성을 재촉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부차(夫差)는 공손성을 보자 다시 한 번 꿈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물었다.

"그대는 사실대로 이 꿈을 해석해보아라."

공손성(公孫聖)은 이미 집을 나설 때 결심했다.

얼굴빛을 바꾸며 굳은 음성으로 말했다.

"신이 사실대로 해몽하면 왕께서는 신을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찌 신이 거짓으로 꿈을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장명(章明)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명(章明)은 밝고 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점복가들이 해석하는 문자의 뜻은 사뭇 다르다.

장(章)이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다'는 뜻이다.

장황(章皇) - 즉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명(明)도 마찬가지다.

밝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로 밝음을 떠나 '명(冥)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어두운 세상,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장명궁(章明宮)을 보았다 함은 '패망하여 멸망에 이른다' 라는 뜻입니다."

백비(伯騶)가 해석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부차의 얼굴이 헬쓱해졌다.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3)

부차의 얼굴이 헬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손성(公孫聖)은 아랑곳없이 계속해서 꿈을 풀이해 나갔다.

"두 개의 가마솥에 불을 지폈는데도 안에 담긴 음식물이 익지 않았다는 것은 왕께서 싸움에 패해 도망다니며 화식(火食)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다음으로 검은 개 두마리가 남북을 향해 짖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빛은 음(陰)을 상징하는 것이며, 남북은 제(齊)나라를 비롯한 북방과 남쪽의 월(越)나라를 말합니다. 즉 음(陰)이 음 속으로 달려가니, 왕께서는 북을 도모하다 남으로부터 화(禍)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쯤 해서는 부차(夫差)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다.

"삼 두 개가 궁전 담에 꽃혀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함인가?"

"그것은 장차 월나라의 두 신하가 우리 오(吳)나라로 쳐들어와서 사직(社稷)을 파헤친다는 뜻입니다. 물이 전당 안으로 흘러든 것은 장차 파도에 휩쓸려 모든 방이 텅 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 안에서 대장장이 쇠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모든 궁녀들이 사로잡혀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동나무가 비스듬히 서 있는 것은 오동나무로 명기(冥器, 죽은 사람 곁에 묻는 기물)를 만들어 순장(殉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화(禍)를 면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齊)나라를 치는 일을 중지하시고 간교한 말로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간신들을 모두 궁에서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오(吳)나라가 편안해지고 왕께서도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태재 백비(伯騶)도 있었다.

그는 공손성(公孫聖)이 말하는 간신이 자기임을 눈치채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요망한 말을 지껄이느냐. 너 같은 놈은 지금 당장 능지처참(陵遲處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손성(公孫聖)은 추호도 겁내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백비를 향해 꾸짖었다.

"그대는 높은 벼슬에 앉아 있으면서 나라에 충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하여 아침하는 말만 일삼느냐? 후일 월(越)나라가 쳐들어와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면 네 목은 성할 줄 아느냐!"

"저.....저놈이.....!"

그렇지 않아도 공손성의 해몽에 기분이 무척 상해 있던 부차(夫差)는 더 이상 노기를 참을 수 없었다.

"저 무식한 백성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저렇듯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놈을 죽이지 않으면 누굴 죽이라! 무사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목을 베라!"

공손성(公孫聖)이 끌려나가며 외쳐댔다.

"하늘이시여, 나의 죽음을 굽어 살피시라. 나는 바른말을 하다가 죽는다면, 땅속에 묻히기를 거부하겠노라. 바라건대 나의 시체를 양산(陽山) 밑에 놔두어라. 내 기필코 나의 해몽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겠노라!"

무사들은 단칼에 공손성의 목을 쳐 죽였다.

부차(夫差)가 싸늘하게 명했다.

"좋다. 저놈 말대로 시체를 땅에 묻을 필요 없다. 양산 기슭에 던져놓아라. 들개들이 송장을 뜯어 먹을 것이요, 들불이 그 뼈를 태울 것이며, 바람은 그 그림자를 지울 것이다. 그자가 어찌 나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는가?"

오왕 부차(夫差)는 오기가 생겼다.

모든 대부와 장수에게 명을 내렸다.

- 내 친히 중군을 거느리고 제(齊)나라를 정벌하리라!

그러고는 백비를 부장으로 삼고, 서문소(胥門巢)를 상군 대장으로, 공자 고조(姑曹)를 하군 대장으로, 그리고 전여(展如)를 우군 대장으로 임명했다.

BC 484년(오왕 부차 12년) 여름, 마침내 부차(夫差)는 10만 대군과 월나라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산동을 향해 호호탕탕 진격해나갔다.

그때까지도 제나라 장수 국서(國書)는 문수가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오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영채를 뜯어 남쪽 국경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 임치에 있는 진상(陳常)이 동생 진역을 보내 새로운 명령을 시달렸다.

- 오군은 이미 박(博) 땅과 영(嬴) 땅을 통과하는 중이라 하오. 국서(國書)는 중군대장이 되고, 고무비(高無丕)는 상군 대장, 종누(宗樓)는 하군 대장이 되어 사수하시오. 이번 싸움은 우리 제(齊)나라의 흥망이 걸렸으니 북소리만 울릴 뿐 금(金)은 치지 마시오.

북은 진격의 신호요, 금은 퇴각의 신호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후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국서(國書)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오군의 진격은 더 빨랐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 박(博) 땅과 영(嬴) 땅을 함락시킨 후 애릉(艾陵)을 바라보고 북상하고 있었다.

애릉이라면 지금의 산둥성 내무현 동남쪽 땅으로 제나라 영토 한복판이었다.

"오군의 진격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국서(國書)는 대경실색하여 얼른 애릉으로 달려갔다.

결국 제군과 오군은 애릉(艾陵) 땅에서 마주쳤다.

오군의 선봉부대는 서문소가 이끄는 상군(上軍)이었다. 제군의 중군 대장 국서는 장수 공손하(公孫夏)와 진상의 동생인 진역, 공손휘 등을 내보내 오군의 선봉부대를 섬멸케 했다.

제군의 결의는 대단했다.

장수 공손하(公孫夏)는 출격하기에 앞서 부하들에게 명했다.

- 모든 군사는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진군하라.

진역(陳逆) 역시 수하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 죽으면 입 안에 넣는 구슬을 각자 지참하라.

이는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비장한 결심이었다.

공손휘(公孫揮)는 공손휘대로 제군의 사기를 높였다.

- 군사들은 긴 밧줄을 준비하라. 오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깎기 때문에 상투가 없다. 목을 베면 밧줄로 그들의 머리를 움아매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齊)나라 병사들은 벌써부터 대승을 거두기라도 한 듯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댔다.

이런 제군의 결의와 각오에 오군 선봉대장 서문소(胥門巢)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안간힘을 다해 싸웠으나 목숨을 내걸고 밀려드는 제군의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었다.

"제군의 북소리가 마치 우렛소리 같구나."

서문소(胥門巢)는 겁에 질려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결국 첫번째 싸움에서는 제나라 군사가 오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했다.

서문소는 패장병을 거느리고 오왕 부차에게로 돌아갔다.

부차(夫差)가 대로하여 목을 치려 하자 서문소(胥門巢)가 얼른 말했다.

"이번 싸움은 제나라 군사의 실정을 몰라서 진 것입니다. 다시 나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때는 군법을 달게 받겠습니다."

태재 백비도 옆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고 권하는 바람에 부차(夫差)는 서문소를 용서했다.

그 날 저녁 노나라 장수 숙손주구(叔孫州仇)가 군사를 이끌고 와 오군과 합세했다. 오왕 부차(夫差)는 숙손주구를 위로하며 앞길을 인도하게 했다.

다음날 제군과 오·노 연합군은 다시 애릉 들판에서 결전을 벌였다.

오·노 연합군은 주변 지리에 밝은 숙손주구의 군대를 제1진으로 배치하고, 전여(展如)를 제2진으로, 공자 고조(姑曹)를 제3진에 배치했다.

그리고 전날 패한 서문소에게 월군 3천 명을 내주어 적을 유인하게 했다.

오왕 부차와 태재 백비, 그리고 월군 대장 제계영(諸稽郢)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전세를 살피다가 상황에 따라 군사를 움직이기로 했다.

제군(齊軍)은 전날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자신에 찬 눈빛으로 오·노 연합군 진영을 노려보았다.

연합군 진영에서 한 장수가 수십 대의 병차를 이끌고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었다. 새로이 월군을 지휘하게 된 서문소(胥門巢)였다.

제군 대장 국서(國書)가 공손휘를 돌아보며 명했다.

"저놈은 전날 우리에게 패해 쫓겨간 장수다. 이번에는 저놈을 사로잡도록 하시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공손휘(公孫揮)가 창을 휘두르며 병차를 몰아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기세가 매우 흥포했다.

서문소(胥門巢)는 공손휘를 맞아 몇 번 칼을 휘두르다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음인지 병차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공손휘는 농칠세라 서문소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그 패주는 제군을 유인하기 위한 서문소의 계책이었다.

5리쯤 달렸을 때였다.

별안간 일성 포향이 울리더니 오른편 구릉 뒤편에서 한떼의 군마가 달려나와 공손휘의 앞을 가로 막았다.

서문소(胥門巢)도 말머리를 돌려 협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공손휘(公孫揮)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군 대장 국서(國書)는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장수 공손하(公孫夏)는 나가 공손휘를 도우라!"

공손하(公孫夏)가 바람처럼 달려 오. 노 연합군을 해집기 시작했다.

싸움은 팽팽했다.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4)

이번에는 오군 쪽에서 또 한 떼의 군사를 출전시켰다.

제2진에 포진하고 있던 전여(展如)가 달려나와 공손하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전세는 오·노 연합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었다.

국서(國書)는 다소 초조했다.

이대로 나가다간 패배가 분명했다. 좌우에 대기하고 있던 고무비(高無丕)와 종누(宗樓)를 돌아보며 외쳐댔다.

"그대들은 전군을 이끌고 나가 오군을 섬멸하라!"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것을 신호로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제군(齊軍)이 일제히 앞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오군 진영에서는 공자 고조(姑曹)가 출격했다.

마침내 양측 군대는 전군이 동원되어 한덩어리로 엉키게 되었다.

높은 언덕에 올라 싸움을 바라보던 오왕 부차(夫差)는 오군이 점차 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제(齊)나라 군사들이 마치 살기를 포기한 듯 달려드는 반면, 오(吳)나라 군사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 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부차(夫差)는 입술을 깨물며 태재 백비에게 하령했다.

"그대는 중군 1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도우라."

말을 마친 부차는 친히 징채를 쥐고 옆에 놓인 금(金)을 힘차게 두드렸다.

그런데 이 금 소리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원래 금(金)은 후퇴의 신호였다.

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지는 순간, 제(齊)나라 군사들은 제각기 생각했다.

-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가는 것만 있을 뿐 후퇴 명령을 내릴 리가 없다. 아마 오(吳)나라 군사에 게 퇴각 명령을 내리나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던 제(齊)나라 군사들은 오군이 퇴각할 것이라 예상하자 다소 여유가 생겼다. 긴장을 늦추고 긴 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오(吳)나라 군대는 북방과 달리 금(金)소리로 돌격 신호를 삼고 있었던 것이다.

제(齊)나라 군사들이 잠시 공세를 늦추는 사이 백비의 1만 군사가 벼락같이 싸움터로 덮쳐들었다. 고전하던 오군 병사들도 부차(夫差)가 친히 두드리는 금(金) 소리를 듣자 힘을 내어 일제히 돌격전을 벌여댔다.

눈 깜짝할 사이 전세는 역전되었다.

오군(吳軍)은 용기백배했고, 제군(齊軍)은 어지러움에 빠졌다.

"흠어지지 마라!"

국서(國書)가 악을 써댔으나 이미 전열이 무너진 제군을 제어하기는 힘들었다.

제(齊)나라 군사는 엎어지고 자빠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승기를 잡은 오(吳)나라 장수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제군을 조여나갔다. 제군을 셋으로 갈라놓은 후 교묘하게 포위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제군의 열세였다.

제군 장수 여구명(閭丘明)이 국서를 향해 다급히 말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께선 속히 옷을 바꿔입고 달아나십시오. 일단 퇴각한 후 다시 싸울 계책을 세우는 것이 상책입니다."

국서(國書)가 탄식했다.

"우리 10만 군사가 졸지에 패했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주공을 대하리오!"

국서는 말을 마치자 긴 창을 휘두르며 오군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끝내 국서는 무명 병졸들의 칼을 맞고 쓰러져 죽었다.

여구명(閭丘明)은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노나라 장수 숙손주구에게 사로잡혔다.

공손하(公孫夏)는 오군 장수 전여에게 포위당한 끝에 병차에서 떨어져 밧줄에 꿰뮴이었다.

공손휘(公孫揮)는 서문소의 칼을 맞고 죽었다.

종누(宗樓)는 공자 고조의 활을 맞아 숨이 끊어졌다.

- 오·노 연합군 대승!

제나라 장수 중 살아 돌아간 자는 고무비(高無丕)와 진역(陳逆)뿐이었다.

그 외의 장수와 군졸들은 대부분 죽거나 사로잡혔다.

제나라 병차 8백 승(乘)도 고스란히 오나라 전리품이 되었다.

임치성에 있던 제간공(齊簡公)은 제나라 군사가 대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경실색했다. 반면, 오나라 군대의 손으로 정적들을 대거 제거한 재상 진상(陳常)은 속으로 기뻐했다.

'이제 나를 견제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제간공에게 간(諫)하여 많은 황금과 보물을 바치게 한 후 오왕 부차에게 화평을 청했다.

- 앞으로 제(齊)나라는 이웃나라와 싸우지 않고 두터운 친선을 맺겠습니다.

오왕 부차(夫差)는 제나라의 요청을 수락하고 개선가를 부르며 본국으로 귀환했다.

그 해 가을의 일이었다.

오성으로 돌아온 부차(夫差)는 기고만장했다.

그는 특히 제나라 정벌을 반대한 오자서에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다.

일부러 오자서(伍子胥)를 불러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보라, 지난날 그대는 나에게 제(齊)나라를 치지 말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듯 크게 이기고 돌아왔다. 그대는 지난날의 그대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

오자서(伍子胥)는 부차의 오만함과 웅졸함에 화가 치밀었으나 눌러 참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하늘이 사람이나 나라를 망칠 때에는 먼저 조그만 기쁨을 주고, 그런 후에 큰 근심을 내리는 법입니다. 이번에 왕께서 제(齊)나라에 승리한 것은 작은 기쁨에 불과합니다. 신은 장차 닥쳐올 큰 근심이 두렵기만 합니다."

오자서(伍子胥)가 잘못을 시인하고 굴복하기를 바랐던 부차(夫差)는 오히려 그가 자신을 질책하자 흥겨운 기분이 싹 가셨다.

"내가 한동안 그대를보지 않아 마음이 상쾌했는데, 이제 그대를 보니 마음이 다시 어지럽구나!"

그는 오자서의 꼴도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횡하니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부차(夫差)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한 곳만을 응시했다.

그런 그의 얼굴은 흡사 얼빠진 사람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외쳤다.

"이상한 일이다!"

백비(伯嚭)를 비롯한 모든 신하가 물었다.

"왕께서는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전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네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서 있다가 불현듯 사방으로 흩어졌다. 또 기둥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북쪽을 향하여 섰던 자가 남쪽을 향하고 서 있던 자를 칼로 쳐서 죽였다. 그대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신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괴이하도다. 내가 헛것을 보았단 말인가?"

부차(夫差)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데, 오자서가 불쑥 끼여들었다.

"그것은 하늘이 왕에게 조심하고 삼가하라는 계시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사람 넷이 등을 기대고 섰다가 사방으로 흩어진 것은 오(吳)나라가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또 북쪽을 향하고 있던 사람이 남쪽을 향하고 있던 사람을 쳐죽였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반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죽일 징조입니다."

"왕께서는 매사 조심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뿐 아니라 왕의 신상에도 해가 닥칠 것입니다."

부차(夫差)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해대는 오자서(伍子胥)가 얄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대는 나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렇듯 상서롭지 못한 말만 지껄이는가? 나는 이제 그대 얼굴만 봐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오자서가 뭐라 대답하려는데 태재 백비(伯嚭)가 재빨리 아뢰었다.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좋은 길조입니다. 천하 모든 나라가 사방에서 오(吳)나라로 달려와 왕

에게 조례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왕께서는 주(周)왕실을 대신해서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

부차(夫差)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얼굴빛을 풀었다.

"경(卿)의 말을 들으니 답답하던 가슴이 일시에 풀어지는 듯하구나. 오자서는 이제 늙어 망령이 들었나보다. 나는 그의 말에 껄뮌치 않을 것이다."

오자서(伍子胥)는 이미 남은 생애에 미련이 없었다.

그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태재 백비(伯嚭)를 비꼬았다.

자신의 할 일을 다하겠다는 작정이었다.

"아아, 슬프도다. 충신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간신들은 제 세상을 만난 양 마구 떠들어대는 구나. 이러고서야 어찌 오(吳)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장차 이 나라 종묘사직(宗廟社稷)은 폐허가 되고 이 궁궐 또한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부차(夫差)는 다시 벌컥 화를 내었다.

"저 늙은 것이 못 하는 소리가 없구나. 지금까지 선왕에게 끼친 공로를 생각하여 죽이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차후로 오자서(伍子胥)는 결코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신에게 충성과 신의가 없었다면 이미 선왕께서도 저를 신하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신을 보고 싫어하지 않아도 신(臣)은 이 나라를 위해 왕 앞에 계속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부차와 오자서 간에 생긴 골은 더더욱 깊어갔다.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5)

그 날 밤이었다.

부차(夫差)는 서시의 방을 찾았다.

그녀의 육체를 탐닉함으로써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을 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시(西施)를 품에 안아도 부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서시는 시녀들을 통해 낮에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월(越)나라 범려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은 터였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때라고 생각했다.

부차의 품을 파고들며 물었다.

"왕께서는 오자서에 관한 소문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소문? 무슨 소문?"

"오자서(伍子胥)가 그 아들을 제나라 포씨 집에 맡기고 왔다는 소문 말입니다."

"오늘 낮에 오자서에게 어지러운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가 아들을 제(齊)나라에 맡기고 왔다는 말은 금시초문(今時初聞)이다. 그것이 사실이나?"

"백성들도 다 아는 일을 어찌 왕께서 모르십니까? 신첩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오자서(伍子胥)가 장차 반역을 꾀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원래 오자서(伍子胥)는 아들 오봉을 제나라 대부 포식의 집에 맡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얘기하

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비밀로 부치고 있었다.

태재 백비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오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던 월나라 재상 범려의 눈만은 속이지 못했다. 그는 오자서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극비리에 서시에게 그 정보를 전달했고, 서시(西施)는 이 제나저네나 그 일을 폭로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시의 말을 들은 오왕 부차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활화 타올랐다.

오자서(伍子胥)가 비록 자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떠벌려대기는 했으나 그 모든 게 오(吳)나라를 위한 충정에서일 것이라며 참아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신의 아들을 제(齊)나라에 빼돌려놓았다니.

이야말로 배신 중의 큰 배신이 아닐 수 없었다. 서시의 말대로 반역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인은 오자서(伍子胥)를 능지처참하리라!"

다음날 부차(夫差)는 아침 일찍 태재 백비를 불러 물었다.

"경은 오자서가 자기 아들을 제(齊)나라에 남겨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백비(伯嚭) 또한 깜짝 놀랐다.

"신은 금시초문입니다. 왕께서는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과인이 어디서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빨리 사람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알아보시오!"

백비(伯嚭)는 곧 궁중 시종을 오자서의 집으로 보냈다.

잠시 후 시종이 돌아와 보고했다.

"오자서의 아들 오봉(伍封)은 집에 없습니다. 제나라 대부 포식의 집에 머물러 있으며, 성(姓) 또한 왕손씨(王孫氏)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설마 했던 부차(夫差)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재 백비도 놀라는 가운데 속으로 머리를 재빨리 굴렸다.

'이제야 오자서(伍子胥)를 죽일 명분이 생겼구나.'

그가 막 뭐라고 아뢰려는데 부차가 추상같은 영을 내렸다.

"무사들은 오자서를 당장 잡아 대령하라. 내 친히 국문한 후 능지처참하겠다."

그러나 백비의 생각은 달랐다.

조정에는 오자서(伍子胥)를 지지하는 대부들이 상당수 있다.

오자서를 국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개입하고 오자서가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면 오왕 부차의 마음은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백비(伯嚭)는 재빨리 부차 앞으로 나가 말했다.

"신 백비가 왕께 아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오자서(伍子胥)는 선왕 대부터의 대신입니다. 우리 오(吳)나라에 대한 공도 적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진노를 누르시고 좀더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자서(伍子胥)가 선왕 대부터의 대신인지라 과인의 분노가 더욱 큰 것이요. 이는 배신을 넘어서 역모나 마찬가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소."

"웁으신 말씀입니다만, 오자서를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밝히다보면 우리 오(吳)나라의 불미스런

일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 왕의 체통과 위신을 깎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그 죄상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선왕 대부터의 대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번거롭게 형장을 벌일 필요 없이 오자서(伍子胥) 스스로 자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도일 것입니다."

"오자서(伍子胥)가 스스로 자결할 까닭이 없질 않소?"

백비(伯嚭)는 누구보다도 오자서의 성격을 잘 안다.

그는 천하 영걸임을 자처하는 사나이다.

명예와 자존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아버지와 형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실현한 것도 바로 그러한 성품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런 성품의 사람은 치욕(恥辱)을 가장 싫어한다.

"왕께서는 오자서의 그간의 공을 생각하시어 보검 한 자루를 그에게 하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왕의 뜻을 알아차리고 반드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렇까.....? 그가 자결할까?"

부차의 의심에 백비(伯嚭)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오왕 부차에 대한 경멸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추호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왕께서 내린 칼을 보면 틀림없이 자결할 것입니다."

백비의 장담에 부차(夫差)는 마음을 정했다.

"알겠소. 마침 과인에게 '촉루(屬鏤)' 라는 보검이 있으니, 그 칼을 오자서에게 내리도록 하리다."

오자서(伍子胥)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몹시 우울했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오왕 부차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고 태재 백비의 간교한 눈매가 눈앞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오자서(伍子胥)는 확신하고 있었다.

'월왕 구천(句踐)은 반드시 우리 오나라를 들이칠 것이다!'

월나라가 쳐들어오는 날 오(吳)나라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부차(夫差)는 월나라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은 태재 백비였다.

또 한 사람의 얼굴이 그의 눈앞을 스쳐갔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대부 피이(被離)였다.

피이(被離)는 공자 광(光), 즉 오왕 합려의 심복으로서 오나라 최고의 인물 감별가였다. 그는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망명해온 백비를 천거할 때 극력 반대했었다.

- 호걸께서는 백비의 겉만 보았을 뿐, 그 속은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 제가 백비(伯嚭)의 관상을 본즉, 그의 눈은 매 같고 걸음걸이는 범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욕심이 많고 야심이 대단하며, 잔인해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호걸(豪傑)을 위해 한마디 충고하면, 백비와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너무 믿었다가는 반드시 해를 당할 것입니다.

'아아, 나는 지난날 피이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오자서(伍子胥)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6)

어느 사이에 잠이 들었는가.

오자서(伍子胥)는 잠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버지 오사(伍奢)와 형 오상(伍尙)을 보았다. 그들은 오자서 앞에 나타나 말없이 울기만 했다.

오자서(伍子胥)는 꿈속에서나마 아버지와 형을 본 것이 반가워 두 사람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러는 순간 그들의 모습이 홀연 눈앞에서 사라졌다.

- 아버지, 형님.....!

오자서(伍子胥)는 안타까움에 소리 지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마음이 더욱 심란했다.

공연히 가슴이 쿵쿵거렸다.

'이상하구나. 왜 이리 불안한가. 이제껏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난 일이 없던 아버지와 형의 꿈을 꾸었기 때문인가.'

그럴 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왕명이오!"

왕명이라는 말에 오자서(伍子胥)는 정신이 번뜩 들었다.

서둘러 의관을 갖추고 궁에서 나온 시종을 맞아들였다.

시종은 뜰 한 가운데 서서 부차의 명령을 전했다.

"왕께서 재상에게 이 보검을 하사하시었소."

오자서(伍子胥)는 보검을 받았다.

예전에 그도 한 번 본 적이 있는 보검인 측루(屬鏤)였다.

부차(夫差)가 아끼는 칼 중의 하나다.

그는 대번에 부차의 뜻을 알았다.

'자결하라는 뜻이로구나.'

방금 전 꿈속에서 아버지와 형이 나타나 말없이 울다 사라졌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다.

오자서(伍子胥)는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뜻을 정했다.

측루(屬鏤)를 두 손으로 받들어 허공 높이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지난날 선왕은 부차를 의심하여 나라를 맡기지 않으려 했건만, 나는 부차(夫差)를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피이(被離)는 백비를 쓰지 말라고 충고했건만, 나는 백비(伯比)를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차(夫差)는 나의 충고를 듣지 않고 백비는 간교한 말로 측루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찰입니다. 나는 오늘 죽습니다만, 내일이면 월(越)나라 군사가 쳐들어와서 오(吳)나라 사직을 파헤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을 마치자 오자서(伍子胥)는 보검을 뽑아들었다.

날카로운 빛이 뜰 안에 번뜩였다.

오자서(伍子胥)는 칼을 거꾸로 쥔 후 이번에는 집안 식구와 문객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 두 가지 일을 해주기 바란다."

"유명(遺命)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두 눈을 뽑아 동문 위에 걸어놓아라. 월(越)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 오(吳)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니라."

".....!"

"또한 내가 죽거든 나의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한 그루 심어라. 그리하여 부차(夫差)가 구천의 손에 죽게 될 때 그 가래나무로 부차의 관을 짜도록 하라!"

참으로 지독스런 유언이었다.

이윽고 오자서(伍子胥)는 칼끝을 자신의 목에 대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칼은 오자서의 목을 뚫고 뒤로 빠져나왔다.

춘추시대 끝자락인 어지러운 시대에 태어나 온갖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활약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풍운아 오자서(伍子胥)가 역사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늘도 한 영걸(英傑)의 사라짐을 알았음인가.

별안간 먹장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뜰에 서서 오자서의 죽음을 지켜보던 식구와 문객들은 통곡하여 핏물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궁에서 나온 시종은 오자서의 목에 꽂힌 촉루검을 뽑아 궁으로 돌아갔다.

부차(夫差)가 시종에게 물었다.

"유언은 무엇이더냐?"

시종은 사실대로 말했다.

부차의 얼굴살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자가 죽으면서까지 그런 저주를 남겼단 말인가?"

그는 즉시 수레를 타고 오자서의 집으로 갔다.

오자서(伍子胥)의 시체는 그때까지도 뜰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부차(夫差)는 한 손에 촉루검을 거머쥐고 오자서의 시체를 향해 외쳐댔다.

"오자서야, 죽은 후에 네가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을 마치고 동시에 그는 칼을 들어 오자서의 목을 끊었다.

부차(夫差)는 좌우를 둘러보며 또 명했다.

"그의 소원대로 이 목을 성문 위에 걸어놓아라. 하지만 동문(東門)이 아니라 월(越)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남문(南門) 위에 걸어라. 죽은자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나는 확인해보리라!"

그는 또 외쳤다.

"오자서의 목 없는 시체를 치이(鴟夷)에 담아 전당강에 던져 버려라. 해와 달이 너의 뼈를 녹일 것이며, 물고기와 자라가 너의 살을 뜯을 것이다."

치이란 말가죽으로 만든 술부대를 말한다.

궁중 무사들은 부차(夫差)가 시키는 대로 오자서의 목을 남문에 내걸고 그 시체를 치이(鴟夷)에 담아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자서(伍子胥)의 시체는 가라앉지 않았다. 물에 둥둥 떠 다니다가 며칠 후 한 언덕에 닿았다. 그 근처에 사는 어부 하나가 오자서의 시체가 담긴 술부대를 발견하고 건져올려 몰래 오산(吳山)에다 장사 지내주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산을 서산(胥山)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오자서(伍子胥)가 묻힌 산이라는 뜻이었다.

아울러 무덤 앞에 사당을 지어 해마다 성대한 제사를 지내며 원통하게 죽어간 오자서의 넋을 위로했다.

서산(胥山)은 강소성 오현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도 그 곳에 가면 오자서의 사당이 세워져 있다.

-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시원하다!

오자서를 죽인 오왕 부차(夫差)는 더 이상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하늘을 날듯 기분이 상쾌했다.

그는 오자서의 후임으로 백비를 재상으로 올려 나라일을 다스리게 했다.

백비(伯嚭)는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룬 것이었다.

애릉 전투에서 제(齊)나라를 격파한 이후 오왕 부차(夫差)는 새로운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른바 '천하 패업'이었다.

그는 북방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 2차로 물길을 뚫었다.

3년 전에는 장강과 회수(淮水)를 연결하는 운하를 팠다.

이번에는 회수와 제수(濟水)사이에 운하를 파 두 강의 물길을 연결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오(吳)나라 사람들은 배를 타면 가만히 앉아 제(齊)나라에 다다를 수 있었다.

남북을 잇는 이 교통로 개척은 당시로서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후일 중국 대륙이 하나의 생활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7)

운하가 완성되자 부차(夫差)는 수시로 회수와 제수를 넘나들며 제·노·위·진(晉) 등 북방의 여러 나라와 교분을 맺었다.

BC 482년(오왕 부차 14년)이면 오자서가 자결한 지 만 2년이 지난 때다.

그 해 여름, 오왕 부차(夫差)는 친히 북쪽으로 나가 진(晉)·노·위나라 군주를 황지(黃池) 땅으로 초빙해 맹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맹주자리에 오르리라!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지도 몰랐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는 전군을 동원하여 여러 제후를 위압함으로써 '패공(霸公)'이라는 지위를 얻어낼 결심이었다.

이때 오나라 세자는 부차의 아들 우(友)였다. 그의 성격은 아버지 부차와는 판판이었다.

더욱이 어릴 적부터 스승이나 다른없는 재상 오자서(伍子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월(越)나라가 굴욕을 감내하면서 오(吳)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복수를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런 월나라를 방치한 채 조만간 아버지가 전군을 거느리고 북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세자 우(友)는 염려하는 마음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 우리 대군이 중원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 오(吳)나라는 텅 빈다. 그동안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오자서(伍子胥) 장군도 죽고 없다. 월왕 구천(句踐)은필시 우리 땅을 침공할 것이다. 이 일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세자 우(友)는 아버지의 북행(北行)을 만류하고 싶었다.

그러나 오자서가 자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선불리 간(諫)했다가 그 자신 무슨 해를 당할지 알 수 없었다.

겁이 났다.

그렇다고 이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세자 우(友)는 여러 날을 고심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풍자와 비유로써 아버지에게 간(諫)하기로 한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세자 우(友)는 탄궁과 탄환을 준비하여 후원으로 들어갔다가 점심 때쯤 되어 내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진흙탕 속에서도 빠졌는지 옷이 젖은 채 온통 흙투성이였다.

부차(夫差)가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어디서 뭘하고 왔기에 그렇게 옷을 버렸느냐?"

세자 우(友)가 대답했다.

"소자는 후원으로 새를 잡으러 갔다가 높은 나무 위에서 매미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자는 또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를 노리고 접근해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미는 노래 부르는 데 열중한 나머지 사마귀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 나뭇잎 사이에는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참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마귀 역시 매미에 정신을 팔려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자는 기회다 싶어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참새를 향해 탄궁을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데 또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 발 밑에 진흙투성이의 물구덩이가 패어 있을 줄이야."

"결국 소자는 참새에 정신이 팔려 발을 헛디고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소자가 옷을 버리게 된 내력입니다."

오왕 부차(夫差)가 꾸짖었다.

"너는 눈앞의 이익만 탐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결코 현명한 자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어찌 나의 뒤를 이어받겠느냐?"

"부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소자는 천하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노(魯)나라는 주공 단(旦)의 후예이며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齊)나라는 무고히 노나라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제나라는 우리 오(吳)나라가 장강과 회수를 건너와 자기네 등 뒤를 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우리 오(吳)나라는 제나라를 쳐서 이겼지만, 월왕 구천(句踐)이 등 뒤에서 칼을 갈며 이제나 저제나 쳐들어올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왕의 말씀대로라면 천하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차(夫差)는 그제야 아들이 자신에게 간(諫)하고 있음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이놈의 말버릇이 오자서와 똑같구나. 너마저 오자서(伍子胥)를 닮아 나의 패업지도를 방해하려 드는 것인가. 한 번 더 그런 소리를 하면 너를 내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에 세자 우(友)는 얼굴이 새하얘져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너무나 겁이 많았던 것이다.

마침내 오왕 부차(夫差)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성을 출발하여 황지(黃池) 땅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노나라 탁고 땅에 들러 노애공(魯哀公)과 회견을 했다.
 탁고는 오나라 영토로 지금의 강소성 소현(巢縣) 서북쪽 일대다.
 이어 운(隕) 땅에서는 위출공을 불러내어 회담을 했다.
 위출공(衛出公)은 오왕 부차와 회견할 마음이 없었으나 그가 거느린 군대가 10만이 넘는다는 소리에 못 이기는 척 부차의 초청에 응했다.
 부차(夫差)는 또 진정공(晉定公)을 황지로 불러내기 위해 진(晉)나라로 사자를 보냈다.
 - 과인은 지금 제나라를 진압하고 진(晉)· 위·노나라 등과 맹방지의(盟邦之義)를 맺고자 하오.
 진공(晉公)은 이러한 나의 뜻을 받들어 황지로 나와주기 바라오.
 오만불손한 격문이었다.
 이때 진나라 군주는 진정공(晉定公)이었으나, 실제 권력자는 조양(趙鞅)이었다.
 조양은 오나라와 싸울 마음이 없었다. 진정공을 모시고 황지 땅으로 나갔다.
 황지는 황정(黃亭)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하남성 봉구현 서남쪽 땅이다.
 진정공과 조양이 황지 땅에 도착했을 때는 BC 482년 6월.
 이로써 오왕 부차(夫差)는 자신의 소망대로 북방 여러 제후들과 회맹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황지 회맹'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맹주자리에 오르는 일뿐이다.'
 회맹에서 맹주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곧 패공(霸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오(吳)나라는 중원 제후국들로부터 오랑캐라 멸시받아 오지 않았던가.
 부차(夫差)는 득의양양했다.
 한편으로는 들뜬 가슴을 누를 수 없었다.
 부차(夫差)는 대부 왕손락(王孫駱)을 불러 명했다.
 "이제 내일이면 회맹을 열 것인데, 누가 맹주가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혼란만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진나라 재상 조양(趙鞅)에게로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해오라."
 부차(夫差)가 진나라를 지목한 것은 그 동안 중원의 패자로 자처해온 나라가 바로 진(晉)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진나라 재상 조양(趙鞅)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주장은 이러했다.
 - 우리 진(晉)나라는 진문공 이래 대대로 중원의 맹주로 군림해왔소. 어찌 오(吳)나라에 맹주자리를 넘겨줄 수 있으리오.
 이에 대해 왕손락(王孫駱)은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 희씨 성을 가진 주왕실의 제후들 중 가장 항렬이 높은 것은 바로 태백(太伯, 주문왕의 백부)의 후예인 우리 오(吳)나라요. 비록 지금까지는 진(晉)나라가 맹주 노릇을 했다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오나라가 맹주가 되어야 할 것이오.
 - 더욱이 우리는 초(楚)나라를 격파하고 제(齊)나라를 굴복시켰소. 이에 비해 진나라가 한 것은 무엇이오? 고작 정(鄭), 위(衛) 등 조그만 나라들만 협박하여 입술에 피를 발랐을 뿐이 아니오? 이제 시대는 변했소.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소.
 조양(趙鞅)과 왕손락(王孫駱)은 밤이 깊도록 맹주자리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회맹이 며칠 연기되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 사태는 황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남쪽 오나라 땅에서 발생했다.
오자서(伍子胥)가 예상했던 대로 월왕 구천(句踐)이 오나라를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8)

'기회다!'

월왕 구천(句踐)은 부차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지로 향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눈을 매 처럼 번뜩였다.

범려와 문종을 불러 물었다.

"이제 오자서도 죽었소. 더욱이 오왕(吳王)은 맹주자리에 눈이 멀어 도성을 비운 채 북방에 나가 있소. 지금이야말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칠 때가 아닌가 싶소."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이 동시에 대답했다.

"바야흐로 오(吳)나라를 칠 때입니다."

그 날부터 월나라 전역은 전시 체제로 돌입했다.

모든 지휘는 재상 범려(范蠡)가 맡았다.

- 대부 주무여(疇無餘)는 전위부대를 거느리고 오나라 국경을 돌파하라.
- 나머지 장수들은 수군과 육군으로 나누어 왕을 모시고 일시에 오성을 들이치라.

수군 2천 명은 문종(文種)이 지휘하기로 했다.

육군 4만 명은 범려(范蠡)가 직접 거느렸다. 친위부대 6천 명은 구천을 호위하며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별동대 역할을 겸하기로 했다.

마침내 월(越)나라 5만 대군은 강과 바다와 육로를 따라 일제히 오나라로 쳐들어갔다. 전위(前衛) 대장 주무여가 가장 먼저 오나라 국경을 돌파했다.

이때 오(吳)나라 영토를 지키고 있던 군대는 불과 1만.

세자 우(友)가 도성 수비 책임자였고, 그 동생 공자 지(地)와 왕손미용(王孫彌庸)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세자 우는 비록 전투 경험이 없었지만 월나라 침공에 대해 나름대로 철저한 방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세자 우(友)는 월나라 선봉자 주무여(疇無餘)가 오성 교외에 이르렀다는 보고에 접하자 왕손미용을 불러 명했다.

"주무여는 공을 앞세워 마구 덤벼들 게 분명하오. 복병을 이용하면 그들의 예기를 꺾을 수 있을 것이오."

왕손미용(王孫彌庸)은 5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주무여를 맞이해 싸웠다.

과연 주무여(疇無餘)는 단숨에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앞서 저돌적으로 덤벼들었다. 왕손미용은 쫓기는 척하다가 좌우로 숨겨둔 복병을 이용하여 월군을 크게 무찔렀다.

첫 싸움은 방어군인 오군(吳軍)의 승리였다.

그러나 월왕 구천(句踐)으로서는 와신상담하며 10년을 기다려온 복수전이었다. 전위부대가 패했다

하여 공세를 늦출 리 없었다.

다음날 구천(句踐)과 범려(范蠡)가 거느린 5만 대군이 일시에 도착하여 오성을 포위했다. 오나라 세자 우(友)는 새카맣게 물러드는 월군을 보자 금방 기세가 꺾였다. 감히 나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그러자 전날 싸움에서 이긴 왕손미용(王孫彌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세자 우(友)에게 말했다.

"월나라 군사는 이제껏 한 번도 오(吳)나라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우리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1천 리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번 더 싸워서 이기면 저들은 틀림없이 후퇴할 것입니다. 만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때 성문을 닫아걸고 지켜 왕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세자 우(友)가 생각해보니 그럴듯했다. 그는 다시 왕손미용에게 군사를 내주어 나가 싸우게 하고 자신도 그 뒤를 따랐다.

월왕 구천(句踐)은 성문이 열리고 오군이 나오는 것을 보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오늘에야 오성을 점령할 수 있겠구나."

구천은 오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외쳐댔다.

- 공격하라!

두 나라 군대가 하나로 엉키어 싸우기 시작했다.

범려(范蠡)는 월군의 대형을 학의 날개 모양으로 펴 수가 적은 오군을 포위해 나갔다. 오나라 군사 중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부대는 오왕 부차를 따라 황지로 나갔다. 남아 있는 군사들의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다.

반면 월군(越軍)은 범려의 지휘 아래 10년간을 훈련해왔다.

검극(劍戟)과 궁노(弓弩)를 집중적으로 연마해온 정병 중의 정병이었다. 게다가 숫자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왕손미용(王孫彌庸)이 아무리 매복계를 썼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월군의 사나운 기세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끝내 그 날 싸움에서 왕손미용(王孫彌庸)은 월군 장수 설용(泄庸)의 창에 아랫배가 찔려 죽었고, 세자 우(友) 또한 여러 대의 화살을 맞고 병차에서 떨어졌다.

월군이 그를 사로잡기 위해 물러들자 그는 재빨리 땅에 떨어져 있던 칼을 주워들어서 자신의 목을 찌르고 자결했다.

두 번째 싸움에서 오군을 대파한 월군(越軍)은 일제히 오성으로 밀려들었다.

성을 지키고 있던 공자 지(地)는 기겁을 했다. 성문을 닫아건 채 일체 응전하지 않았다.

오성(吳城)은 일찍이 오자서가 중원 북방의 성을 모방하여 지었다. 견고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 월군이었지만 성곽 싸움에는 익숙치 않았다.

월왕 구천(句踐)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전 태세로 돌입했다.

2천 수군을 태호(太湖)에 집결시키고, 4만 육군을 서문(胥門)과 창문(閶門) 사이에 주둔시켰다.

구천(句踐)은 범려를 불러 명했다.

서문과 창문은 다 오성의 서쪽 성문이다.

- 고소대(姑蘇臺)를 불지르시오.

범려는 1천 군사를 이끌고 고소산으로 달려가 웅장하기 이를 데 없는 고소대에다 불을 질렀다.

고소대(姑蘇臺)는 이내 거센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은 열흘이 지나도록 사그라질 줄 모랐다. 공자 지(地)가 지휘하는 오나라 군사들은 오성 위에 올라 고소대를 태우는 불길만 구경할 뿐 감히 나와 싸우질 못했다. 그들로서는 하루빨리 오왕 부차(夫差)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제 40장 오자서(伍子胥)의 죽음 (9)

황지 회맹에서는 그때까지도 누구를 맹주로 올릴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나라 재상 조양(趙鞅)과 오나라 대부 왕손락(王孫駱)은 연일 이 문제로 논쟁을 벌여댔다.

그러할 때 오나라 도성으로부터 밀사가 도착했다.

밀사는 오왕 부차의 거처로 들어와 고국 사정을 고했다.

"월(越)나라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세자께서는 전사하시고, 고소대(姑蘇臺)는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도성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급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돌아가시어 나라를 구하십시오."

청천벽력(靑天霹靂)과도 같은 소리였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부차(夫差)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던 재상 백비를 돌아다보았다.

그때였다.

별안간 백비가 칼을 뽑아들더니 불문곡직하고 휘둘렀다.

"아악!"

쓰러진 사람은 밀사였다.

부차(夫差)가 영문을 알지 못해 물었다.

"어찌하여 밀사를 죽였는가?"

"월군(越軍)이 우리 나라를 침공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부터 퍼지면 진(晉)나라는 물론 제, 위, 노나라까지 일시에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도성으로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도 본국에서 밀사가 온 것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오왕 부차(夫差)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다.

"경(卿)의 말이 옳소.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는 맹주(盟主)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소. 그런데 구천이란 놈이 하필 이럴 때 배신하다니! 맹회를 그만두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맹회를 계속하여 기어코 맹주자리에 오른 후 귀국하는 것이 좋겠소?"

백비도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맹회를 포기하고 철군하자니 맹주(盟主)자리를 놓치게 되고, 끝까지 진(晉)나라와 맹주자리를 다투자니 언제 도성이 함락될지 모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군신이 서로 마주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왕손락(王孫駱)이 끼여들었다.

"그 문제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라."

"이렇듯 사세가 급한 때에는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낭패당하기 일쑤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왕께서는 전군에 북을 울리게 하여 진(晉)나라 영채를 에워싸십시오."

"그런 후 진공(晉公)과 조양(趙鞅)을 억압하여 맹주 자리를 양보하라 하면 제아무리 진나라라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맹을 마치고 그 길로 돌아가 구천(句踐)을 격파하면 두 가지 일 모두 왕의 뜻대로 이루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책이 매우 좋다!"

그 날 밤이었다.

오나라 군사들은 야참을 배불리 먹은 후 입에 매(枚)를 물고 소리 없이 영채를 출발했다. 진군(晉軍) 영채가 있는 곳까지는 불과 5리 정도였다. 그들은 1리 정도를 남겨놓고 진군 영채를 빙 둘러 포위했다.

오나라 중군은 하얀 병차에 하얀 기에 하얀 갑옷을 입었고, 좌군은 붉은 병차에 붉은 기에 붉은 갑옷을 입었다. 그리고 우군은 검은 병차에 검은 기에 검은 갑옷을 입었다.

이윽고 어둠이 물러가고 동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침해가 떠오르자 오(吳)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북을 울렸다.

둥둥둥.....!

황지(黃池)들판은 삼시간에 요란한 북소리로 가득했다.

기겁한 것은 진(晉)나라 군사들이었다.

어느 틈엔지 사방으로 오나라 대군이 빙 둘러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나라 재상 조양(趙鞅)은 대뜸 오왕 부차의 의도를 짐작했다.

심복 대부인 동갈(董褐)을 오군 진영으로 보내 따졌다.

"우리는 오(吳)나라가 친선을 도모하자고 하여 이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해괴한 장난입니까? 그대들이 지금은 우리를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후일 강성(絳城)에서 대군이 출동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왕께서는 어서 포위를 풀고 군사들을 물리십시오."

그러나 한시가 급한 부차(夫差)로서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동갈을 자신의 군막으로 불러들여 협박했다.

"주(周)왕실에서는 과인에게 명하여 중원의 방백이 되라고 명하셨다. 그런데 진(晉)나라가 명령을 어기고 과인과 맹주자리를 다투니, 더 이상 시일을 지체할 수 없다. 과인은 성격이 급한지라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대는 돌아가 진공(晉公)에게 말을 전하라. 과인을 맹주로 인정하고 맹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우리와 한 판 싸움을 벌일 것인가?"

동갈(董褐)은 부차의 험악한 기세에 놀려 도망치듯 진군 영채로 돌아가 진정공과 조양에게 보고했다.

"아무래도 오(吳)나라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오왕의 표정이 무척 다급해 보였습니다. 눈을 부릅뜨며 험악한 소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눈빛은 커다란 근심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국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동갈의 말에 조양(趙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듣자하니 어젯밤 오(吳)나라 본국에서 사자가 왔다고 하던데, 필시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오. 월왕은 오나라에 깊은 원한이 있는데, 어쩌면 월(越)나라가 오나라 도성을 침공한 것인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오왕(吳王)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 형편이 못 되겠군요. 재상께서는 시일을 끌어 맹주

자리를 오왕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아니, 그것은 위험하오. 만일 내 짐작이 맞는다면 오왕(吳王)은 궁지에 몰린 터라 그에게 맹주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오."

"그대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병력은 그다지 많질 않소. 공연히 맹주자리 때문에 이 곳에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오?"

"하면, 오왕에게 맹주(盟主)를 넘겨주실 작정이십니까?"

"그렇소. 하지만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 일!"

".....?"

"나는 오왕에게 왕호(王號)를 버리라는 조건을 내세울 작정이오."

당시 중원에서 왕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두왕실 외에 초(楚)와 오(吳), 그리고 월(越)나라뿐이었다. 모두가 남만 이족(異族)들이다.

공호(公號)를 사용하는 제후들에게는 이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다.

이들테면 질서를 파괴하는 무법자들이었으나, 어찌랴. 힘이 부족한 것을.

춘추시대 초기 제환공을 패공으로 올린 명재상 관중(管仲)도 초나라와 담판하면서 그들의 왕호를 낮추려 했으나 끝내 실패하지 않았던가.

"오(吳)나라가 왕호를 버린다면 우리는 비록 맹주자리를 양보하지만 주(周)왕실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소? 다른 나라 제후들을 대할 때도 충분히 체면은 설 것이라 생각하오."

"기발하신 생각입니다."

조양(趙鞅)은 곧 노애공과 위출공을 불러 자신의 조건을 설명했다.

두 나라 군주는 대찬성이었다.

요즘 상황으로 보아 맹주(盟主)라는 지위는 허울에 불과했다. 오나라에게 맹주라는 그러듯한 자리를 내주는 대신 오왕을 오공(吳公)으로 낮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명분이 서는 일일수도 있었다. 동갈(董褐)은 오왕 부차에게 달려가 조양의 조건을 전달했다.

"오(吳)나라는 원래 주왕실로부터 자작(子爵)의 칭호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늘 왕호를 참칭해왔습니다. 이는 주왕실에 거역하는 일일뿐 아니라 중원의 여러 제후들과도 어울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오나라가 진정으로 중원과 교류하기를 원한다면 군후께서는 왕호를 버리시고 공호(公號)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晉)나라도 군후의 뜻에 따라 맹주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오왕 부차(夫差)는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가 재빨리 생각을 굴렸다.

그의 망설임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다.

'왕호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맹주(盟主)에 올라 천하 제후를 호령하는 것이 더 보람찬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는 한시바빠 귀국해야 할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1)

- 해냈다!

마침내 오왕 부차(夫差)는 꿈에서조차 그리던 맹주가 되었다.

마음 같아서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월왕 구천(句踐)이 침공해와 오(吳)나라 영토를 유린하고 있지 않은가.

세자까지 죽었다고 했다.

하루 빨리 귀국하여 오성(吳城)을 구하고 월군을 박살내야 했다.

'이놈, 구천아. 어디 두고 보자!'

회맹이 끝나자마자 오왕 부차(夫差)는 부리나케 황지 땅을 떠났다.

제수(濟水), 기수(沂水), 회수(淮水), 장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로 접어들어 밤낮 없이 배를 몰았다.

미처 배를 타지 못한 병사들은 강안(江岸)을 따라 열심히 달렸다.

이때쯤 해서는 오나라 군사들도 월군의 침공 사실을 알았다.

마음은 조급했고 사기도 떨어졌다. 더욱이 그들은 2천 리가 넘는 먼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었다.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런 상태에서 오군은 오성 교외에 당도했다.

부차(夫差)는 그때까지도 월군을 깔보고 있었음인가.

다짜고짜 공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월군(越軍)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수영에 능한 2천 수군이 물밑으로 헤엄쳐나가 오(吳)나라 전함의 바닥에 구멍을 내었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 있던 오군(吳軍)은 가라앉는 배를 보고 완전히 싸울 의욕을 잃었다.

오성 교외에서 한 차례 큰 싸움을 벌였으나 결과는 오군의 대패였다.

비로소 사세가 여의치 않음을 알게 된 부차(夫差)는 화평을 맺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급히 백비(伯嚭)를 불러 호령했다.

"그대는 늘 월(越)나라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왔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오? 구천이란 놈 때문에 우리 오(吳)나라가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지 않았소?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그대 책임임을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

백비(伯嚭)는 입이 열 개 있어도 말할 처지가 못 되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처분만 기다렸다. 부차(夫差)의 호령은 계속되었다.

"그대는 지금 당장 구천에게로 가 화평을 청하십시오! 만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인은 그대에게 측루검을 내리겠소."

측루검을 내리겠다는 말은 곧 자결을 하라는 뜻이었다.

백비(伯嚭)는 질겁했다.

황급히 황금과 보물을 싸가지고 월군 영채로 달려갔다.

10여 년 전 문종(文種)이 그러했듯 이번에는 백비가 구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했다.

"대왕께서 군사만 거두어주신다면 지난날 월(越)나라가 오나라에 복종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 오(吳)나라가 월나라에 대해 복종하겠습니다."

구천(句踐)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 백비를 내려다보며 냉소를 머금었다.

얼마나 기다려온 이 날이던가.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통을 과연 어느 누가 알아줄까.

그는 화평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이대로 백비를 참수하고 부차의 진영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구천(句踐)이 두 눈을 부릅뜨며 백비에게 호통을 치려 할 때였다.

곁에 서 있던 범려(范蠡)가 재빨리 구천에게 속삭였다.

"아직은 우리 전력으로 부차(夫差)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오나라 정병이 돌아온 이상 승패는 반반입니다. 모험을 하느니보다 차라리 화평을 맺어 백비에게 생색을 내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오(吳)나라가 힘을 쓰지 못할 터이니, 그 동안 왕께서는 좀더 군세를 확장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간(諫)했다면 아마도 구천(句踐)은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려라면 구천과 함께 오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며 온갖 고난과 멸시를 감내해낸 사람이 아닌가.

누구보다도 오(吳)나라에 대해 원한이 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장의 보복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범려(范蠡)의 판단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구천(句踐)은 범려를 자신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다.

민자, 범려를 믿자.

구천은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을 억누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오나라의 화평을 받아들이겠소."

마침내 오왕 부차(夫差)와 월왕 구천(句踐) 사이에는 강화가 맺어졌다.

이제 또 한 시대를 마감할 때가 왔다.

오, 월 화평조약이 맺어진 이듬해는 BC 481년(오왕 부차 15년, 월왕 구천 16년)이다. 그 해 노(魯)나라에는 춘추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해는 노애공(魯哀公) 14년이기도 하다.

어느 봄날, 노애공(魯哀公)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대야(大野)라는 곳으로 사냥을 나갔다.

대야는 거야(鉅野)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지금의 산둥성 거야현 동쪽 땅이다.

그 날 숙손씨의 가신 중 수레를 관리하는 서상(鉅商)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

그 짐승은 몸통이 노루 같았고, 꼬리는 쇠꼬리 같았고,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짐승인지 몰라 불길하게 여기고 목을 찢러 죽였다.

사냥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짐승의 시체를 공자(孔子)에게 가져다 보이며 물었다.

"이것이 무슨 짐승입니까?"

공자가 자세히 들여다본 후 대답했다.

"이것은 기린(麒麟)이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공자(孔子)는 하늘을 쳐다보며 길게 탄식했다.

"아, 이제 나의 진리는 끝났도다!"

공자는 제자들을 시켜 죽은 기린을 땅에 묻어주었다.

오늘날도 거야 땅 옛 성터에서 동쪽으로 10리쯤 가면 둘레가 40여 보쯤되는 무덤처럼 생긴 토대(土臺)가 있다. 사람들은 이 흙무더기를 '획린퇴(獲麟堆)'라고 부르고 있다.

바로 공자가 기린을 묻은 곳이다.

공자(孔子)는 기린을 묻고 나서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밝은 임금 태어나니

기린과 봉황이 와서 노니는구나.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태평시절이 아니거늘

너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느냐.

기린이여, 기린이여!

내 마음 몹시 우울하구나.

이때부터 공자(孔子)는 서재에 틀어박혀 노(魯)나라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노은공(魯隱公) 원년(BC 722년)을 시작으로 242년간의 일을 기록했다.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춘추(春秋)>다.

<춘추>는 역사책이긴 하지만, 공자(孔子)는 단순히 역사 이야기만을 전달하기 위해 저술에 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이 책에 불어넣었다.

- 후일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이 글을 보면 몸을 떨리라!

이런 마음으로 붓을 들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쓰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썼다.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았고, 추호(秋毫)의 거짓도 기록하지 않았다.

오늘날 바르고 곧은 글이라는 뜻으로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2)

공자(孔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혼을 불살랐다.

하지만 그도 끝없이 무너져가는 어지러운 사회상을 보고 절망했음인가.

불현듯 붓을 놓았다.

<춘추(春秋)>의 맨끝 기사는 이러하다.

서수(西狩) 획린(獲麟).

서쪽으로 나가 사냥하여 기린을 잡다라는 뜻이다. 현존하는 <춘추(春秋)>는 그 뒷부분이 더 있거나 그것은 공자의 제자들이 이어서 쓴 것이다. 공자가 쓴 <춘추>의 마지막 구절은 '획린(獲麟)'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기린(麒麟)은 당시로서는 매우 구경하기 힘든 짐승이었다.

그래서 진수(珍獸)라고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상징이 담겨 있다.

공자(孔子)는 자신을 기린에 비유했음에 틀림없다.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사상과 정신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보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린(麒麟)마저 잡아죽였다.

자신의 사상과 정신은 죽었다.

아아, 통탄할 일이 아닌가.

그는 회생할 수 없는 절망을 보았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공자(孔子)는 기린 잡은 기사를 마지막으로 붓을 던졌다.

이로써 '획린(獲麟)'이란 말은 '붓을 놓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고, 나아가 '절필(絶筆)'이라는 뜻을 내포하게 되었다.

또한 <춘추>를 일러 '인경(麟經)'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자와 기린의 인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공자(孔子)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징재(徵在)는 기린에 대한 꿈을 꾸었다.

앞서도 기술했듯, 꿈속에서 기린은 옥척(玉斥) 하나를 토해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수정(水精)의 아들은 쇠약한 주(周)나라를 계승하여 소왕(素王)이 되리라.

소왕이란 무늬 없는 옷을 입은 왕, 즉 지위 없는 왕을 뜻한다.

공자(孔子)가 성인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꿈이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평왕(周平王) 이후 동주(東周)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춘추(春秋)>라는 책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춘추>의 첫 시작인 노은공(魯隱公) 원년과 동주시대를 연 주평왕 원년(BC 770년)과는 48년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춘추시대'는 이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리하여 '춘추(春秋)'는 세월 혹은 역사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춘추시대의 끝 또한 엄밀히 얘기하면 '획린(獲麟)'을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평왕 원년부터 '획린'의 해까지는 290년째가 된다.

그러나 기린(麒麟)을 잡은 해를 춘추시대의 끝으로 삼는 것은 어딘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대체로 사람들은 춘추시대의 끝을 이 해로부터 만 8년 후에 일어나는 BC 473년의 '오나라 멸망'으로 잡고 있다.

또 어떤이는 그보다 더 내려가 진(晉)나라가 위(魏), 한(韓), 조(趙) 삼국으로 분열되어 독립국으로 인정받았을 때인 BC 403년으로 삼기도 한다.

<춘추>를 쓰기 시작한 지 2년 뒤, 공자(孔子)는 마침내 그 생을 마쳤다.

이때 그의 나이 73세.

공자는 자신이 활동했던 당대에는 그다지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공자(孔子)의 사상이 널리 꽃피우게 된 것은 한대(漢代)에 들어와서이며, 이후 그의 행동과 말과 서적과 정신은 2천 년이 훨씬 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생활과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한 사신은 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공자, 성인으로 탄생하시어

궐리(闕里) 땅에서 덕을 기르셨도다.

칠십 평생 학문을 연구하시고
 사방에 이치를 밝히셨도다.
 행동과 삼가함을 두루 통찰하셨으니
 협곡(夾谷)에서 이를 실천하셨도다.
 봉황이 날지 못하매 탄식하셨고
 기린이 죽으매 슬피 우셨다.
 구강(九江)이 우러러 거울로 삼고
 만고에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도다.
 제자들은 공자(孔子)를 곡부 땅에 장사 지냈다.
 무덤의 크기를 1경(頃)으로 하였다. 경은 밭을 세는 단위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만 평이다.
 공자의 위대함을 날짐승들도 알았음인가.
 공자(孔子) 무덤 근처의 나무에는 새들도 일절 동지를 틀지 않았다.
 한대(漢代)이후 역대 황제들은 공자를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봉했다.
 어머니 징재의 태몽대로 '지위 없는 왕'에 오른 것이다.
 청나라 때에는 '대성지성선사(大成至聖先師)'라고 불리었다.
 오늘날은 공자를 일러 '대성(大聖)'이라고 부르고 있다.
 노나라 사람이 기린을 잡은 그 해, 제(齊)나라에서는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났다.
 재상 진상(陳常)이 제간공(齊簡公) 및 유력 귀족들을 죽인 것이었다.
 진상은 제간공의 동생인 공자 오(騫)를 군위에 올려세웠다.
 그가 제평공(齊平公)이다. 그러나 제평공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제나라 정권은 모두 진상(陳常)과 그 일족에게로 돌아갔다.
 심지어는 조그만 마을의 수장까지도 진상에 의해 임명될 정도였다.
 이때 진상(陳常)은 기괴한 방법으로 진씨 종족을 번식시켰다.
 즉 자신의 집 뒤에 커다란 별채를 만들어놓고 키가 7척 이상 되는 여인들을 1백여 명을 뽑아 기거케 하였다.
 그리고 진씨(陳氏)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방에 들락거리게 하여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했다. 이리하여 수년 후에는 이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만도 7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성장하여 모두 제(齊)나라 대부 벼슬에 올라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진상의 아들 대에 이르러 진씨는 성(姓)을 전씨(田氏)로 바꾸는데, 진상의 증손자 전화(田和)는 태공망의 후예인 강씨 임금을 폐하고 스스로 제나라 임금에 오른다.
 이때부터 제(齊)나라 임금의 성(姓)은 전씨(田氏)가 된다.
 당시의 정서로 볼 때 이 역성 쿠데타는 매우 보기 드문 일로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반이 이미 진상(陳常) 대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같은 해, 위출공도 그 아버지인 괴귀(蒯瞶)에 의해 축출당하고 노나라로 망명했다. 이로써 괴귀는 마침내 위나라 군위에 올랐다. 그가 위장공(衛莊公)이다. 아들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임금에 오른 묘한 계보(系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장공(衛莊公)은 재위 3년 만에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 북융(北戎)으로 달아났고, 이후 1년간의 혼란 끝에 위출공이 다시 돌아와 복위했다.
 공자(孔子)가 죽은 다음해인 BC 478년.

이번에는 초나라가 진(陳)나라를 쳐 아예 멸망시켜버렸다.
이로써 진나라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이때 초나라 임금은 초소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초혜왕(楚惠王)으로서 재위 11년째였다.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3)

월왕 구천(句踐)이 오나라를 습격하여 복수전을 펼치고 돌아온 지 만 9년이 지났다.
그러나 구천(句踐)은 지난 18년 동안 와신상담해온 원한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다. 한 번의 승리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기어코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리라 결심했다.
회계성으로 돌아온 후 더욱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켰다.
반면 오왕 부차(夫差)는 월왕 구천과의 화평조약을 철석같이 믿고 중원 맹주라는 자부심만 내세웠다. 예전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불탄 고소대(姑蘇臺)를 개축했다.
서시(西施)에 대한 총애도 여전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오(吳)나라의 민심은 더욱 흥흥해졌다.
BC 473년이 되었다.
이 해는 오왕 부차 23년이요, 월왕 구천 24년이었다.
그 해 가을, 마침내 월왕 구천(句踐)은 또 한 번 대규모 군사를 일으켰다.
물론 오나라를 치기 위한 군대였다. 총병력은 13만.
- 절강의 용사들이여, 이번에는야말로 오(吳)나라를 멸망시키자!
구천(句踐)이 범려, 문종 등을 거느리고 회계성 교외로 나갔을 때였다.
길 한복판에 난데없이 큰 거북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거북은 구천의 길 앞을 가로막고 앉아 두 눈을 부릅뜬 채 배를 동그랗게 내밀고 있었다.
마치 노기를 품고 노려보는 모습이 천하 맹장의 위용 같았다.
병차에 앉아 있던 월왕 구천(句踐)은 그 거북의 모습을 보자 불안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좌우 장수들이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저깃 거북에게 그렇듯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십니까?"
구천(句踐)이 주위 장수와 군사들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저 거북을 보아라! 마치 싸움터로 나서는 투사 같지 않은가. 과인은 미물이라도 용기를 지닌 자에게는 기꺼이 경의를 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월(越)나라 장수와 군사들의 얼굴엔 일제히 굳은 결의가 떠 올랐다.
"우리 왕께서는 성난 거북에게도 경의를 표하셨다. 우리는 지금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 오나라를 치기 위해 밤낮없이 훈련을 받아왔다. 우리가 어찌 저 거북만 못할 것인가!"
이후 행군하는 월군(越軍)의 발걸음이 달라졌다.
그 날 저녁, 월나라 군사는 포양강(浦陽江) 나루에 당도했다.
그 곳 강변에서 하룻밤 야영하고 뱃길로 오나라 국경을 돌파할 작정이었다.
저녁밥을 먹은 구천(句踐)은 범려, 문종 등 장수들을 거느리고 야영지를 순찰했다. 문득 고개를 쳐들어보니 밤하늘 한복판에서 정체 모를 찬란한 광채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

그 광채는 남쪽에서 북두칠성 사이를 손살같이 흘러내려와 포양강(浦陽江)을 환히 밝히더니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구천(句踐)은 자신도 모르게 문종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게 무엇이오? 이번 싸움의 승패를 알려주는 하늘의 징조가 아닌지 모르겠소?"

"옳게 보셨습니다. 왕께서는 기뻐하십시오. 저것은 오(吳)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저 환한 광채는 곧 우리 월(越)나라 군대입니다. 남쪽에서 일어나 북두칠성 사이를 흘러내렸다는 것은 오(吳)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는 뜻이며, 강물 깊숙이 사라진 것은 오나라 영토가 우리 월나라에 흡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원정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문종(文種)의 해석에 구천(句踐)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일었는지 이번에는 범려를 돌아보며 물었다.

"재상께서는 어찌 보시오?"

범려(范蠡)가 조용히 대답했다.

"굳이 천상(天象)을 보지 않더라도 이번 원정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주와 군사와 백성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나라는 삼자(三者)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군주는 황음(荒淫)에 빠짐으로써 국고를 탕진했고, 그 군사들은 오랫동안의 북벌(北伐)에 시달려 피로해 있으며, 백성들은 학정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월(越)나라는 어떻습니까. 군주는 몸소 쉼나무 위에서 자고 쓴 쓸개를 핥음으로써 국고를 가득 채웠고, 군사들은 오랜 훈련과 충분한 휴식으로 사기 충천하며, 백성들은 임금 생각하기를 자기 몸 돌보듯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오나라의 군사(軍師)인 손자(孫子)는 말했습니다. '싸움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어찌 이번 원정이 실패할 것이겠습니까?"

구천(句踐)의 입이 또 한 번 벌어졌다.

"재상의 말씀을 들으니 과인의 마음이 몹시 기쁘오."

다음날 아침이었다.

구천(句踐)은 배에 오르기 전 다시 한 번 장수와 군사들과 전송 나온 백성들을 향해 웅변을 토했다.

"절강의 아들들아! 과인은 이번에 나가 오(吳)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으리라.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대들을 만나지 않으리라!"

".....!"

"절강의 용사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하노니, 그대들 중 부자(父子)가 군사로서 출정하는 자가 있거든 그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 형제가 있거든 그 형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는 계시지만 형제가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라."

"병이 있어 싸울 수 없는 자는 약품과 식량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라. 그 외 나머지 용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구천(句踐)의 연설에 백성들과 군사들은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함성을 질렀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돌아가는 병사가 없었다.

이윽고 월왕 구천(句踐)이 배 위로 올라갔고, 그 뒤를 따라 장수와 군사들이 배에 올라탔다.

돛이 오르고 그들의 전함은 북쪽을 향해 미끄러지듯 사라져갔다.

- 월군 침공!

오왕 부차(夫差)는 고소대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급보를 받았다.

의자를 차듯 일어나 재상 백비를 불렀다.

"구천이란 놈, 기어코 우리 나라를 침범했던 말인가! 그대는 모든 군사를 일으켜 태호(太湖)로 나가 우리 오(吳)나라의 용맹을 보여주도록 하라!

백비는 서둘렀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오강(吳江) 북편 언덕에 진채를 구축했다.

그 무렵 월군은 오강 남쪽 언덕에 당도했다.

범려(范蠡)는 우군 5만 명을 거느렸고, 문종(文種)은 좌군 5만 명을 거느렸다.

월왕 구천(句踐)은 친위군 6천 명을 거느리고 중군이 되었다.

이튿날 황혼 무렵, 구천(句踐)은 친히 6천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오강을 따라 북상하여 오군 진영 가까이 접근했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북을 울려 오군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책이었다.

한편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은 길을 돌아 몰래 오군 뒤편에 숨었다.

한밤중이 되었다.

사방이 캄캄했다. 별안간 오군(吳軍) 영채 밖 가까이서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나라 군사들은 월군이 습격해오는 것으로 알고 황망히 횃불을 켰다.

하지만 어디에서고 월군(越軍)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북소리가 그치고 사위는 이내 적막에 빠졌다.

오(吳)나라 군사들은 불안에 빠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니나다를까, 다시 북소리가 일었다.

장수 왕손웅(王孫雄)이 군사들을 안심시켰다.

"저것은 우리를 어지럽히려는 수작이다. 군사들은 동요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두 번째 북소리야말로 좌군과 우군에게 일제히 공격하라는 신호였다.

오군 병사들이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한 떼의 병차대가 오군 영채를 향해 돌진해왔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기세로 뚫고 들어오는 그 병차대 선두에는 놀랍게도 월왕 구천(句踐)이 서 있었다.

오왕 부차(夫差)는 기겁했다.

서둘러 창을 잡고 병차 위로 올라탔다.

"월왕(越王)을 잡아라. 월왕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자는 나라의 반을 상으로 내리리라!"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4)

먼동이 틀 무렵 부차(夫差)는 겨우 전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방 어느 곳이고 보이는 거라곤 월(越)나라 군사뿐이 아닌가.

오(吳)나라 군사는 이미 반 이상이 죽은 것이었다.

부차(夫差)는 자신도 모르게 병차의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렸다.

장수와 군사들도 일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부차는 입택(笠澤)이란 곳까지 달아나서야 겨우 패잔병을 수습했다.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부차(夫差)는 장수 서문소를 불러 명했다.

"적병이 이 곳까지 추격할 리는 만무하다. 우선 밥을 지어 기운을 차리도록 하자."

서문소(胥門巢)가 고개를 저으며 간(諫)했다.

"어쩐지 이 곳은 살기가 흥흥합니다. 적병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니, 서둘러 오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도 겁이 많으냐! 그러기에 간밤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 아니냐. 잔소리 말고 밥부터 지어라."

부차의 꾸짖음에 서문소(胥門巢)는 군사들에게 밥을 지을 것을 명했다.

그때였다.

주변을 살피던 한 초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서쪽 언덕 뒤편에서 한 무리의 적병이 이 곳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다.

입택 근처의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오군(吳軍)을 발견하고 공격해온 군대는 월나라 장수 주무여(疇無餘)가 이끄는 별동대였다.

그는 범려의 지시를 받고 진작에 그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부차(夫差)는 황급히 배고픔도 잊고 서둘러 병차에 올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왕이 이러하니 그 밑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월군 장수 주무여(疇無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뒤쫓아가 오군을 유린했다. 그바람에 오나라 장수 서문소(胥門巢)와 공자 고조(姑曹)가 전사했다.

오왕 부차(夫差)는 더 이상 싸울 마음을 잃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오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문을 닫아걸고 일체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월왕 구천(句踐)은 횡산을 경유하여 오성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횡산 밑으로 계곡물이 하나 흐르는데, 월군이 이 계곡을 건너갔다 하여 월래계(越來溪)라는 이름이 붙었다.

싸움의 대세는 이미 판가름이 났다.

남은 것은 오성을 함락하고 부차(夫差)를 사로잡는 일뿐이었다.

구천(句踐)은 오성 교외에 이르러 영채를 세우고 겹겹이 오성을 에워쌌다. 그러나 일찍이 경험했듯 오성은 견고하기 그지 없었다.

오자서가 중원성들의 장점만을 모아 축조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구천(句踐)은 조급하게 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장기전에 대비하여 서문(胥門)밖 교외에 또 하나의 성을 쌓았다. 오로지 오성을 공격하기 위한 성이었다. 구천은 그 성의 이름을 월성(越城)이라 명명했다.

월왕 구천(句踐)은 범려, 문종, 주무여 등을 불러놓고 오성을 공략할 일을 의논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오성(吳城)은 꼭 견고하오. 웬만한 방법으로는 깨뜨릴 수 없소. 계책이 있는 사람은 말해보시오."

이번 싸움에 공이 큰 주무여(疇無餘)가 대답했다.

"단시일 내에 오성을 공략하는 방법으로는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공(火攻)입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오성 안팎으로 불화살을 쏘아 날리면 오성은 삼시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며, 그리 되면 제아무리 부차라 하더라도 항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천(句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절묘한 계책이오. 이제야 우리가 오성(吳城)을 깨뜨릴 수 있겠구려."

그때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범려(范蠡)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화공을 쓰지 마십시오."

"안 되다니? 그대에게 더 좋은 계책이라도 있소?"

"없습니다. 분명 화공(火攻)을 쓰면 우리는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일시에 잿더미가 될 것은 어찌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성을 폐허로 만들고 돌아갈 것이라면 화공(火攻)을 써도 그만이겠지만, 왕께서는 지금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십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어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화공만은 안 됩니다."

범려의 말에 구천(句踐)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름답도다, 범려의 말이여!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과인은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뻔하였소."

그 무렵.

오성(吳城) 안은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백성과 군사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조정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성밖으로 빠져나가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만 궁리했다.

재상 백비 또한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조정에는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오왕 부차(夫差)는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인가.'

좌우를 둘러보았다.

왕손락(王孫駱)이 한 귀퉁이에 서 있었다.

부차(夫差)는 힘없이 그를 불러 말했다.

"그대가 나를 대신해서 구천에게로 가 항복을 청해보시오."

왕손락(王孫駱)은 눈물을 뿌리며 성밖으로 나갔다.

관례대로 윗옷을 벗고 등에는 관을 매었다.

월성 앞에 이르러서는 무릎 걸음으로 기어갔다.

왕손락(王孫駱)은 구천 앞에 이르러 부차의 말을 전했다.

- 고신(孤臣) 부차는 지난날 회계 땅에서 월왕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얹드려 청하노니 우리 오(吳)나라의 항복을 받아주시고, 지난날 고신이 월왕께 저지른 죄와 똑같은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신(臣) 부차는 죽을때까지 왕께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 바치겠습니다.

살려만 준다면 개나 말과 같은 수고로움을 다하겠다는 맹세였다.

왕손락을 굽어보는 월왕 구천(句踐)의 눈에 측은한 기색이 감돌았다.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굴욕을 떠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

적막의 시간이 흐르며 구천(句踐)의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다.

항복을 수락할 뜻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재상 범려(范蠡)가 얼른 앞을 가로막으며 엄숙한 어조로 간(諫)했다.

"지난날 회계산(會稽山)의 일은 하늘이 월(越)나라를 오나라에 주시려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吳)나라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의 일은 하늘이 오나라를 월나라에 주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날이 오기를 20년 가까이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하늘의 선물을 눈앞에 두고 어찌 그것을 거절하려 하십니까. 왕께서 오늘 하늘이 내린 선물을 거절하시고 항복을 수락하신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부차(夫差)의 노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범려의 이 같은 말에 월왕 구천(句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금 전과는 판판으로 냉랭한 눈빛으로 왕손락을 쏘아보았다.

"그대는 돌아가 부차에게 전하라. 나는 오(吳)나라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성을 점령하고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멸할 때까지 공격을 늦추지 않으리라!"

왕손락(王孫駱)은 울며 돌아갔다.

부차(夫差)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음을 알았다.

자신도 모르게 통렬히 외쳐댔다.

"오자서여, 오자서여! 내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다가 기어코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구려. 그대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지하에서 통쾌히 여기고만 있을 것인가."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5)

다음날부터 월(越)나라 군사는 오성을 총공격하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일었다.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은 집중적으로 남문을 공략했다.

낮이고 밤이고 공격을 퍼부었다. 오나라 군사들은 이제 싸울 힘도 없었다. 공격을 가한 지 3일째 되는 날 밤, 마침내 남문이 부서졌다.

범려(范蠡)와 문종이 앞장서서 성안으로 돌입하려 할때였다.

별안간 하늘에서 날카로운 빛이 쏟아지며 남문 위를 환하게 비쳤다.

그 빛덩어리는 차츰 하나의 형상으로 바뀌어갔다.

"앗.....!"

월(越)나라 군사들 사이에 경악의 외침 소리가 일었다.

모두들 그 자리에 멈춰섰다.

보라! 남문 위 허공에 한 사람의 머리가 동실 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오자서의 얼굴이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오자서(伍子胥)의 얼굴 크기는 병차 바퀴만 했다.

"이럴 수가!....."

범려(范蠡)를 비롯한 월나라 군사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한순간 오자서(伍子胥)의 두 눈에서 번갯불이 번쩍 일었다.

흐트러진 머리칼과 수염이 일시에 콧콧하게 곤두섰다. 오자서의 두 눈에서 발하는 광채는 10리 밖까지 비추었다.

그 광경을 보고 월군(越軍)이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별안간 폭풍이 몰아쳐왔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진동했다.

모래가 온 천지를 뒤덮고 급기야는 돌맹이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월(越)나라 군사 중에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돌맹이에 맞아 죽은 자가 속출했다.

강변에 매어둔 배들도 닻줄이 끊어져 강 한가운데로 떠내려갔다.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은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월왕 구천(句踐)이 달려와 초조하게 외쳤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오자서(伍子胥)는 죽어서도 오(吳)나라를 지키려 함인가."

"잠시 기다려보십시오. 신이 오자서를 설득해보겠습니다."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다.

옷을 벗어던지고 반벌거숭이가 된 채 쏟아지는 빗발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러고는 오성 남문을 향해 뚫어엮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오자서여, 오자서여. 그대는 부차(夫差)의 포악함을 잊으셨는가? 그대의 죽음을 잊으셨는가. 그대의 유언을 잊으셨는가?"

얼마 후, 바람과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제야 월군(越軍)은 진정했다.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은 군막으로 돌아가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다.

그 날 밤이었다.

범려는 꿈을 꾸었다.

오자서(伍子胥)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말이 모는 하얀 수레를 타고 달려왔다. 얼굴은 살아 있을 때와 다름없이 웅장하고 비범했다.

오자서가 수레를 멈추고 우렁찬 음성으로 말했다.

- 나는 너희 월(越)나라가 쳐들어올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을 때 동문에 나의 머리를 매달아달라고 유언했다. 월나라가 오(吳)나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오왕 부차(夫差)는 나의 머리를 동문에 내걸지 않고 남문에 내걸었다.

- 아아, 오(吳)나라에 대한 충성을 어찌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오성을 지키기 위해 비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미 하늘의 뜻이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막을 수 있으리오. 너희가 오성(吳城)으로 들어가려거든 동문을 통하라. 내 월(越)나라를 위해 동문의 길을 열어놓으리라!

범려(范蠡)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때 마침 문종(文種)이 달려왔다.

"이상한 꿈을 꾸었소."

문종은 꿈 내용을 들려주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범려의 꿈과 똑같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은 월왕 구천에게로 달려갔다.

꿈 이야기를 들은 구천(句踐)이 기뻐하며 지시했다.

"오늘부터는 동문을 공격하십시오!"

월군은 물길을 따라 동문으로 이동했다.

그들의 전함이 동쪽 사문(蛇門)과 장문(匠門)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다.

별안간 태호의 물이 끓듯 넘쳐흐르더니 동쪽으로 들이닥쳤다.

그 물살은 여간 세차고 흥흥한 게 아니었다.

급류는 사문(蛇門)과 장문(匠門) 사이의 모퉁이에 가서 세게 부딪쳤다.

그 바람에 성벽 일부가 무너지며 큰 구멍이 생겨났다. 밀어닥치는 물살을 따라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무수히 성안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다.

범려(范蠡)가 뱃전에 서서 소리쳤다.

"이것은 오자서(伍子胥)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월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그 뚫어진 성의 구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로써 오성(吳城)은 월나라 군사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월군(越軍)이 오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한 대신이 달려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오나라 재상 백비였다.

그는 비굴한 웃음을 감추지 않으며 범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항복하오. 내가 그대를 왕궁으로 안내하겠소."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이 백비의 안내를 받아 왕궁을 들이쳤을 때는 부차(夫差)는 이미 오성을 빠져나간 뒤였다.

범려가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오왕(吳王)을 뒤쫓아라!"

그 시각, 부차(夫差)는 왕손락과 아들 셋을 데리고 서쪽 문을 빠져나가 양산(陽山)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기진맥진했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현기증이 일었다.

왕손락(王孫駱)과 아들 셋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발으로 들어가 생난알을 훔쳐 오왕 부차(夫差)에게 바쳤다.

부차(夫差)는 워낙 배가 고팠던지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구 씹어먹었다. 겨우 허기를 면한 부차는 땅바닥에 엎드려 흐르는 시냇물을 마신 후 물었다.

"내가 지금 먹은 것이 무엇이나?"

"익히지 않은 곡식 알갱이입니다."

문득 부차(夫差)가 탄식했다.

"지난날 점복가인 공손성(公孫聖)이 내 꿈을 해몽하며 말하기를 '싸움에 패하여 도망다니며 화식(火食)을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하는 말일 줄이야!"

왕손락(王孫駱)이 부차를 위로했다.

"지난 날을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몸 숨길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난날 나의 요사한 꿈이 이제야 맞았으니 내가 죽을 날도 머지않은 모양이다. 몸을 숨긴들 어디로 숨길 것이며, 숨었다 한들 무엇을 할 것인가?"

절망에 빠진 부차(夫差)는 도망치기를 그만두고 그냥 양산에 머물기로 했다.

다시 왕손락을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공손성(公孫聖)을 죽이고 그 시체를 양산에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혼령이 아직 이 곳에 있을까?"

"왕께서 친히 한 번 불러보십시오. 있으면 대답을 할 것입니다."

부차(夫差)는 사방을 둘러보며 크게 소리쳤다.

"공손성아!"

- 공손성아.....!

메아리였다.

그러나 부차의 귀에는 그것이 공손성의 음성으로 들렸다.

다시 외쳐 불렀다.

"공손성아!"

- 공손성아.....!"

"공손성아!"

- 공손성아.....!"

세 번 불렀으나 세 번 다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퍼졌다.

부차(夫差)는 무서움이 일었다.

그때 동편 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월왕 구천(句踐)이 친히 이끄는 정예 군사들이었다.

그들은 부차(夫差)가 숨어 있는 산골짜기를 겹겹이 에워쌌다.

부차는 거둡 눈물을 흘리며 통탄했다.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고 구천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미워하시고 오늘 우리 오(吳)나라를 버리려 하심이로다!"

왕손락(王孫駱)이 말했다.

"신이 다시 한 번 가서 월왕에게 간곡히 사정해보겠습니다."

부차(夫差)의 눈에 한줄기 빛이 감돌았다.

"가서 말하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대대손손 월(越)나라를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왕손락(王孫駱)은 산을 내려가 월군 진영으로 갔다.

범려가 나와 그를 맞았다.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6)

또 한 나라가 사라졌다.

이제 오(吳)나라는 없다.

모두 월왕 구천의 땅이 되었다.

- 월왕 만세!

구천(句踐)은 감격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수없이 기다려왔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꿈인 듯 믿어지지 않았다.

월(越)나라 신하는 물론 오나라 신하들까지 오성 궁전 뜰 아래 길게 시립해 있었다. 구천(句踐)은 천천히 그들을 굽어보았다.

문득 낯익은 얼굴 하나가 앞쪽 대열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오나라 재상 백비였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월왕 구천(句踐)을 도와준 것을 생색내는 듯한 표정이었다.

구천은 손짓하여 그를 앞으로 불러냈다.

"그대는 오(吳)나라 재상이다. 그대 임금이 지금 양산에 누워 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내 앞에 서 있는가?"

백비의 얼굴이 핏색해졌다.

부끄러움을 못 이겨 슬며시 뒤편으로 빠지려는 것을 범려(范蠡)가 가로막았다.

"그대는 그대가 갈 곳을 진정 모르시오?"

범려의 손이 올라가자 좌우 역사(力士)들이 몰려들어 백비를 잡아챘다.

그 날 백비는 궁전 뜰 앞에서 참수당했다.

그의 식구들 또한 모조리 목이 베어졌다.

월왕 구천(句踐)은 놀라 목을 움츠리는 오나라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염려하지 마라. 나는 다만 충신 오자서(伍子胥)의 원수를 갚아주었을 뿐이다."

며칠 후, 구천은 전군을 이끌고 월나라 수도인 회계성으로 돌아갔다.

귀환길은 여간 당당하고 호화롭지 않았다.

오성에서 빼앗은 보화를 실은 수레만도 10리가 넘게 이어졌다.

연도에 나와 승전군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는 하늘을 무너뜨리고 강물을 뒤엎을 정도였다.

회계성으로 들어선 구천(句踐)이 별안간 범려를 불러 물었다.

"참, 내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소."

"무엇인지요?"

"서시(西施)는 어디 있소?"

범려(范蠡)는 구천이 묻는 뜻을 짐작했으나 모르는 척하고 되물었다.

"서시는 무슨 까닭으로 찾으십니까?"

"서시(西施)는 본래 내가 후궁으로 삼으려고 마음먹었던 여인이요. 어쩔 수 없이 부차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이제 부차(夫差)가 죽었으니 당연히 내가 거느려야 하지 않겠소?"

범려의 얼굴빛이 엄숙하게 변했다.

"왕께서는 서시(西施)를 찾지 마십시오."

"찾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서시는 간자(間者)입니다. 간자는 그 임무가 끝나면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라에 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더욱이 서시(西施)는 오나라를 멸망시켰을 정도의 미인이 아닌가.

월나라로 돌아와 구천의 후궁이 되면 월(越)나라 왕실과 조정을 어지러워질 것이 분명하다.
범려(范蠡)는 이 점을 염려하여 오나라 정벌의 마지막을 서시의 처단으로 장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천(句踐)은 그렇지 않았다.
어찌 천하절색의 서시를 죽여 없애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초조한 듯 입술을 핥으며 물었다.
"그대는 서시(西施)를 죽였소?"
"아직 죽이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죽일 작정입니다."
"안 되오. 죽이지 마시오."
"대왕 전하!"
구천(句踐)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이것은 왕명ियो. 만일 그대가 서시(西施)를 죽인다면 과인은 결코 그대를 용서하지 않겠소!"
구천의 협박에 범려(范蠡)는 기가 막혔다.
전날까지도 범려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구천(句踐)이 아니던가.
그런데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구천의 행동이 이렇듯 달라지다니.
범려(范蠡)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 그 동안 내가 모시던 왕이 장경오혜의 사람이었던 말인가.'
인물 감별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 장경오혜(長頸烏喙)와는 평생을 같이하지 마라.
장경오혜란 목이 길고 입이 빠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상학의 용어다.
이런 사람은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하다.
그러나 뜻을 성취했을 때는 고집이 세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자신의 심복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날 주선왕(周宣王)이 바로 이 장경오혜의 상(相)이었다.
범려(范蠡)는 실망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상부(相府)에 가두어두었던 서시(西施)를 월왕 구천에게 데려다주었다.
"오!"
구천(句踐)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회계성으로 돌아온 첫날밤을 서시와 함께 보냈다.
그 이후로 구천과 범려 사이에는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다.
구천(句踐)은 범려를 찾는 일이 드물어졌고, 범려(范蠡) 역시 어찌다가 왕궁으로 들 뿐 대부분을 집에서만 지냈다.
대신 문종(文種)이 나라를 돌보는 일을 전담했다.
오나라를 정벌하여 멸망시킨 구천(句踐)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과거 부차가 이룩해놓은 모든 것을 자신이 이어받으려 했다.
- 패업을 계승하리라!
그는 군사를 이끌고 회수를 건너 산둥 서주(徐州) 땅으로 진출했다.
그 곳에서 제·노·송·진(晉)나라들과 회합하고 삼혈동맹을 맺었다.
또 따로이 주왕실에 사자를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이때 주나라 왕은 주원왕(周元王)이었다.

주원왕은 월왕 구천의 기세에 놀려 곤룡포와 면류관과 규벽(奎璧, 옥의 일종)과 동궁(彤弓, 붉은 활)과 호시(弧矢, 깃발이 달린 화살)를 하사했다.

이는 곧 중원의 백주(伯主)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킨 다음해의 일이다.

중원 패공의 지위에 오른 구천(句踐)은 회계산에 큰 대(臺)를 쌓고 이름을 문대(文臺)라 하였다.

지난날 부차에게 항복했던 치욕을 씻고 천하 패업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문대가 완공되는 날, 구천(句踐)은 문무백관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구천은 악공을 불러 명했다.

"이렇게 기쁜 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리오. 악사장은 이 날을 기념할 만한 곡조를 하나 지어 불러라."

악사장이 거문고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오왕(吳王)이 비록 용맹스런 군사를 길렀으나

그 무도함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범려와 문종(文種)의 계책 하나에

오왕은 오자서(伍子胥)를 죽였도다.

이제 오나라를 치지 않으면 언제 치리요

뛰어난 신하들이 모여 마침내 하늘의 뜻을 받들었도다.

한 번 싸움에 1천 리 영토를 열었으니

크고 크도다!

후세에 이 공적 길이 빛날 것이로다.

상 아끼는 일 없고 죄 용서함이 없으니

군신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도다.

내용인즉 왕과 신하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오늘의 이 기쁨을 맞이했다는 축송이었

다.

악사장의 노래를 들은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은 통쾌함을 이기지 못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웃지 않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월왕 구천(句踐)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 패업을 이룬 것은 온전히 내가 와신상담(臥薪嘗膽)한 덕분이다. 신하들이 대체 무엇을 했기에 함께 그 공을 나누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눈길로 악사장을 노려보았다.

그것을 재상 범려가 보았다.

범려(范蠡)는 가슴이 섬뜩했다.

한줄기 서늘한 바람이 등골을 스쳐갔다.

그는 대뜸 월왕 구천의 속마음을 짐작했다.

'아, 왕은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려는구나. 신하들을 시기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역시 왕은 장경오혜(長頸烏喙)의 인물이 분명하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종말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도다.'

범려(范蠡)가 은퇴를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7)

다음날이었다.

범려(范蠡)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계한 후 왕궁으로 들어갔다.

구천 앞에 이르러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신(臣)이 알기로,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그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왕께서 회계산(會稽山)에서 오왕 부차에게 갇은 굴욕을 당하셨습니다만, 신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오(吳)나라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나라는 멸망했고, 왕께서는 높이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

"이제 신이 할 일은 없습니다. 재상이라는 직책과 명성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대왕의 곁을 떠나 강호(江湖)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범려의 말을 들은 구천(句踐)은 깜짝 놀랐다.

비록 서시의 일로 소원한 관계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秋毫)도 없었다.

"그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요? 과인이 오늘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대 덕분 이요. 과인은 장차 이 나라의 반을 그대에게 내주려 하오. 이제 와서 나를 버리고 떠나려 하다니,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신(臣)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범려의 단호한 대답에 구천(句踐)은 다급했다.

얼떨결에 모진 말을 토했다.

"만일 그대가 떠난다면 나는 그대의 처자를 모두 죽여 없애버리겠소!"

범려(范蠡)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말이 어찌 구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더욱 굳게 결심했다.

"죄가 있다면 신에게 있을 뿐, 신의 처자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왕에게 달렸으니 죽이고 싶다면 죽이십시오. 신(臣)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왕궁을 물러나온 범려(范蠡)는 그 날 밤 잠든 가족들을 깨워 집을 나섰다.

먼저 스승이자 동료 대부인 문종의 집으로 가 편지 한 장을 담장 안에 던져넣었다.

그러고는 강가로 나가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올라탔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 밤의 어둠 사이로 범려와 그 가족을 태운 일엽편주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튿날 아침, 월왕 구천(句踐)은 기분이 이상했다.

사람을 보내 범려를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심부름 갔던 내관은 혼자 돌아왔다.

구천은 낙심했다.

"기어코 떠났단 말인가?"

이번에는 문종(文種)을 불러 물었다.

"사람을 뒤쫓아 보내면 범려를 데려올 수 있겠소?"

문종이 대답했다.

"범려(范蠡)는 귀신도 측량할 수 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몰래 떠났다면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왕궁을 나서는 문종(文種)은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다.

마음 터놓고 지내는 유일한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간 범려(范蠡)가 이해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재(家宰)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이것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곧 전해드리려 했습니다만, 주인께서 이미 궁으로 들어가신 뒤라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문종(文種)은 봉함을 뜯었다.

범려의 친필 서신이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잡히면 활은 거두어지게 마련이고, 숲 속의 토끼가 잡히면 사냥개는 살아지는 법이오.

이제 와 말하지만, 월왕 구천(句踐)은 목이 길고 입이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장경오혜의 상(相)'이오.

이런 사람은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할 수 없소.

그래서 나는 떠나는 것이오.

그대에게 우정으로 말하노니, 그대도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거든 벼슬을 버리고 강호(江湖)로 들어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오.

- 숲 속의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살아지는 법.

토사구팽(兔死狗烹)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어떤 사람들은 '토사구팽'의 유래를 한고조 유방(劉邦)과 그 장수 한신(韓信)의 고사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신이 죽으면서 외친 '토사구팽'은 실은 범려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다.

문종(文種)은 하루 종일 우울했다.

범려(范蠡)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니다. 이번 일만은 범려가 틀렸다.'

그는 월왕 구천(句踐)이 지난날을 잊고 함께 고생한 신하들을 버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외쳐댔다.

'범려(范蠡)의 염려는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범려(范蠡)가 회계성에서 사라진 지 두 달쯤 지나서였다.

왕궁 내에 해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천의 후궁인 천하절색 서시(西施)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왕궁은 발각 뒤집혔다.

특히 구천(句踐)의 놀라움과 걱정은 극에 달했다.
 모든 시종과 궁녀들이 동원되어 서시(西施)를 찾느라 혈안이 되었다.
 다만 월왕 구천의 아내인 월부인(越夫人)의 처소만 아무 일 없었던 듯 조용했다.
 그 다음날 밤이었다.
 모두들 잠든 어둠 사이로 한 내관이 나타나 월부인의 처소로 숨어들었다.
 월부인(越夫人)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그 내관을 맞아들였다.
 "어찌 되었는가?"
 내관이 들릴 듯 말듯 대답했다.
 "분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쯤 서시(西施)는 등에 큰 돌을 짊어진 채 포양강(浦陽江)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물고기 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부인(越夫人)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제야 나라를 망치는 요물을 없앴구나. 너는 절대로 이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되느니라."
 "염려 마십시오. 저승에 가서도 이 일만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회계성의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 범려(范蠡)가 서시를 데리고 태호(太湖)에 가서 함께 노닐고 있다더라.
 또 다른 소문도 돌았다.
 - 서시(西施)가 월나라를 망치거나 앓을까 염려한 나머지 범려가 서시를 납치하여 강물에 던져 죽였다더라.
 어쨌거나 그 뒤로 서시를 보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
 처음에는 서시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월왕 구천(句踐)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녀를 잊어갔다.
 서시(西施)만 잊은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했던 신하들도 잊어갔다.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8)

월왕 구천(句踐)은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 패업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큰 신하들에게 일절 상을 내리지 않았다.
 - 내가 부차의 똥을 먹고 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신의 공만 내세웠다.
 차츰 대신들의 모습이 조정에서 하나둘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계예(計儗)는 일부러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조정에서 쫓겨났고, 예옹(曳庸)도 늙었음을 핑계삼아 벼슬을 내려놓았다.
 옛 신하들이 한명 한명 사라질 때마다 문종(文種)은 범려의 서신을 떠올리곤 했다.
 -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마침내 문종도 병들었다 핑계하고 궁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정치 세계에서는 정적(政敵)이 있게 마련이다.
 월나라 조정에도 문종(文種)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종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월왕 구천을 찾아가 말하곤 했다.

"문종(文種)이 궁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왕께서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반(謀反)에 대비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문종이 그럴 리 있겠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문종을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차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월왕 구천(句踐)이 노나라를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는 자기가 없는 틈을 타 문종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는 노(魯)나라로 떠나기 전 문병을 핑계로 문종의 집을 찾았다.

문종(文種)은 일부러 아픈 시늉을 하며 구천을 맞아들였다.

구천(句踐)이 자리에 앉아 물었다.

"과인이 듣기에 뜻있는 선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만 근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그대는 오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일곱 가지 계책을 내세웠소."

"과인은 그 중 여섯 가지 계책을 씌으로써 오(吳)나라를 무찔렀소. 이제 남은 계책은 하나이요.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亂)을 일으키게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대는 이 계책을 어디다 쓸 생각이요?"

문종(文種)은 구천의 말뜻을 몰라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오나라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신(臣)은 그 계책을 쓸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겠소. 바라건대 그대는 부차에게 가 그 계책을 써주시요."

말을 마치자 구천(句踐)은 자리에서 일어나 궁으로 돌아갔다.

문종(文種)이 문 밖까지 나가 전송하고 돌아오자 구천이 앉아 있던 자리에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문종은 그 칼을 들어 살폈다.

칼집에 두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 측루(屬鏤).

지난날 오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내린 바 있던 바로 그 칼이었다.

그제야 문종(文種)은 구천이 자신의 집으로 행차한 이유를 깨달았다.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아아, 나는 참 어리석구나. 내 진작 범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러다가 불현듯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문종(文種)은 텅 빈 방안을 돌아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1백년 후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 오자서를 충신이라고 할 것이다. 내 어찌 탄식만 할 것인가."

문종을 칼을 뽑아 입에 물고 얹어졌다.

월왕 구천(句踐)은 문종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하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생전의 공을 인정하여 와룡산(臥龍山)에 장사 지내주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산을 '종산(種山)'이라고 고쳐 불렀다.

문종(文種)이 묻힌 산이라는 뜻이다.

문종이 와룡산에 묻힌 지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큰 해일(海溢)이 일어 와룡산 일대를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난리를 피해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

별안간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기를 보아라."

와룡산 골짜기를 덮친 바닷물이 세찬 물결을 일으키며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문득 오자서(伍子胥)와 문종(文種)이 앞뒤로 그 파도를 타고 바다 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오늘날도 전당강(錢塘江)에 조수가 밀려들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 앞의 물결은 오자서요, 뒤따라가는 물결은 문종이다.

뒷 이야기 하나.

한밤중에 몰래 회계성을 떠난 범려(范蠡)는 아무런 미련 없이 배를 타고 태호(太湖)를 빠져나와 바닷길을 통해 제(齊)나라에 도착했다.

그가 당도한 땅은 산둥 반도 해변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다.

풍광이 아름다웠다.

- 이곳 에서 농부가 되어 살리라!

그는 과거의 신분을 숨기려고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었다.

스스로 치이자피(鴟夷子皮)라 불렀다.

치이란 말가죽으로 만든 술부대다.

지난날 부차(夫差)는 오자서의 시체를 말가죽 부대에 담아 강물 속에 던졌는데, 자신의 처지가 오자서와 같다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농사를 지으며 해변가에 정착했다.

그는 경륜이 밝고 지식이 풍부하여 농사일에도 여간 밝지 않았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비옥한 농토로 만들었으며 토질에 알맞은 곡물을 심어 해마다 생산물을 늘렸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듯 그 수확물을 잘 관리하여 수년이 지나지 않아 범려(范蠡)는 일약 수십만 금(金)의 거부가 되었다.

어느덧 그의 이름은 제(齊)나라 일대에 널리 알려졌다.

- 동해 바닷가에 '치이자피'라는 신선 같은 사람이 나타나 수십만 묘(畝)의 농토를 일구었다.

어느 때인가 제나라 군주인 제평공(齊平公)이 그 명성을 듣고 친히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다.

- 그대는 그대의 현명함으로 우리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시오.

범려(范蠡)는 임치로 올라가 제(齊)나라 재상자리에 올랐다.

3년 동안 제나라 백성들에게 개간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원래 그의 마음은 정치나 벼슬에 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 농사를 지어서는 천금의 재산을 이루고 벼슬에 있어서는 상국(相國, 재상)에 달했으니,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 정점(頂點)에 다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름지기 정점이란 위험하다. 환란이 닥치기 전에 이 곳을 떠나자.

범려(范蠡)는 아무런 미련 없이 재상직을 사퇴했다.

수십만 금(金)의 재산도 아낌없이 풀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밤 홀연 임치성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번에 범려(范蠡)는 도라는 땅으로 갔다.

도(陶)는 지금의 산둥성 정도현 서북쪽 땅으로 송(宋)나라와 제(齊)나라 국경 근처였다. 물품이 쌀 때는 사들이고 물품이 부족하기를 기다렸다가는 일제히 내다 팔았다.

매번 1할의 이윤을 남겼고, 오래지 않아 그의 재산은 또 수천만 금(金)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또 한 번 명성을 황하 일대에 떨쳤다.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도주공(陶朱公)'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범려(范蠡)는 돈을 버는 일에도 능했지만 쓰는 방법도 잘 알았다.

제 41장 춘추(春秋), 덧없는 사라짐이여 (9)

어느 해의 일이었다.

범려의 둘째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 초(楚)나라에 갇혔다.

그 소식을 들은 범려(范蠡)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 살인을 했으면 죽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재력가의 아들이 사형당하면 그또한 수치가 아니겠는가. 그러고는 이제 막 청년이 된 막내아들에게 황금 1천 일(鎰)을 내주며 초(楚)나라에 다녀오게 하였다. 뇌물로써 아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었다.

그때 큰 아들이 막내 앞을 가로막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 이 집에서 장남은 저입니다. 동생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보내지 않고 막내를 보내십니까? 제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큰 아들이 죽으려 하자 어머니가 나서서 큰 아들 편을 들어주었다.

- 이 아이의 말이 옳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둘째 아들을 구하기도 전에 큰 아들부터 잃을 판입니다. 당신은 막내 대신 이 아이를 보내십시오.

범려(范蠡)는 하는 수 없이 장남이 갈 것을 허락했다.

편지 한 통을 써서 큰 아들에게 내주며 말했다.

- 초(楚)나라에 가면 나와 절친한 친구인 장(莊)선생이란 분이 있다. 너는 장 선생을 찾아가 이 황금을 건네주되 무조건 그분이 하는 대로 따르라. 절대로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윽고 큰 아들은 초(楚)나라에 당도했다.

장(莊) 선생의 집을 찾아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집이 몹시 작고 초라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심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동생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분부도 있고 해서 아무 소리 않고 편지와 황금 1천 일(鎰)을 장(莊) 선생에게 내주었다.

장(莊) 선생이 말했다.

- 너는 임무를 다했다.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라. 절대로 이 곳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동생이 살아나오거든 그 까닭도 묻지 마라.

장남은 장(莊) 선생의 집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는 도성을 떠나는 척하면서 성안에 남아 따로이 초(楚)나라의 실력자를 수소문했다.

장(莊) 선생은 빈민촌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덕망 높은 은둔 현자(賢者)였다.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나 초혜왕까지도 그를 스승처럼 존경할 정도였다.

그는 절친한 친구인 범려(范蠡)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황금을 보내왔으나 그것을 이용하여 구명운

동을 펼칠 생각은 없었다. 친구 아들을 구하면 그 황금을 도로 돌려줄 작정이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 이것은 범려의 돈이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오.

며칠 후 장(莊) 선생은 궁으로 들어갔다.

초혜왕(楚惠王)을 알현한 후 말했다.

-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 조만간 나라에 불길함이 닥칠 것 같습니다.

초혜왕은 현자로 소문난 장(莊) 선생의 이 같은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어떻게 하면 좋소?

- 덕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화(禍)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어떤 덕(德)을 베푸는 것이 좋겠소?

- 죄인들을 사면하면 백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다음날이었다.

초혜왕(楚惠王)은 형벌을 다스리는 대사구를 불러 명했다.

- 궁 안에 있는 창고를 모두 걸어 잠그라.

그 무렵, 범려의 큰 아들은 초나라 우윤을 소개받아 제 나름대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우윤(右尹)이라면 서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이었다.

장남은 우윤에게 뇌물을 바치고 동생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윤(右尹)이 큰 아들에게 말했다.

-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 조만간 왕께서 대사면을 행할 것이니 그대 동생 또한 풀려날 것이 아니겠는가?

큰 아들이 물었다.

- 대사면(大赦免)이 있을 것을 어찌 아십니까?

- 우리 왕께서는 대사면령을 내릴 때면 언제나 궁중의 창고를 닫아거시네.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 서이지.

우윤의 말을 들은 큰 아들은 장(莊) 선생에게 건네준 황금이 무척 아까워졌다.

'대사면령에 의해 동생이 풀려날 것인데, 장 선생이라는 사람은 힘 하나 안 들이고 1천 일(鎰)의 황금을 챙겨 넣었구나.'

그는 다시 장(莊) 선생의 집을 찾아갔다.

장 선생이 깜짝 놀라는 얼굴로 물었다.

- 자네는 아직 이 곳을 떠나지 않았는가?

-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번에 대사면령(大赦免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동생은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장(莊) 선생은 대번에 그가 황금을 찾으러 온 것임을 알아챘다.

-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돌려주려 했었네. 어서 가지고 가게.

큰 아들은 기쁜 표정으로 황금을 돌려받고는 그 집을 나왔다.

장(莊) 선생은 범려의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몹시 불쾌했다.

다시 입궐하여 초혜왕을 찾아뵙고 말했다.

- 신이 지난번에 천상(天象)을 말한 것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臣)

이 밖에서 우연히 들으니 도(陶) 땅의 부자인 도주공(陶朱公)의 아들이 살인하여 갇혔는데, 그 집에서 황금으로 대신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의 대사면령(大赦免令)이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주공의 아들을 위해서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초혜왕(楚惠王)은 크게 분노했다.

- 내가 아무리 부덕하다 하더라도 어찌 도주공(陶朱公)의 아들을 위해 대사면령을 내릴 것인가! 그러고는 즉시 재판을 열어 범려의 둘째 아들을 사형에 처하고, 그 이튿날에야 대사면령(大赦免令)을 반포했다.

이에 범려의 큰아들은 산 동생이 아니라 죽은 동생의 시체를 갖고 귀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죽은 둘째 아들의 시체를 본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다.

그러나 범려(范蠡)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 나는 큰 아이가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할 줄 알았다. 그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그는 돈을 쓸 줄 몰랐기 때문이다.

- 큰 아이는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고생을 했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한다. 반면, 막내는 내가 부유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좋은 말과 좋은 수레만 타고 다녔다.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 그러므로 그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번에 막내를 보내려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큰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해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치가 이러하거늘 슬퍼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마천(司馬遷)은 이러한 범려의 행적을 높이 평가했다.

<사기>의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편에서 범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범려는 세 번이나 옮기고도 천하에 이름을 떨쳤다.

단지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멈추는 곳에서는 반드시 명성을 날렸다.

또 <화식열전(貨殖列傳)> 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19년간 세 차례에 걸쳐 천금(千金)의 재산을 모았는데, 두 번은 가난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군자는 부유하면 덕(德)을 즐긴다'라는 것이다.

말년에 그는 자손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자손들은 이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어 재산이 수만 금(金)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도주공(陶朱公)은 곧 부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한편, 월왕 구천(句踐)은 그 후 3년을 더 살다가 재위 2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BC 469년의 일이었다.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의 흥망은 마치 대낮에 곧 짧은 한 토막의 꿈같다.

홀연 나타났다가 홀연 사라졌다.

그러기에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2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뇌리(腦裏)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얼핏 중국 대륙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기실 이것은 '춘추(春秋)'라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전국(戰國)이라는 또 다른 시대를 알리는 뿔나팔 소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2부 끝)